

# 濟州 住宅의 生活空間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rocess of Change of  
Dwelling-Units in Cheju-Do



1996年 月 日

朝鮮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工學科 建築專攻  
金永植

# 濟州 住宅의 生活空間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秀 璘

이 論文을 工學 碩士學位 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月 日

朝鮮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工學科 建築專攻

金 永 植

# 金永植의 工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_\_\_\_\_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_\_\_\_\_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_\_\_\_\_ 印

1996年 月 日

朝鮮大學校 産業大學院

# 목 차

<b>제 I 장. 서 론</b> .....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개요 .....	2
1-2-1. 연구의 목적 .....	2
1-2-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2-3. 연구의 문제 및 기대 효과 .....	3
<b>제 II 장. 이론적 고찰</b> .....	5
2-1. 인문·사회적 성향 .....	5
2-2. 문화적 성향 .....	6
2-2-1. 민간신앙 .....	7
2-2-2. 유교사상 .....	8
2-2-3. 가족제도 .....	9
2-3. 자연환경적 제주의 특성 .....	10
2-3-1. 위치 .....	10
2-3-2. 지형지세 .....	11
2-3-3. 기후 .....	12
<b>제 III 장. 사례조사</b> .....	15
3-1. 제주 주택의 수집 분류 .....	15
3-2. 중심어의 선정과 개념 .....	16
3-2-1. 제주주택 외부공간의 성향 .....	22
3-2-2. 제주주택 내부공간의 구성요소 .....	27
3-3. 주택의 공간구성 특성 .....	36
3-3-1. 막살이집 .....	37

3-3-2. 삼칸집 .....	39
3-3-3. 옷삼·알사칸집 .....	46

## 제 IV장. 제주민가 주공간 구조 분석 ..... 49

4-1. 서 언 .....	49
4-2. 제주민가 배치의 구성 및 평면 분석 .....	51
4-2-1. 대지상의 주거 배치 구성 .....	51
4-2-2. 주거상의 공간 배치 구성 .....	54
4-3. 형상으로 본 규모 순위 .....	61
4-3-1. 각실의 규모 순위 .....	61
4-3-2. 인접성 분석 .....	63
4-3-3. 매트릭스에 의한 주공간 인접도 분석 .....	65
4-3-4. 주택의 칸수 분석 .....	67
4-4. 주거의 공간 구조 분석 .....	70
4-4-1. 그래프 분석 .....	70
4-5. 모델에 의한 주공간 구조 분석 .....	73
4-5-1. 규모 및 생활공간의 변화 .....	73
4-5-2. 그래프 분석에 의한 주공간 구조 .....	77
4-5-3. 원리도 분석에 의한 주공간 구조 .....	81
4-6. 소결 .....	83

## 제 V장. 결론 ..... 84

<참고문헌> .....	86
<국문초록>.....	89
<부 록 >.....	92

## 표 목차

<표 3-1> 자료의 내용 .....	15
<표 3-2> 제주도 전통주택 안거리의 방향 .....	23
<표 3-3> 제주도 주거의 남향을 비교(정영철, 1991에서 재인용) .....	24
<표 3-4> 전통 제주주택의 내부공간 성향 .....	28
<표 3-5> 제주 전통주택의 가신 .....	30
<표 3-6> 전통 제주주택 내부공간 구성요소의 성향 .....	33
<표 4-1> 주거 단위공간의 위치에 대한 출현빈도 .....	60
<표 4-2> 인접성의 강도 및 빈도에 의한 순위 .....	65
<표 4-3> 5개평면의 매트릭스 분석도 .....	66
<표 4-4> 주택 칸수의 분석표 .....	69
<표 4-5> 년도별 주호의 조사 리스트 .....	74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프로 차-트 .....	4
<그림 3-1> 경계-차단과 통과 .....	17
<그림 3-2> 전통 제주주거에의 접근과정과 경계 .....	18
<그림 3-3> 평면 공간분석을 위한 원리도 .....	20
<그림 3-4> 전통 제주주택 내부공간 구성도 .....	25
<그림 3-5> 전용 제주주택 주공간 결정의 구조 .....	35
<그림 3-6> 전통 제주주택의 일반적인 배치 .....	36
<그림 3-7> 막살이집의 기본평면과 주공간 구조도 .....	38
<그림 3-8> 작은방이 없는 삼칸집의 기본 평면과 주공간 구조도 .....	40
<그림 3-9> 작은방이 있는 삼칸집의 한 칸형 기본평면과 구조도 .....	43
<그림 3-10> 작은방이 있는 삼칸집의 중마루형 기본평면과 구조도 .....	44
<그림 3-11> 작은방이 있는 삼칸집의 부엌내형 기본평면 .....	45
<그림 3-12> 옷삼·알사칸집의 기본평면형식과 구조도 .....	47
<그림 3-13> 원리도의 유형화에 의한 제주 전통주택의 예 .....	48
<그림 4-1> 주거배치의 유형 .....	52
<그림 4-2> 주거의 배치도 및 출입위치도 .....	53
<그림 4-3> 통시 위치의 출현빈도 .....	55
<그림 4-4> 고팡 위치의 출현빈도 .....	56
<그림 4-5> 문간 위치의 출현빈도 .....	57
<그림 4-6> 정지 위치의 출현빈도 .....	57
<그림 4-7> 평면에 나타난 정지공간의 유형 .....	57
<그림 4-8> 챗방 위치의 출현빈도 .....	58
<그림 4-9> 작은구들 위치의 출현빈도 .....	59

<그림 4-10> 큰 구들 위치의 출현빈도 .....	59
<그림 4-11> 규모 순위 분석도 .....	61
<그림 4-12> 인접성 분석도 .....	64
<그림 4-13> 주택 칸수의 분석도 .....	67
<그림 4-14> 주공간 분석도 .....	72
<그림 4-15> 연도별 주거규모 및 주생활공간 변화도(단위:평) .....	75
<그림 4-16> 시대별 민가 주공간 구조도(그래프 분석) .....	79
<그림 4-17> 원리도에 의한 주공간의 위치 분석도 .....	80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ing process of housing in Cheju from the traditional private house to the modern urban house. Its concrete goals are to examine the structure of residential space formation methods of Cheju houses.

The problems which were raised early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principal rule in the residential space formation method of Cheju houses?
2. Can Cheju houses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ime ?
3. Can Cheju houses be typified individually ?
4. Can these be succeeded and developed to the modern style ?

The theme of this study is "On the Changing Process of Living Spaces of Houses in Cheju. After examining the validity of this theme, it investigates the human and social sides based on the literatures related and some theories of natural environment and climatic nature of Cheju.

For these, this paper seeks the answer of defining the houses in Cheju and studies the principle of their plane construction methods. Consequently,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1. As the instrument of analysis selected to find a law of spatial formation of traditional private houses, the model of "Principle Diagram" is made. With this model, it is found that the spatial formation of traditional houses in Cheju has a orderliness. The formation of residential space centered on

upper part by the principle of vertical and horizontal axis, front and rear axis and cosmic centrality is considered as a law.

2. Traditional private houses are based on the principle which divided the space according to sex and increase of family members. The specialization was the formation method developed to constructing a detached room from building main room in the yard of the same lot.
3. The constructing methods of private houses in Cheju viewed from selected plane are by wooden and stone materials and apply the number of rooms and external principle by climate.
4. Layout pattern of external space is formed by small, middle and large sizes and then the shape of plane is made by some types of models. And It is known that the external space is formed by front to side, side to side and physical spatial elements of four sides.

The following analyses are the results applying two instruments used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applying these instruments, the spatial formation principles of houses in Cheju can be found and then their types can be classified as follows:

1. From the graph analysis, the formation principle of plane is shown as the radial graph centered on upper part, the increase of room division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basic fram and it became a type connected to the radial type.
2.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djacency by matrix, each room of traditional houses adopted the construction method

according to upper part, Kitchen, housekeeping and cooking at storage.

3. The residential spaces have been changed to those which secure the main living room, living room and privacy in the modern times.
4. It may be possible to standardize the houses of Cheju with the pattern of traditional private houses as well as the modern plane pattern. However, the modern houses have experienced the various changes and the living convenience in them has the compromise pattern. In addition, it has the element of individual residential space structure.

This study which is to find out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raised early obtains a considerable trust in giving the solutions with matrix analysis method, graph method and principle diagram.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it is a new approach to analyze the aspects of change in the houses of Cheju.

# 제 I 장.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동지나해 권역의 우리나라는 4계절이 확실한 변화와 그 기간이 절기에 따라 변하는 시기가 짧고, 남북으로 길게 면한 반도이기 때문에 작은 지형이지만 절기의 차가 확실하다. 특히 여름은 덥고 건조하며 태풍이 잦고 또한 겨울이 길고 추운 곳이다.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곳 중 동지나 남단에서 발생하는 여러차례의 태풍은 이지역에 사는 주거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자연의 변화를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제주도는 척박한 토양과 강한 태풍등에 의해 남다른 주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로인해 자연의 그 거대한 힘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은 초자연적 힘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생업의 장소가 바다에 의지하는 어업위주의 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의 형식은 더욱 다르게 되었다고 본다. 많은 연구들이 이에 대한 여러 측면의 사실들을 밝히고 있어 주거에 대한 선인들의 지혜를 볼 수 있어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문명이라는 것에 의해 문화가 서서히 그리고 변화는 원만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자연의 각종 재해에 대해 제어의 기술과 이에 대한 각종 기술이 발달되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자연에 순응하였던 그러한 방식은 더이상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인 면에서 본다면 교통이나 과학의 발달과 시공이 단축되고 그로 인해 문화의 이입도 또한 그 속도가 빠르고 편리하여 각종 재료가 외지에서 이입되어 이지역의 주택문화에 변화를 주는 것들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주택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편적이 아닌 여러 측면의 통합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주택의 이해에도 목표가 있겠으나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무차별하게 도입되어 지역의 특성이 없어진 주거문화를 바로하는 방안을 찾고자 이를 조명해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의 풍토적 개별성을 강조하거나 독창적인 도시적 측면에서 경관을 가꾸며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모색하는 길잡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도시가 겪어온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작업의 일환도 될 수 있을 것이며, 건축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택문화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 1-2. 연구의 개요

### 1-2-1. 연구의 목적

상기의 배경에 따라 제주주택의 변화과정을 일목 요연하게 재조명하여 그 간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 시점들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하여 주로 근대까지는 문헌 의존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그후로는 현지에서 조사된 것과 수집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과연 주생활공간은 변하고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변해왔고, 그 공간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간 상호간의 관계성, 그리고 사용 방식에서 보는 거주방식의 문제, 그리고 주택에 대한 언어상에서 공간의 호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의 주택에 대한 개념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대적 분류로 주택의 변화를 비교 해 보는데 있다. 즉 상호

비교를 통해 주생활공간의 변화 구조를 찾아 보려는 것이다.

### 1-2-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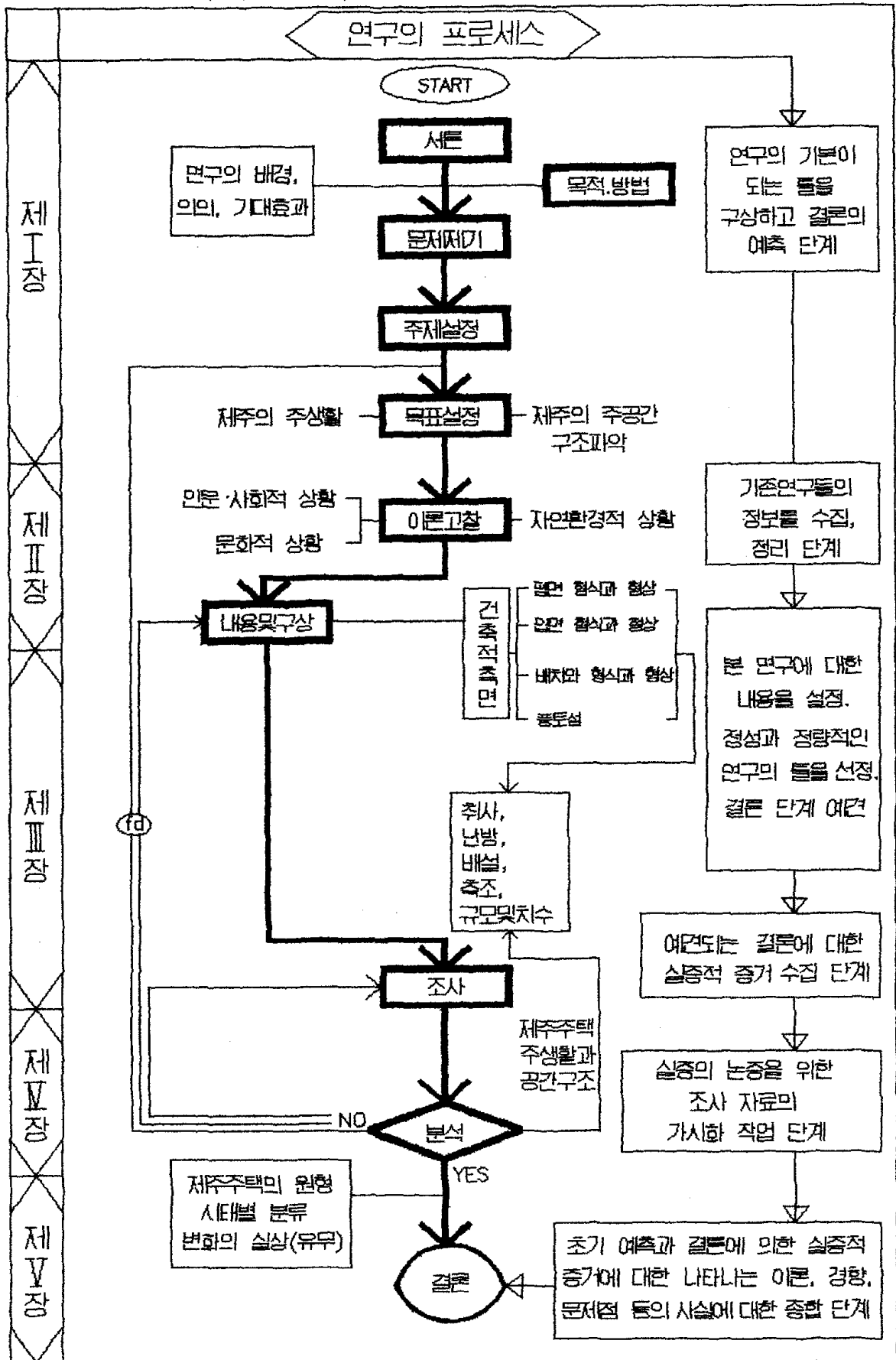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전통주거의 평면에서부터 현대의 민가 주택에 이르기까지의 주거 평면을 중심으로 거주공간 상호간의 관계와 그 구성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를 찾아 본다.

그리고 제주도의 특성상 남북으로 나누어 인문·사회적 측면인 민속신앙과 주거공간 구성관계와 현대적 주택의 공간구성 중 약간의 외적인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겠지만 주로 주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수집된 평면도와 기존의 이론등을 바탕으로 주생활공간을 비교 분석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자료수집은 현지방문과 참고문헌 및 관공서의 각종 보고서와 학술지등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 1-2-3. 연구의 문제 및 기대 효과

주거의 공간이나 형식은 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와같은 가설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주거와 주택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으며, 위와같은 측면에서 뿐만이 아닌 다른 어떤 점이 있는지 아니면 물리적으로는 문명의 힘에 의한 것일지라도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존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선행연구사와 연구현황을 고찰하고 선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대별로 분류하여 한 지역의 주거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제주지역의 주거와 주택의 공간구성 변화양상의 요인을 살펴볼 수 있고, 그로 인한 지역적인 주거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성있는 주거 디자인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1 연구의 프로 차-트



## 제 II 장. 이론적 고찰

### 2-1. 인문·사회적 성향

인간이 주거를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할 때 먼저 자연환경과 생활을 위한 거주와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적 측면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주택이라고 불러왔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주택은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다분히 문화적인 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문화는 시대의 문명에 따라 그 표현이 달라질 것이며 끝없이 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건축은 사회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의 결과라면 한 사회의 이상과 신앙, 세계관, 우주론에 대한 구체적인 은유를 지어 내며 실제적인 의미를 만드는 것이고 전체 인간 환경을 구성하는 문화 공간 관계들 및 성격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체계라 할 수 있다.<sup>1)</sup>

제주도의 역사는 한라산 북쪽의 제주시내에 있는 『삼성혈』에 얽힌 개벽 설화에서 시작된다. “태고에 이 섬에는 사람이 없었으나 고씨, 양씨, 부씨 성을 가진 삼신이 땅 속에서 용출하여 동해에서 온 푸른옷의 삼처녀를 만나서 오곡을 뿌리고 말을 기르면서 역사는 시작된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 정확한 개벽년대를 아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고려사에는 “신라에 탐라라는 이름으로 처음 입공한 것은 신라초기”라는 것에서 지금 제주도가 옛날 『耽羅』라는 독립된 부족국가로서 그 건국은 대체로 AD 350~400년경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 후 탐라는 백제와 고려 그리고 멀리는 일본에까지 교류를 하였다. 서

---

1)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p.1, 한양대 박사, 1991.

기 1002년과 1007년에 현재 섬의 중앙부에 우뚝 솟은 한라산은 수십개의 기생화산과 더불어 대분화가 있었으며 현재에 이르러 분화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희소한 것을 보더라도 그 분화가 얼마나 대단하였는 지를 알 수 있다.

탐라는 1295년 고려에 의해서 『제주』라고 개칭되었으며 약 500년 조선시대의 역사 속에 흐르고 오늘에 이른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역대왕국에 예속되면서 교류를 이어왔으며 반독립국적 입장에 놓이게 된다. 조선 붕괴후 근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큰 혼란과 격동의 시대를 겪는다.

이와같은 섬의 역사는 일반 주민의 생활을 빈곤과 기아의 연속 상에서 결과적으로 배타심과 적개심이 강하게 가슴에 생기게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500년은 문화와 문물에 대한 국가제도와 정책이 잘 정리된 시기였지만 제주도는 그 영향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유형지로서 이용되었으며 유배된 정치가나 학자들에 의한 유교의 전승, 보급이 제주문화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제주도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으며 그 하나의 예로서 문화의 서민성을 들 수 있다.

험한 풍토와 싸워 온 주민의 강인한 생활의지가 특이한 서민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특이성은 현재의 방언과 민속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도 문화가 고대의 문화성을 질게 남기고 있는 점이다. 그것은 중앙문화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항상 고대문화를 계승하여 왔다.

문화의 서민성과 고대성이라는 것은 도서라는 풍토적 조건에 적응하면서 발달해 온 특징을 갖는다.

## 2-2. 문화적 성향

제주도는 지리적, 기후적인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종교나 생활양식과 같

은 정신 문화에 있어서도 한반도와 다르며, 대륙 및 한반도와 문화 접촉이 뒤늦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독특한 제주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제주도 전통문화에 영향받아 형성된 민가는 단순한 물리적 측면의 기능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사상과 신앙, 세계관에 대한 구체적인 은유를 지어내며 물적 형태와 그 환경에 결부된 의례행위를 통해 실질적인 의미를 만들었던 것이다.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지배하는 구성요소로는 민간신앙인 무속신앙과 유교사상 그리고 본 고장의 독특한 가족제도 등이 있다. 이들이 전통적인 주거 형태 및 공간구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1. 민간신앙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과 같이 믿고 있는 풍수사상과 민간신앙은 민족의 집단사고 행위의 기본이 되는 무속신앙이다. 이것은 신화의 형태로 국가의 발생부터 함께 하면서 오랜 전통속에 종교라기 보다는 생활양식의 일부로 정착되어 문화의 저변을 형성해 온 지배적 사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추구했던 이상은 가장 원형적인 것이다.

특히 제주의 무속은 현재까지도 거의 원형 그대로 존재하여 주민의 생활속에 기능하고 있으며, 선대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된 이 원시종교 형태는 그 속에서 생존해 가는데 자신과 가족,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의탁하는 필수적인 방편으로서 절대성을 가지며, 생활의 모태가 되는 주거와는 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인간과 공존하고 있다.

무속신앙은 현실세계를 강조하는 현실 이익적인 세계관을 가지며, 이승과 저승의 이원구조이지만 구별이 없이 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간은 출생하여 성장할 때까지 신의 수호를 받고 살다가 죽으면 신이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종교적 의미로서 도덕과 윤리의 가치체계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신의 통행은 직선적 이라는 개념, 신격의 위계와 입구의 안뒤를 신성시함과 일치하는 것들은 단편적이지만 주거공간에서 장소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민간신앙인 무속신앙은 제주도 문화의 원시적, 토착적 요소로써 주거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주민의 의식을 지배해 왔다. 또한 제주도의 무속은 신의 위계에 따른 주거내의 각자의 영역이 있고 신의성격도 직능에 따라 위계가 부여되며 이 가신들 중에 상위계인 문전(문신)을 제외한 모든 무속의례는 여성에 의하여 집행된다. 그리고 가내신은 몸체인 안거리에만 존재하며 안거리만이 유일하게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sup>2)</sup>

## 2-2-2. 유교사상

조선시대의 주거건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유교사상이라고 설명되고 있으나 제주의 유교는 세종대(1418년)에 삼년거상과 수분제를 실시하여 주자가례에 의한 의례규범의 전승으로 충효정신의 사회관습이 발전되는 결정적 기점이 되어온 이래 가부장적 대가족 제도, 조상숭배, 철저한 신분제도와 남녀의 내외법 등 남성위주의 내용구성은 도서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이라는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의리와 절개를 강조하는 선비정신인 유교의 이상은 남성들에 의하여 집전되는 각종 가례와 농포제의 형식과 함께 사회적으로 공인되며, 상징적으로 내면세계에 존재하지만 현실적 유형분야인 가족제도는 제주 특유의 형식이 나타나 있고 엄격한 신분제도에 따른 노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장남, 혹은 도사리라는 명칭의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형식이 있었을 뿐이고 남녀의 내외법도는 희박하여 가사나 가례에

2) 김석윤,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 1986, p.13.

여자의 역할이 확대, 적극화 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내 여자의 위치는 하위일 수 있어도 영역은 가내 외에 훨씬 크게 점유되어 있다.<sup>3)</sup>

이로써 조선조 개국 이래로 유교를 장려했던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교사상은 이상으로 존재하며 실제로는 제례나 혼·상례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제주형이 되어 있으며, 육지의 유교사상과 비교해 볼 때 의식에 따라 강약으로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유교는 종교라기 보다는 일상생활의 규범과 예절로 풍속화 되었다.

친족은 물론이고 이웃이나 동네사람 중의 冠婚喪祭시는 모든 고향사람들이 참여하여 위문과 경축을 주고 받으며 협조하고 연말연시는 마을의 웃어른을 방문하고 세배한다.

따라서 남녀의 격리의식 가부장제의 가족주의적 상·하관계 등은 육지의 유교의식과 비교하여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2-3. 가족제도

가족이란 주거를 공동으로 하는 생활공동체이며 생산, 소비의 공동경제단위이고 부부 및 그 혈연관계의 집단이라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공동주거와 공동경제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특징이 존재한다.

한 채의 주택(3칸 또는 4칸)에서 생활하는 경우의 가족에게는 큰 특징이 없으나 한 울타리 내에 침식이 가능한 두 채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나타난다.

즉, 두 채의 건물에 각각 부엌, 장독대, 축사 등이 마련되어 있을 때 침식과 생산경영을 두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때 그 규모는 서로 다르며 통상 안거리는 크고 밖거리는 작다. 부모와 아들이 가족 중 가족수에 따라 안거리와 밖거리의 주거자가 결정된

---

3)전계서, p.14.

다. 부모의 가족이 아직 미혼자녀가 많아 큰 살림을 할 경우에는 큰집인 안거리를 차지하고 반대로 아들의 가족수가 많고 큰 살림을 할 경우에는 부모의 가족이 밖거리에 기거하게 된다. 보통은 장남이 결혼하여 가족을 갖게 되면 밖거리로 별거시키며, 부모세대와 아들세대는 부역을 따로 사용하여 취사를 달리하고 경작지를 따로 하여 생산경영을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아들이 결혼하여 첫자식을 낳아야 분가를 시켰으나 요즘은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시키고 있다. 자식들을 모두 분가시키고 부모는 노령에 이르러도 가능한 한 독립생계를 꾸려 나가고 부부 중 어느 한 편이 사망하여 결국 노동과 생계유지 능력이 없어지면 장남에게 돌아와 부양을 받는다.

이상과 같이 제주지방의 역사적 생활수단, 민간신앙, 유교사상, 풍수사상, 가족제도, 의식구조 등은 주거행태 및 공간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절해의 고도라는 한계성과 척박한 토질 등의 조건과 더불어 풍해, 수해, 가뭄 등 자연조건의 특수한 환경은 근면, 검소, 절약, 협동하는 정신을 유발시켜 주거행태 및 공간구성에 있어서 소박하고 합리적인 공간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척박한 토질, 머슴의 부재, 가부장적 가족주의적 상·하관계 및 남녀의 격리의식 결여 등 환경적 조건은 형태 및 공간구성에 있어서 강한 위계성을 갖지 않았고, 제주도 특유의 핵가족 형태를 취하게 되어 주거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3. 자연환경적 제주의 특성

### 2-3-1. 위치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단 동지나해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동경

126° 10' 으로부터 126° 58' 사이와 북위 33° 12' 으로부터 33° 34' 에 놓여 있으며 면적은 1,824.9km<sup>2</sup>로서 적국 면적의 1.8%에 해당한다. 제주와 목포 간의 거리는 약 88마일, 부산과의 거리는 약 178마일이며, 부속 도서는 유인도 8, 무인도 54개로 구성된 섬이다.

지리적으로는 태평양과 마주하고 있어서 본도의 서남쪽 북위 20° ~ 25° 지점에 하계열대성 저기압이 북위 30° 부근의 고기압과 합치하여 태풍의 진로를 북동쪽으로 전향시키는 지점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본도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대가 되어 동계 대륙서풍과 더불어 초속 10m이상의 바람이 부는 날이 년중 3분의 1정도의 일수를 나타내고 있다.

### 2-3-2. 지형지세

제주도는 지질학적 연대로 볼 때 근대에 생성한 대산도이며 시기적으로는 유년기에 속하는데 섬 중앙에 1950m의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다. 평면상의 모양은 장축이 N 70° E인 타원형이며 한반도의 남해안선과 평행하고 요동 방향과 일치한다. 해안선 전체 길이는 254km이고 동서의 길이 80km, 남북의 길이 40km이다.

따라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사면은 매우 완만한 경사(3° ~ 5)를 이루고 있으나 남북방향에서는 약간 급한 사면(5° 내외)을 나타내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심원적인 등고선을 분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썰드화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스피데형 화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양은 본도를 형성하는 화산분출이 전반기에는 광역분출이었으며 백록담을 화구로 한 중심분출에 기인되는 것이다. 본도의 지형은 개척의 정도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침식의 영향보다 화산분출형과, 그에 수반하거나

그 후에 있는 지반의 용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화산활동에 의하여 한라산이 형성된 이후 3백 60여개의 크고 작은 기생화산이 폭발하였는데, 이와같이 분화구들은 단조로운 제주도의 지형에 기복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들 분화구가 갖는 사면의 각도는 그 분화구를 형성하는 물질에 따라 각각 다른데, 조면암이나 안산암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급경사를 이루나 현무암 물질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대체로 그 경사가 완만하다.

### 2-3-3. 기후

본도는 아열대 기후대로 구분되어 있으나 동안형 아열대 기후지역이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한편, 계절풍 기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한다.

또한 산악형 지세의 영향을 받아 기후대의 분포가 아열대성 기후로부터 한대성 기후에 이르는 수직분포를 보여 다양한 국지기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본도는 대체로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남한의 최고봉인 한라산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형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국지적으로 일기가 다양하고 바람이 많으며, 특히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산남과 산북 사이에는 상반되는 일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暖, 濶, 한대의 기후대를 갖고 있는 한라산은 1천 8백여종의 식물이 수직적으로 직상을 달리 하면서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暖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화한 기후인 동시에 한성의 차가 심하지 않고 동절기간은 내륙에 비하여 짧은 편으로 년중 1400mm~1800mm의 다우지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의 지형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사방으로 경사를 이루며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도서이기 때문에 기온의 변화가 국지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난다.

년평균 강수량은 제주시가 1,440mm, 서귀포가 1,676mm로서 서귀포가 년중 약 200~250mm 더 많이 내리며 4~9월의 여름철 강수량은 제주시 1,015mm, 서귀포가 1,284mm로서 역시 서귀포가 260mm높아 산남쪽이 현저히 비가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년평균 기온은 제주시 14.7℃, 서귀포 15.5℃로 서귀포가 0.8℃ 높다.

또한 년평균 습도는 서귀포가 80%, 제주시가 77%로 서귀포가 현저하게 높다. 년평균 풍속은 제주시 4.7 m/s, 서귀포 3.8m/s로 제주시가 높다. 그리고 8,9월 경에 한 두번씩 본도를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이나 건축물에 피해가 많으며 최고풍속은 제주시 36.1m/s(NNE), 서귀포 26.0m/s(NNE)이다. 태풍의 경로는 포물선형으로 저위도에서 발생하여 얼마동안은 서북, 서쪽으로 서서히 진행하다가 제주도 서남쪽 북위 20° ~ 30° 부근에서 전향하여 동북진하기 때문에 본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의 피해가 많은 지역이 되고 있다.

계절풍은 제주시인 경우 여름(6, 7, 8)은 서남-북동풍이고 겨울은 서북-북풍이 부는데 이러한 계절풍은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는 10%이상의 바람은 년중 제주시 117일, 서귀포에는 65일이나 불고 있어서 제주시쪽이 서귀포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일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자연환경에 의한 지형지세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사면이 완만한 경사로 내려와 해안에 이르고 있으면서 주택의 지붕선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강한 비바람에 대응하면서 한라산의 지형지세에 순응하며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형지세는 각 지역에 따라 주택의 방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해안성기후가 뚜렷한 이 섬의 기후는 바람이 그 특성

을 대신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바람은 돌과 더불어 가장 뚜렷한 제주문화형성의 구동력으로 작용했음이 주민의 의식구조나 생활상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특히 주거형태의 물리적 특성은 전부 바람의 영향이라 할 만큼 많다.

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가옥을 별동으로 구심배치한 것, 높은 돌담울타리와 상대적으로 외부노출 표면적이 작은 양통형 평면이 정착되어 있는것, 대지가 도로보다 낮게 선택된 것, 목골구조 외부로 쌓은 석조 덧벽, 창호를 보호하기 위한 판장, 덧문 등은 모두 바람에 적응하기 위하여 선택된 지혜로 보이며,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된 것은 또한 기상적 조건이라고 말 할 수 있다.<sup>4)</sup>

---

4)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 박사, 1992, pp.12~16.

# 제 III장. 사례조사

## 3-1. 제주 주택의 수집 분류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답사를 통하여 주생활실태를 관찰조사 하였으며, 공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자료로서 주거의 평면은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조사·기록된 평면을 사용하였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기본형 평면형식을 취하고 북제주와 남제주로 분할하여 마을에서 조사된 각 주거의 배치도 및 평면도를 취함으로써 주생활공간의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자 지역별	장보웅(1986)	김광언(1988)	김홍식(1995)	양택훈(1992)
제주지역	제주도 전통민가의 기본형 평면형식	북제주 1개마을 2개 배치도 및 평면도	남제주 4개마을 19개 배치도 및 평면도	제주지역 4개마을 27개 배치도 및 평면도
		남제주 2개마을 3개의 배치도 및 평면도	북제주 2개마을 7개 배치도 및 평면도	

<표 3-1> 자료의 내용

### 3-2. 중심어의 선정과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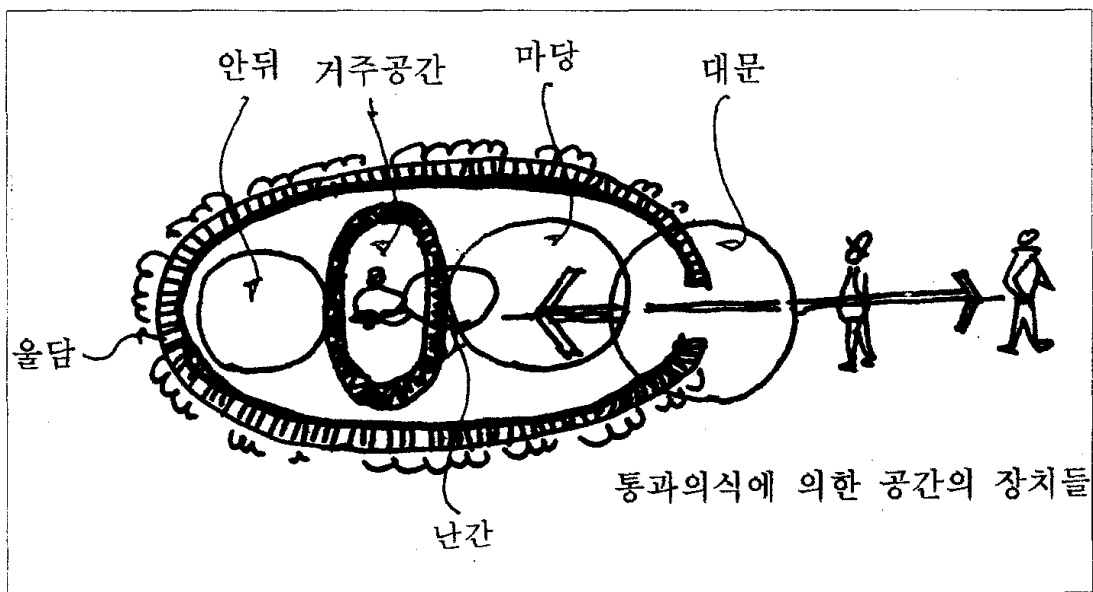
본 연구에 사용되어지는 주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기위해 몇가지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정리에 따라 제주주거 생활공간의 명칭에 대한 주공간의 특성을 정리해 보았다. 선정된 언어는 “생활공간”, “제주주택”등이다. 생활공간(life space)이란 심리학분야에서 적용되어 신영역에서의 개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적 구성 개념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직접 관찰되는 것 뿐만 아니라 행동관찰과 체험보고에서 나타나는 경험사실에 대립하여 이론적으로 구성시키는데 있다. 생활체의 행동은 외측의 객관적 환경에 직접으로 규정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생활체의 내적 심리학적 세계에 있다는 레빈(K.Lewin)의 견해를 생활공간이라 부르고 있다.

그 정의에 따르면 생활공간은 어떤 일정의 순간에 있어서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는 사실의 총체 혹은 그 개인에 일어나는 가능한 심리학적 사상의 총체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순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 어떤 심리학적 사상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고 또는 불가능할 것인가가 생활공간의 구조에 따라 규정된다. 이러한 사상에 따라서 레빈이 정한 행동의 근본규칙, 행동(B)는 그 순서의 심리학적 사상(S)의 함수에 있다.  $\langle B=f(s) \rangle$ 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이와같은 심리학적 사태는 개체에 따라서 다르게 됨과 동시에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될 수 있지만 그 넓이는 구조상 유한한 공간으로서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생활공간의 구조는 1.일정한 환경조건의 바탕에서 개체에 일어나는 행동 2.심리학적 사상이 나타내는 역학적 특성을 모두 표현되도록 한 개념 3.목적에 위하여 선택된 개념체계가 있는데 이는 형식적수학 개념으로서 경계, 영역, 연결, 백터가 포함되어지고 심리학적 내용개념으로서 경계의 갭, 소재의 유동성, 심리학적 힘의 강함이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생활공간의 환경(E.Environment)과 사람(P.Person)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에서 볼 때 생활공간에서 어떠한 사실이 실재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실재적인 것은 효과를 갖는다라는 역학적 기준을 잡았고, 또 생활공간의 방법에서는 사람의 이동에 사용된다고 했다. 그리고 어떠한 영역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질적 특성 및 경계를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규정되고 있다.



<그림 3-1> 경계-차단과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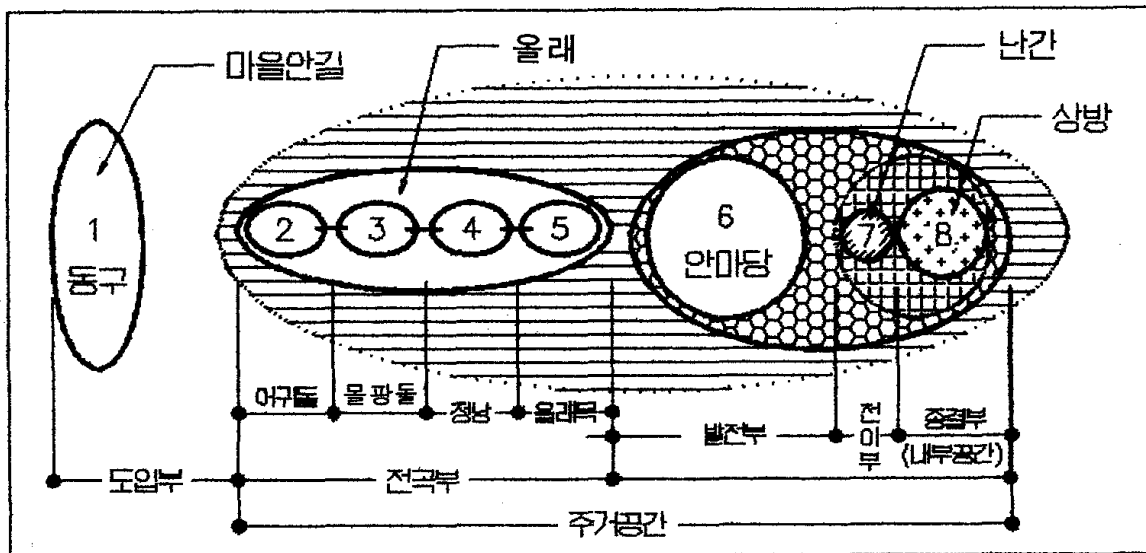
영역은 경계(Boundary)에 따라서 인접영역과 구별되고 있는데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행동이 어느 점에서 정체하면 거기에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 경계는 사람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응에 대한 저항을 나타낼 수 없는 경계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영역의 특성의 차를 조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다. 이와같이 사람의 행동은 생활공간에 있어서 사람의 이동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학적 영역의 구조는 영역의 분화도, 부분영역의 배치관계, 부분영역의 연결도에 따라서 나타나고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데 첫째, 폐쇄된 영역(close d region)은 경계선으로 에워싸인 영역이고, 개방된 영역(open region)은 경

계를 나누는 눈금이 있는 것이고, 연결영역(connected region)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외재영역(foreign resion)은 소로 공토의 경계를 갖고 있지 않은 영역등 토폴로기적으로 규정되어 표현되고 있다.

생활공간의 어떤 점으로부터 다른 점으로 사람의 심리학적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에 대립하여 통로(path)의 개념이 사용되는데 단혀진 어떤 연결영역의 어떤 점으로부터 이동이 일어나고 영역의 경계에 닿할 때에 그 경계가 이동에 대하여 저항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를 장벽(barrier)이라 말한다.



<그림 3-2> 전통 제주주거에의 접근과정과 경계

다음은 장벽의 통과 가능성(passability of barrier)의 정도에 대한 것인데 이는 여러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역의 상태의 변화가 다른 영역상태를 초래하게 될 때 두개의 영역사이에 교통(communion)이 있다고 말한다. 교통의 정도는 양 영역의 역학적 의존의 정도에 대응한다. 경계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로부터 생각되어질 때에 격벽(wall)이라 부른다. 영역의 질적 특성으로서 탄력성(elasticity)은 변화한 영역 본래의 상태로 바뀌는 경향으로

증거하는 것이고 유동성(fluidity)은 영역 소재의 특질 변화가 적지 않은 힘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가역성(plasticity)은 그 영역의 구조를 비교적 영속적으로 작은 안정된 변화를 만드는데 용이함을 나타내어 역학적으로 구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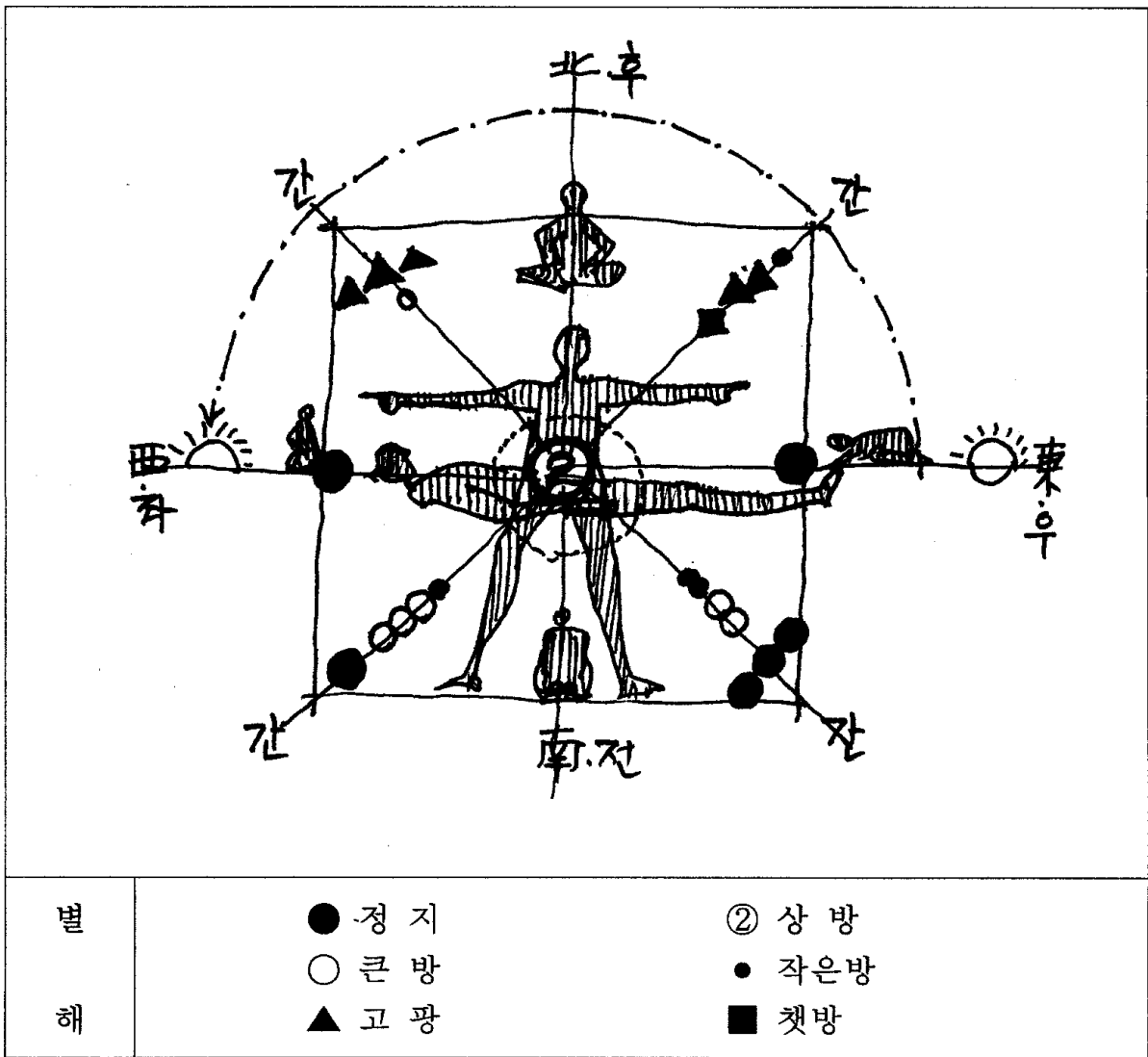
다음은 경계의 역학적 성질에는 엄밀함(rigidity)의 차이가 있고 생활공간은 환경의 부분과 사람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 순서에 있어서 생활공간이 일정 영역에 사람은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의 영역도 심적 기능체계를 표현하는 부분 영역에 분화되어 있어 각 체계 영역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아핵과의 역학적 의존의 긴밀성의 정도에 따라서 중심층으로부터 주변층에 이르러 토폴로기적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또한 사람이 일정 영역에 존재하는 체계의 긴장에 의거하여 환경의 일정 영역에 의존하는 목표등에 따라서 사람이 이동의 가부, 그 방향등이 규정되고 있으며 그 의미에서 생활공간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규약하는 심리학적 장(psychological field)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생활공간이란 레빈의 이론을 살펴보는 것으로 제주주택의 공간을 어떤 측면에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고 또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분석이 단순히 물리적인 면에서의 것이거나 역사, 민속 및 신앙에서 보는 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새로운 분석의 틀을 만들어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주주택”이란 제주도에 위치한 민간의 주택으로서 전통주택, 민가, 또는 어촌주택, 내륙주택, 도시주택 등 지역이나 위치나 시대에 따라 그 땅에서 발생변화되어온 순수한 제주도만의 토속적인 주택을 일컫는 것이다. 물론 현대적인 주택이야 외부의 영향에 의한 문화적 변화 내지는 접목으로 볼 수 있으나 어쨌든 재료와 구축방식이나 구법, 그리고 난방과 취사 등 생활행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뿌리를 가지면서 변화발전 해온 곳으로 형태가 형상면에서 제주주택을 규정한 것이다.

이와같이 규정한 제주주택의 원형으로서 제주민가는 일반형인 삼칸집에서 볼 때 한칸과 측면 전칸의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상방』을 가운데로 해서 앞은 『앞문전』을 통하여 완충공간인 못뚝(퇴)에서 마당으로 연결되고 뒤쪽으로는 뒷문을 통하여 『안뒤』로 트인다. 상방의 한 쪽은 『구들』과 『고팡』이고 다른 한 쪽은 정지이다. 전후좌우에 전부 『퇴간』이 있어 측면퇴는 방에 난방을 위한 『굴목』이 되고 굴목중단 상부는 방안에서 벽장으로 이용된다. 고팡과 정지는 퇴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방에 비하여 넓다.



<그림 3-3> 평면공간분석을 위한 원리도

마당쪽의 못뚝(퇴)은 마당에서 건조중인 곡물의 임시 수장고로 사용되고 낮은 기단과 함께 동선 연결을 원활하게 해주며 더우기 실공간인 방에 악천후의 충격을 완충시키는 중간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또한 주목할 것은 취사와 난방의 분리에서 얻은 합리적인 평면구성이 제주주택의 두드러진 장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제주민가의 기본형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 각 공간의 명칭과 특성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제주주택 공간의 분석을 위한 틀로서 원리도를 사용하는데, 원리도(原理圖)란 평면상의 주거 공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만든 틀로서 일종의 “공간분석 모델”로서 몇가지 축에 의한 분석을 도형화 시킨 것이다. 원리도에 나타난 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의 평면은 원시적 평면일 경우, 단일공간에서의 많은 요소들이 이루어지는 형상이었던 것이 세계의 주거 문화에서 볼 수 있고, 그것들의 거의 원형이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원형에서 실의 분화가 시작되는데 이때 분화방식에는 하나의 법칙적 원리가 없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 또는 가족 관계에서 위계에 대한 상하 개념에 의한 축을 설정하였고 대면하는 입장에서 볼 때 좌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규칙 내지는 법칙을 따라 상하 좌우의 축이 있을 것이다. 또한나는 우주의 원리에 의한 중심의 원리이다. 나를 기준으로 하여 그리고 일출과 일몰에 의한 자연법칙에 따른 팔방위의 개념으로 한 방위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직립과 앉고 눕는것에 대한 수직축 및 살아있는 것에 대한 생명의 축 즉, 수직 곧 종축이고 죽음에 대한 축은 수평축으로서 횡축으로 삼아 생과사의 법칙에 의한 원리에서 오는 것이다.

이상의 법칙들을 통합한 하나의 개념도를 본 연구에서는 “원리도”라는 분

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용어의 개념에 대한 원리나 형식에 따라 본 연구에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3-2-1. 제주주택 외부공간의 성향

제주도 전통주거는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별동식 배치 형식을 보이는데 이 섬의 특이한 가족 제도라는 사회적 측면과 신앙, 풍수, 기후 등 문화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진입에 따른 경계 요소에 의해 완급과 폐쇄와 트임으로 공간 체험을 풍부하게 해준다. 내외부 연결의 매개, 전이 공간인 울래 담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형성된 적극적 공간이며 공간의 비스타를 한정하고 긴장시켜 준다. 여기서부터 주택이 입구가 시작됨을 암시 기능을 갖는다.

이에는 주택의 내부와 외부의 확실한 경계를 긋는 물팡돌이 놓인다. 주택 내부로 은밀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잇돌이 있다.

또한 제주도 전통주거는 불규칙한 대지 안에 주된 안거리(몸채, 안채에 해당)와 부속 건물로서 밖거리(밖채라고도 함, 바깥채에 해당), 모커리(안거리와 직각으로 놓인 건물), 이문거리(이문간이라고도 함, 대문간에 해당)등으로 구성되는데 집이 동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을 때에는 <동녘거리><서녘거리>라하고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울녘거리><알녘거리>라 부른다.

전통민가의 배치와 방향은 지형 상태와 일사, 풍향 등 자연 조건과 좌향에 대한 길흉과 관습 등의 모든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옥의 배치는 일반적으로 배산임수의 남향 배치가 이상적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방풍 효과와 일조량에 의한 보온 효과, 연료 채취와 채소 재배, 용수 풍족, 민간 신앙, 풍수설 등에 의한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 배치 방식에 준하고 있다고 본다.

(단위:호)		배치유형		안거리 방향							
		마주	모로	동	서	남	북	북동	북서	남동	남서
북제주	하가리	18	5	5	8	1	5	4	3		1
	동명,명월	26	9	3	13	5	2	4	5	2	4
	남읍리	16	1	4	22	5	12	7	7		115
남제주	보목리	36	11	11	4	24		2		14	14
	성읍리	28	6	6	1	33				23	10

<표 3-2> 제주도 전통주택 안거리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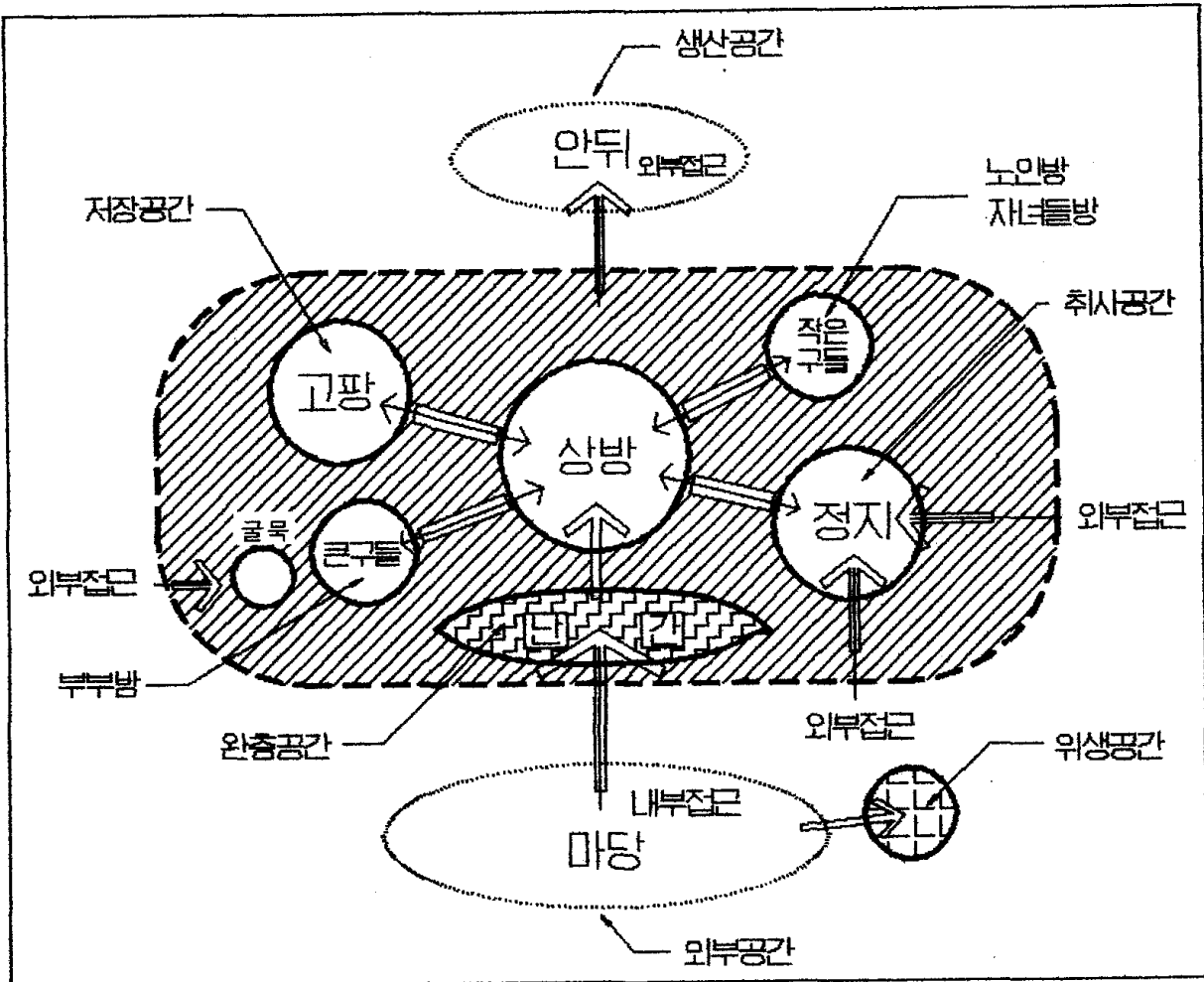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중앙에 한라산을 가진 지형적 조건 때문에 반드시 남향일 수는 없다. 때문에 건물을 동쪽이나 서쪽으로 돌려 배치하고 있다. 좌대로 방위를 결정하고, 태양의 방향보다는 주로 산과 물의 경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남제주 지방은 주거의 남향 비율이 약 70%이상이며 어떤 경우는 90%이상으로 되어 있는 마을도 있다.

그러나 한라산의 북쪽면의 가옥 배치방향은 남제주와는 판이하게 다르며, 전자는 남향이 우월한데 비하여 후자의 경우는 동향 및 서향이 우월하다. 그 이유는 한라산이 북사면에 위치하는 북쪽 지방의 경우는 시각의 안정감을 찾으려면 바다를 바라보는 북향이 좋고 태양의 방위각으로 보면 남향이 좋으므로 이상적 가옥 배치상태라고 꼽을 수 있는 배산임수의 입지를 선택할 경우 북사면에서는 가옥의 배치방향이 자연히 북향이 되는데 북향은 풍수설과 관습상으로 흉방일 뿐만 아니라 동계에 탁월한 편서풍계의 풍토지역으로 풍해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옥 배치의 방향은 지형, 풍향, 일사량 등의 자연적 조건 외에 방위와 길흉관습, 민간신앙 등의 제요인이 작용되어 동향 및 서향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안거리와 밖거리를 마주보게 나란히 배치하여 2자형식을 취하고 있다.

邑.面	里	응답자수(a)	남향(b)	남향율 (a/b 100)	동서향 (c)	동서향율 (a/c*100)
濟州市	老衡	52명	3명	6%	37명	72%
濟州市	外都	101	17	12	78	77
翰京	造水	100	34	34	58	58
翰京	板浦	100	42	42	58	58
翰林	大林	60	10	17	42	70
翰林	挾才	15	2	13	12	80
翰林	明月	25	6	25	17	69
涯月	月	100	35	35	62	62
涯月	舊巖	100	14	14	82	82
涯月	東貴	100	10	10	82	82
涯月	上貴	20	2	10	17	85
涯月	光令	128	8	6	96	75
朝天	臥山	10	1	10	7	70
舊左	細花	100	16	16	65	65
舊左	終達	100	31	31	65	65
大靜	東日	32	31	97	1	3
大靜	保城	96	91	95	3	3
大靜	新坪	87	87	100	-	-
安德	和順	100	92	92	6	6
安德	柑山	100	93	93	5	5
中文	道順	100	95	95	3	3
中文	達	25	96	96	1	4
中文	下	45	95	95	2	5
西歸	西歸3	134	44	44	34	25
西歸	西好	20	90	90	1	5
南元	水望	5	100	100	-	-
南元	爲美	100	90	90	5	5
表善	下川	70	96	96	3	4
城山	古城	67	44	44	36	53
城山	新豊	54	94	94	3	6
城山	新川	50	90	90	5	10
전도 평균				54.4		19.5

<표 3-3> 제주도 주거의 남향율 비교(정영철, 1991에서 재인용)



<그림 3-4> 전통 제주주택 내부공간 구성도

1)올래

제주도에 있어서 주거의 진입공간인 올래는 대부분 곡선화 되어 있지만 직선적 이터라도 반드시 끝부분이 곡선화되어 있는데 이를 「올래목」이라 부른다.

이것은 올래에 들어온 사람에게 집안이 들여다 보이진 않도록 하고 앞에서 느꼈던 길고 지루한 감을 전환하여 밝은 내부인 「마당」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중간인 세미 프라이비트(semi-private)한 공간이고 장치물로서는 정낭, 다리팡들, 어귀들,

올래목 등이 있다.

원래 대문이 없기 때문에 골목과 같은 이 길은 문설주의 장대돌(정주석)에 구멍을 뚫거나 담들의 틈을 이용하여 2~3개의 긴장대(정낭)를 가로로 설치하여 그들만의 기호 표시를 하였다.

사람이 있다든지, 외출하고 없다든지, 잠깐 나갔다 곧 들어 온다든지 들어와서는 안된다든지, 하는 경계와 출입을 통제하는 일종의 그들만의 축조방식이었다. 그리고 이 문설주에는 물팡돌이 놓여지는데 이는 말을 탈 때 오르내리는 디딤돌이기도 하다. 또한 암시의 표시적인 의미도 있다. 주택을 출입하는 입구로서 마당과 밖의 공공도로를 연결하는 골목이다. 그리고 이곳은 직선적인 것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곧바로 안쪽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과 진입의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지의 주택은 담을 경계하여 대문짝을 열면 곧바로 마당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골목밖에 이 경계를 정한 것이 다르다. 골목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공간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 2) 마당

마당은 전통민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 마당이란 단어가 뜻하는 사전적 의미처럼 마당은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일의 자리, 즉 움직임, 활동, 생활을 담는 기능적·사회적 의미<sup>5)</sup>로도 이해된다.

제주도 민가의 마당은 안거리와 밖거리, 모커리등의 건물에 에워싸며 근접배치되어 형성된 공간이다. 육지의 경우는 바깥마당, 사랑마당, 안마당으로 나뉘어짐에 따라 그 건물과 관련된 독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들 마당의 배열에는 분명한 서열이 존재하며 문을 매개로 하여 접속하며 단계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주도의 마당은 집 전체가 하나의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전

5)신기철·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5, 참조

체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즉 구심적 중정형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제주민가의 평면형이 육지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에 마당 중심의 기능을 중시하여 건물과 동일시 한 것<sup>6)</sup>으로 보인다.

### 3) 통시

제주도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주택의 공간에서 부속사가 차지하는 아주 지혜로운 공간이 있다면 이 변소 공간이 있다. 이는 전래되어 온 것과 토속적 신앙의 의미에서 전래되어 오는 상징성에 따라서 장소성이 주어진 곳이다. 때문에 신화와 민간전래적 사상에 근간하여 장소와 위치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현대적 의미로 본다면 사람의 인분처리를 위해 자연과 동화한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이를 다시 인간이 섭취하는 순환적 체계를 가진 삶의 방식이었다고 본다.

변소와 돛통(돼지막)을 통시라 부르는데 정지와 반대쪽 또는 안거리 정지와 멀리 떨어진 밖거리 옆에 위치한다. 이것은 대개 건물의 한 쪽 옆을 돌아서 설치되어 마당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다. 통시는 민가의 부속적 시설이지만 집 사주의 하나에 포함시킴으로써 위치와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중요시 하게 되었다.<sup>7)</sup>

### 3-2-2. 제주주택 내부공간의 구성요소

전통주거의 평면은 겹집형식의 일자형 평면으로 곡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형인 3칸집에서 보면 사회적 공간이 상방을 가운데로 해서 앞은 대문을 통해서 완충공간인 못뚝에서 마당으로 연결되고 뒷쪽으로는 뒷문을 통

6)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 1991, p.50.

7) 장용득, 명당론, 에밀레박물관, 1973, p.110.

명칭	의미	용도	위치	규격
올래	외부와 집안으로 진입하는 완충공간	진입공간	공도와 마당사이	
올래 직이	대문의 역할을 하는 바리케이트	영역성, 경계성	막대 2~3개로 설치	기호표시
마당	집안의 관혼상제 및 생산과 통행주거의 중심적 공간	통로, 생산, 작업, 의식의 장	건물에 둘러싸인 적극적 공간	
통시	변소와 돛통을 의미	변소와 돼지우리	부엌과 떨어진 곳	
돛통		돼지우리	밖거리 옆	

<표 3-4> 전통 제주주택의 내부공간 성향

하여 안뒤로 트인다. 상방의 한쪽은 구들과 고팡이고 다른 한 쪽은 정지이다.

주거는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신성공간으로서의 이중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주거 내부는 신의 위계에 따라 생활공간의 중요도가 정하여져 최고 가택신이 존재한 상방의 공간에서부터 그 밖의 다른 하급공간까지 뚜렷한 경계를 그으며 다중적 공간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제주도 전통주거는 마을에서부터 주택 내부의 사적공간 쪽으로 그 공간 기능에 따른 전이가 정연한 질서체계를 이루어서 마을안길-올래-올래목-마당-상방-안뒤로 이동간에 다중적 경계요소를 통하여 완급과 폐쇄와 트임으로 공간체험의 충실도를 높여주고 있다.

<그림 3-3과 3-4>에 의한 제주 주거의 평면 다이어그램에 대한 공간구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외형과 규모에 대한 칸수는 2칸, 3칸, 4칸으로 분류되고 있다. 2칸의 경우는 기본 최소 단위로 보이는데 이는 정지의 공간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절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구들은 외부와 정지가

연결되고 정지는 4면 연결 입구가 있다. 그러나 고방은 정지에서만 접근되어 입구가 1개소에 모두 차단되어 있다. 칸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실의 단위가 분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칸이 되면서 정지와 구들+고팡 사이에 상방이 출현하면서 정지의 기능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4면 연결 입구가 2면 연결 입구로 변하고 또 규모도 축소되면서 상방의 기능이 복잡하게 되어 간다. 그리고 상방과 정지 사이에 다시 구들 공간이 들어오면서 4칸이 되는데 이는 자녀와 부모, 또는 성별 분리에 의한 가족 주기의 영향에 따라 변화되는 하나의 규칙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개념은 <그림 3-3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이나, 향이나 방위 등을 모두 적용시켜 보면 결국 각 축들이 교체되는 중앙점이 있고, 여기에 모든 선들이 모여지는데 이점이 우주의 개념에 의하여 제주 주택의 상방 공간을 두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제주 주택의 중심은 마루에 의한 상방에서 축선을 따라 각 단위 공간들이 지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틀에 의해 다시 불과 물을 사용하는 곳을 정하고 그 후에 잠을 자는 공간을 오게 하였던 것으로 오늘의 일반 주택이 안방 위주의 침실을 크게 하였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하나의 원칙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할 중요한 항목이라 생각된다. 물론 부분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토속신앙, 성별 분류, 도덕성, 생활성, 자연환경성 등에 의한 것들이 있기도 한 것이다.

### 1)고팡

전통민가에 있어 큰 구들에 접하여 고팡이 배치되는데 고팡은 주로 곡물, 두류, 유채 등을 저장하는 향아리를 넣어두는 수장공간으로서 평면상 필수적이며 기본적 요소이다. 바닥은 지면보다 높은 흙바닥이며 부농의 경우에는 우물마루로 된 경우도 있다. 벽은 토벽이고 천정은 노출반자이고 환기,

채광을 위한 한 두개의 작은 창을 내고 상방에서 두쪽의 판문으로 된 고팡문으로 통한다.

가신의 명칭	가신의 기능
· 성주신	가옥의 신, 최고의 신
· 문전신	상방의 대문신
· 조왕신	정지의 신
· 안칠성	고팡의 쌀독을 지키는 부신
· 밖칠성	안뒤에 모셔지고 집안의 부를 수호하는 신
· 칙로부인	변소의 신
· 주목지신	정주목의 신
· 정살지신	정낭(정살)의 신
· 놀굽지신	놀굽, 노적장의 신
· 울담, 내담지신	울타리 돌담의 신
· 오방토신	집터를 각 방위별로 지켜주는 신
· 토지신	남성들에 의해 제사되는 집터의 신

<표 3-5> 제주 전통주택의 가신

고팡이 기능상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정지와 떨어져서 상방을 사이에 두고 큰 구들에 접하여 위치한 이유는 평면계획상 구조등의 제약으로 분할식 방법에 의한 칸나누기를 합리적으로 한 것과, 또한 도둑맞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침시에 집안의 가장 통제하기 쉬운 구들 옆에 붙여놓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sup>8)</sup>

8)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p.118.

이것은 고팡의 벽 구조가 도둑을 막기 위하여 상하 인방 사이 중간에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자주를 세워 놓는것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소농 등의 생활 환경에서 식량 비축의 절실함에서 온 조냥(근면 절약)정신이 유형화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 2) 상방

상방은 이칸형 민가에서 삼칸형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엌 공간이 기능 분할된 것이다. 이것은 삼칸집, 사칸집에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주택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주거 생활의 중심공간이 됨과 동시에 휴양, 가족의 단란, 손님의 접대, 오락, 유희와 가사노동 등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곳이다.

따라서 상방은 床房이나 삼방, 마리라라고도 불리는데, 생활하는 방의 뜻으로 삶방(living rom), 즉 삼방이 원래의 호칭<sup>9)</sup>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관념적으로 말한다면 『場』의 공간인 마당에서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과 『陰』의 공간인 안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상방의 정중앙에서 약간 뒤쪽으로 부섭(돌화로)이 설치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원형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 3) 구들

제주도에서는 온돌의 설비가 없는 상방, 고팡 등의 공간을 방이라 부르고 온돌의 설비가 있는 공간을 구들이라 부른다.<sup>10)</sup> 『큰구들』은 수면, 편의, 화장, 학습, 육아와 병보호 등의 공간으로 주택의 사적 생활기능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기능상 상방과는 다르다.

이는 건축물로서 사물적으로도 표현되어 큰구들은 천장이 만들어지고 육면이 모두 벽지가 붙여져 모든 구조체가 감추어지므로, 구조체가 노출되어

9)장보용,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출판사, 1986, p.159.

10)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p.37~50.

있는 상방과 대조되는 곳으로서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는 휴식의 공간이다. 벽장에는 『궤』 한쌍을 나란히 놓고 그 위에 이불을 곱게 개어 엮는다.

여기에는 문이 없이 장식 벽면으로 쓰였다. 침구는 벽장과 붙여 긴 방향으로 펴는데 머리는 창문쪽으로 가는 것이 보통이다. 『고팡』과의 사이에 있는 벽면에는 『화』를 설치하며, 창문과 『샛문』 사이에 이루어지는 구석진 모퉁이에는 등을 걸고 바느질 상자를 두며 거울을 걸어 주부의 화장공간으로 이용된다.

구들에는 『큰구들』과 『작은구들』이 있으며, 큰 구들은 부부의 방으로 사용되고 작은구들은 아이들 방으로 쓰인다. 『밖거리』구들에는 세대가 전혀 다른 성장한 아들 신혼부부 또는 경제력을 상실한 노부부 등이 산다.

#### 4) 챗방

『챗방』은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사회적 생활공간과 보건위생적 공간의 완충공간이다. 이것은 주부의 가사노동 등을 절약함과 동시에 식사공간의 위생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생활공간인 상방으로부터 공간분화를 한 것이다.

이것의 존재는 그것이 근대적 공간분화라는 점에서 제주도 주택을 높이 평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 5) 정지

정지의 바닥은 흙바닥이고 벽은 돌을 쌓아 흙만 바르며 천정은 구조가 노출되어있다. 정지 외측벽에 네모로 다듬은 커다란 현무암으로 만든 솔덕을 각각 3개씩 세우고 그 위에 솔을 크기 순서에 따라 걸어 놓고 사계절 취사에 이용한다. 솔의 개수는 4~5개이며 크기의 순서에 의해서 큰솔(메주콩, 행사시 이용), 외말치, 밥솔, 국솔으로 배열되었다.

명칭	의미	용도	위치	규격
상방	생활하는 방의 뜻(삶), 삼방이 원래의 호칭, 구조체가 노출	관혼상제, 휴양, 가족집회, 단란, 접대, 오락, 식사, 놀이, 가사	주택의 중앙에 온돌이 없는 방	3칸, 4칸집에서 나타남
큰구들	식생활과 성생활이 이루어지는 곳, 구조체가 감추어짐, 제실 및 산실로 이용	식사, 취침, 출산, 자녀양육, 내객, 부부, 유아의 침실	육지의 안방과 다름, 정결한 공간, 생명을 받아들이는 장소, 아랫목·윗목이 있어 공간질서의 원점이다	
작은구들	아이들의 방	놀이, 취침	큰구들 반대편	
찾방	보건위생공간	식사	정지 앞	
고팡	곡물항아리를 넣어 두는 수장공간	곡물, 두류, 유채저장	온돌이 없는 방	집안의 가장이 이용
문전	살림채 대문의 신	상방이 주거의 중심이 되게 가진다		하는 기능을
정지	취사와 불을 지피는 공간(가사작업)	취사에 이용	솔은 4~5개	조왕신 거처

<표 3-6> 전통 제주주택 내부공간 구성요소의 성향

솔과 벽 사이에는 재를 모아두는 공간을 솔뒤팡, 솔등얼, 불채통, 솔못 등으로 부른다. 취사용 지들거(연료)는 새, 보리짚, 조짚, 고사리대, 소나무잎, 소나무가지 등이며, 구들 난방용과는 다른 재료이다. 솔에다 때는 연료의 열은 취사에만 쓰이고 여열을 구들 아래로 들이지 않는 것은 온돌이 들어오기 이전의 솔걸이 형태라 생각된다.

제주도의 온돌은 육지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으면서도 구조상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sup>11)</sup> 첫째, 온돌의 구조상 제주도에서는 1/3정도만 온돌설비

11) 김정기·김홍식, 『건축편』,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종합보고서, 제주도, 1973, p.299.

를 하고 나머지 2/3는 둥근돌을 사이에 구멍이 나게 마구 쌓은 구조로, 구들 전체를 온돌설비를 한 곳은 드물다. 구들고래의 모양은 중앙에 넓은 고래, 그 양 옆으로 4~5개의 작은고래를 만들었고, 굴뚝 아궁이에서 중앙고래에다 동그랗게 만든 말뚝을 깊숙히 밀어넣고 입구에다 불을 붙인다음, 입구를 돌로 막아두면 밤새 연소되어 제주도의 겨울 기온에 적당한 온도가 구들에서 유지된다.

둘째, 제주도 온돌은 아궁이가 취사와 난방을 분리하며 사용하는 연료와 육지와 다르다. 연료는 건마분, 건우분을 쓰는데 이것만 쓰면 너무 뜨거우므로 건마분, 건우분 1/3에다 고시락(보리대 찌거기)을 2/3정도 섞어 쓴다.

이것은 취사에 부적합하므로 취사와 난방 아궁이가 분리되게 되었으며, 화력이 좋고 공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시간 연소하여 열을 발산한다.

셋째, 제주도의 온돌은 굴뚝이 없다. 방밑으로 들어간 연기는 벽틈이나 마루밑으로 흘러 새어 나간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제주도의 특유한 연료와 구조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며 또 본도에는 태풍이 자주 내습하고 강풍이 불므로 화재의 위험을 막기 위한 고안으로도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의 온돌을 육지부의 것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온돌은 퇴화된 상태라기 보다는 미발달의 상태에 있다고 하나, 이러한 온돌의 구조와 연료, 난온한 기후로 인해 육지부의 난방방법과 다른 제주도 특유의 온돌이 발생된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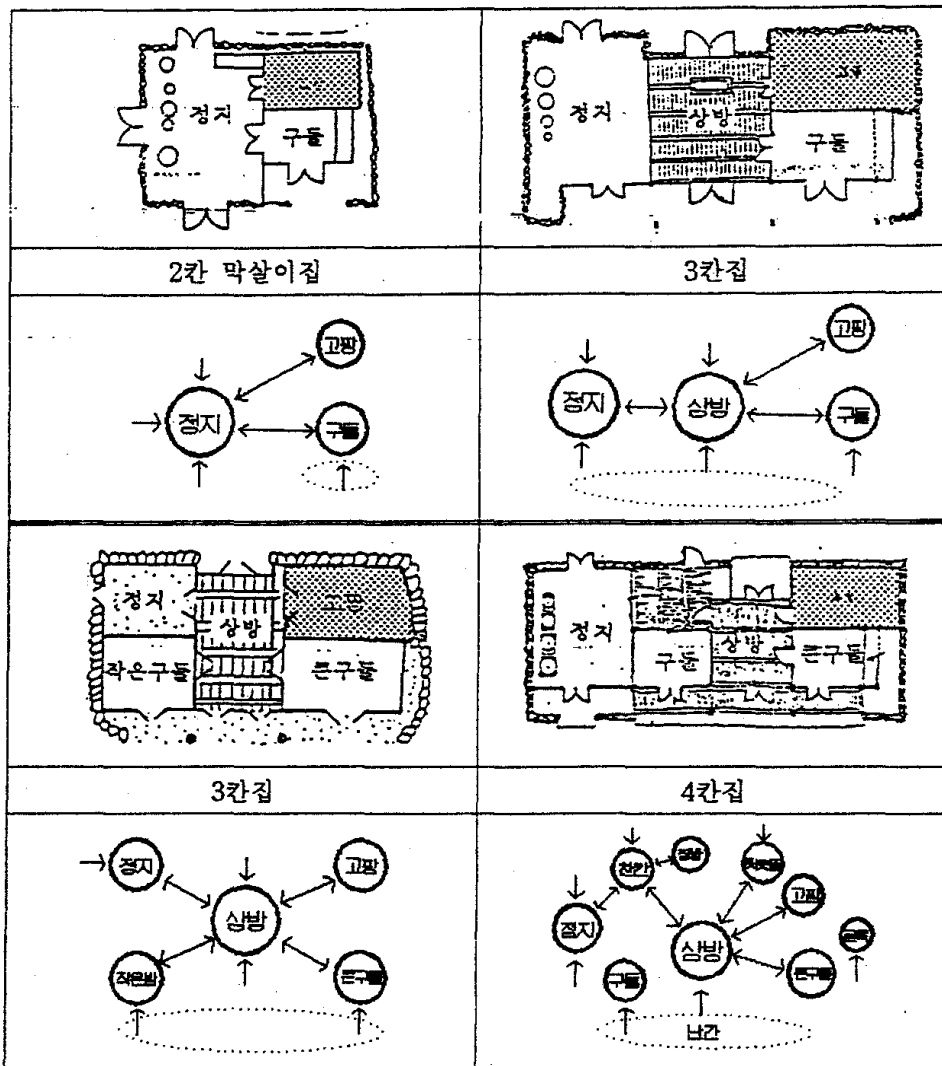
이러한 제주도 특유의 온돌이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사와 난방용 아궁이가 분리되므로 정지와 구들은 떨어질 수 없고 평면계획이 자유롭다. 둘째 굴뚝이 없으므로 주택의 의장이 자유롭고 방의 방위가 지장을 받지 않는다. 셋째 정지의 아궁이 앞 바닥이 정지 바닥보다 낮아 정지의 동선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다.<sup>12)</sup>

---

12)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 1991, p.58.

6) 굴묵

『굴묵』은 난방을 위한 공간으로 주택의 보전, 위생적 공간에 속한다. 굴묵의 입구에는 연료를 보관하여 두거나 굴묵을 사용하지 않는 여름 동안은 기타 잡다한 물건들을 가져다 놓는 수장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3-5> 전용 제주주택 주공간 결정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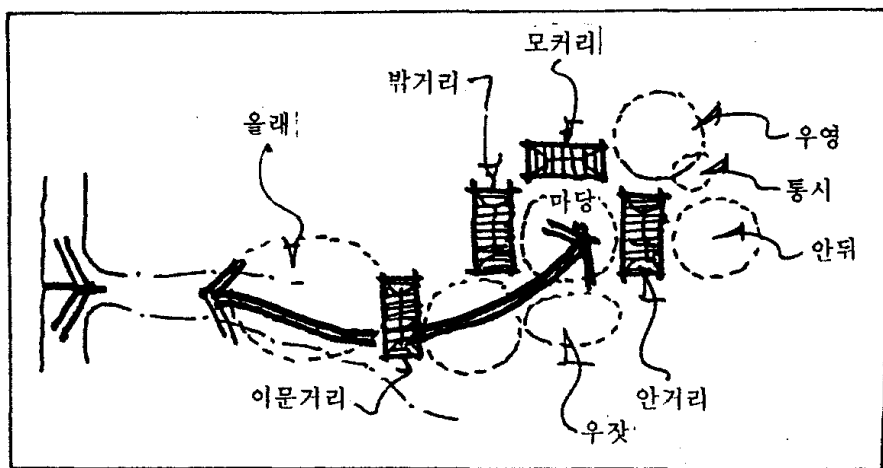
굴묵 상부 중, 일부분은 벽장으로 사용되고 그 밑에는 방의 중앙위치에 불을 뿜 수 있는 아궁이(어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앞은 사람이 불을 뿜 수 있도록 치워져 있다. 굴묵의 고평쪽 구석에는 불을 때고 난 재를 쌓아두

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sup>13)</sup>

이상과 같이 몇가지 제주 전통주택 평면을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주택 주 공간의 구성에는 일정한 법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림 3-5>와 같다. 먼저 상·하·좌·우측에 의한 위치의 고정으로 볼 수 있으며, 위치의 고정에 있어 그 유형은 횡과 종에 의한 축의 분류가 있고 다음은 층단분류에 의한 상과 하가 있으며, 다음은 향에 의한 분류로서 8방위에 의한 축의 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위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 3-3. 주택의 공간구성 특성

마을의 구성단위이며 인간생활의 본거지인 주택은 자연조건과 생활양식에 의하여 그 모양과 구조를 달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부, 중부, 남부의 지역에 따라 주택의 평면적 공간구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 전통민가의 평면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6> 전통 제주주택의 일반적인 배치<sup>14)</sup>

13) 양택훈, 제주도 주거건축의 변천과정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대 산업대학원 석사, 1988. p.24.

14)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 1991. p.125.

### 3-3-1. 막살이집

막살이집은 직사각형 2칸 우진각 초가집으로서 상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평면은 단형으로 장변쪽을 전면으로 삼는데 전면의 길이는 보통 6m정도이고 측면의 길이는 4.5m내외로서 각변 길이의 비는 약 1:1.42 이다.

간살은 전면을 이등분하는 평면을 양분하여 한쪽은 정지, 다른 한쪽은 앞으로부터 『뭇뚱』, 『구들』, 『고팡』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구들 한쪽에 굴묵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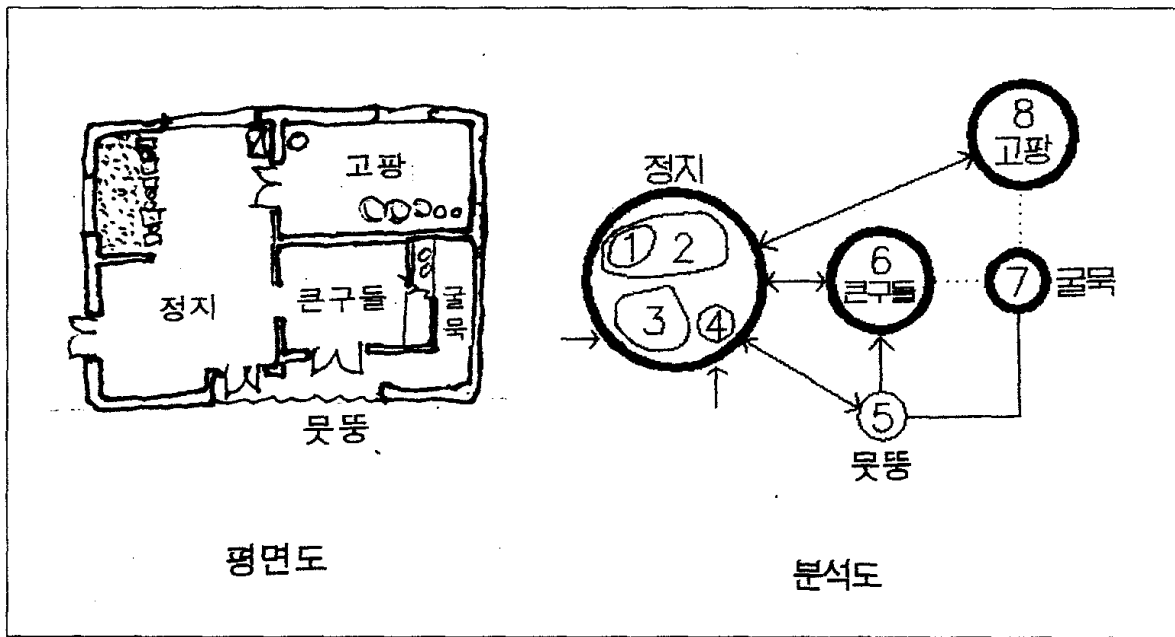
부엌은 전체공간의 1/2을 차지하는 장방형으로 바닥은 흙바닥이고 벽은 조적한 흙벽마감이며, 천장은 제치장반자이다. 부엌 앞에는 주출입구인 부엌 앞문이 있고 부엌 뒤 또는 옆에는 부출입구인 부엌 뒷문이 있다. 그리고 방과의 동선을 연결하는 샛문이 있고 고팡과의 연결을 위한 고팡문이 있다. 창은 연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부뚜막(화덕)뒤에 1개소 정도 배치되는데 그 형태는 봉창이다.

부뚜막은 외측벽에 설치한다. 솔과 벽 사이에는 재를 쌓을 수 있는 공간인 『불치통』이 있고 솔은 4개정도 건다. 부엌은 기능면에서 취사이외에 식사, 공동거실 및 공동작업장인 상방의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토간의 부엌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바닥에 검질(짚)을 깔아 두는게 보통이지만 판상이 놓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정지머리』라 한다.

이같은 부엌의 형태는 제주도에 있어서 원형적 가옥구조의 극소형으로 추정된다. 뭇뚱(퇴)은 방앞에만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엌 앞문에까지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바닥은 흙바닥이며 전면은 외부에 개방되어 있다. 『구들』은 주민의 사적 생활기능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정방형 평면을 가지고 있다. 바닥은 온돌로 온돌유지 마감이고 징두리벽은 판벽이며 상부벽은 새벽위 벽지마름 마감이다.

천장은 고물반자로서 천장지를 붙인다. 방 앞에는 창문이 있고 부엌과의 사이에는 샛문이 있다. 벽장은 굴묵 상부에 설치된다. 굴묵은 방의 난방을

위하여 불을 때는 곳으로 방에 붙여 긴 평면을 가지고 있다. 바닥은 흙바닥이고 벽과 천장은 부엌과 같으나 마감이 거칠다. 출입은 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은 없다. 굴묵 상부의 일부분은 벽장으로 사용되고 그 밑은 방의 중앙 위치에 불을 났을 수 있는 아궁이(어귀)가 설치되어 있다. 『고팡』은 곡식류를 수장하는 공간으로 방 뒤에 배치되어 부엌으로 출입하도록 만들어졌다. 출입구는 고팡문 뿐이며 봉창이 1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다. 막살이집은 대개가 해안 및 내륙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며 대개 경제적으로 가난한 주민들과 노인부부들이 산다. 제주도에는 이런 집이 상당수 존재하며, 조선말기에는 더 많이 있었으리라 믿어진다.



<그림 3-7> 막살이집의 기본평면과 주공간 구조도 <sup>15)</sup>

위의 평면도는 막살이집의 기본 평면과 주공간구조도에 관한 것이다. 주공간 구조의 내용은 보다 세분화되는데 뭇똥과 굴묵의 출현을 볼 수 있다. 보다 특이한 것은 정지의 단위공간에는 4개의 요소공간이 있음을 볼 수

15) 좌측평면도.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 박사, 1992. p.29

있으며, 이들은 정지라는 큰 전체속에 2와 3인 전후의 개념에 의한 공간이 분리되고 그들은 각각 하나씩은 인접내지 포함되는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4는 입구 원복도 개념으로되어 3과 2는 연결하고 다시 6과 8을 연결하고 있는 매우 훌륭한 기능을 가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정지는 2개+4개+1개씩의 요소 공간에 의한 집합된 단위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못뚝이라는 정지와 큰구들 진입의 전실인 결정공간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마당의 개념이나 텃마루의 개념도 아니며, 벽의 연장선에 있는 내부적인 외부공간이고 이곳은 정지와 큰구들과 굴목을 연결하는 다기능 공간인데 이는 제주전통주택의 특수 또는 개별성있는 공간으로 판단되는 지혜로운 공간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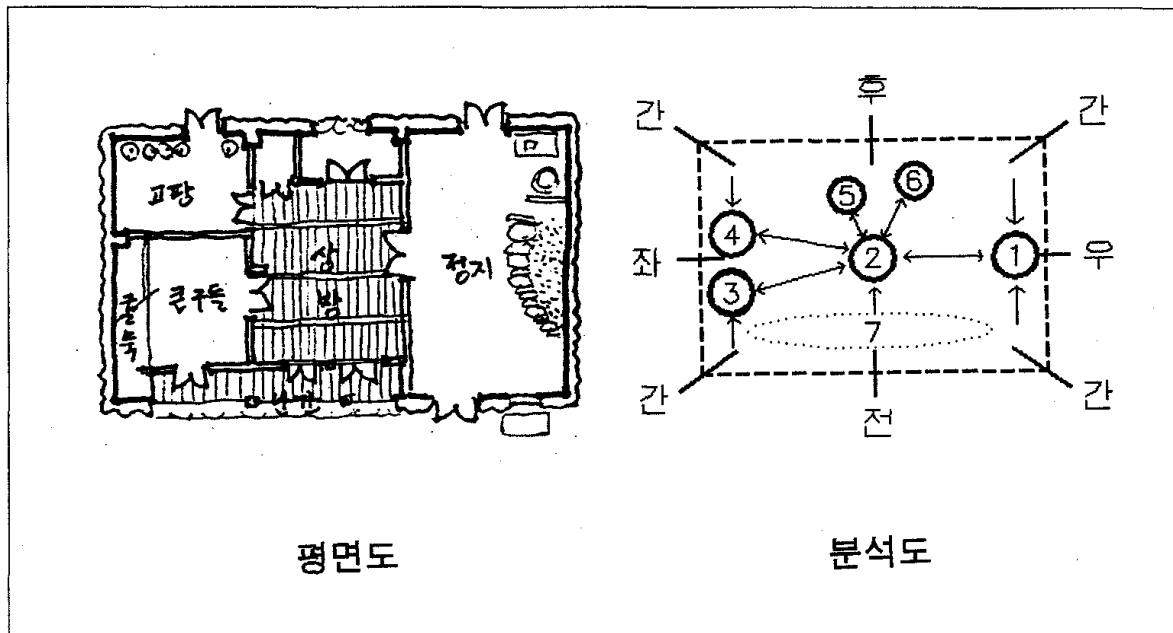
### 3-3-2. 삼칸집

삼칸집은 구들, 상방, 정지의 삼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칸집에서 상방이 분화되어 나타난 형식이다. 또는 제주초가의 일반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시 부엌간의 평면형태에 따라 『한칸형』, 『중마루형』, 『부엌내형』으로 분류된다.

#### 1) 작은 방이 없는 삼칸집

평면은 단형으로 장변쪽을 전면으로 삼는다. 전면의 길이는 보통 9.3m이고 측면의 길이는 5.4m이다. 각 변 길이의 비는 보통 황금비(1:1.618)에서 1:2정도의 비례를 갖는다.

평면의 간살이는 전면을 삼등분하는 선으로 평면을 셋으로 나누었고 좌측 간살은 정지, 가운데 간살은 전면으로 난간을 제외한 상방, 우측간살은 앞으로부터 난간, 구들, 고팡과 방 우측에 굴목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 3-8> 작은방이 없는 삼칸집의 기본 평면과 주공간 구조도<sup>16)</sup>

이것은 막살이집과 마찬가지로 상방을 중심으로 평면의 좌우가 바뀌는 수가 있다. 이 삼칸집은 부엌과 방 사이에 상방이 발생함으로써 공간분화를 하였다. 이것이 막살이집과 크게 다른 점이다.

부엌은 각 변의 비가 1:1.66인 장방형 평면이다. 바닥은 흙바닥이고 벽은 조적한 위에 흙벽마감이며 천장은 제치장반자이다. 정지 앞문과 뒷문은 막살이집과 같으며 상방과의 동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정지셋문이 있는 점이 다르다.

창은 봉창으로 아궁이 근처에 1~2개소 설치되어 있다. 부뚜막(화덕)은 반드시 상방과 반대쪽인 외측벽에 앞쪽으로 붙여서 배치된다. 연료는 상방벽 앞쪽 구석에 정지 앞문으로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놓는다. 부엌 외측벽과 앞벽이 놓이는 구석에 방을 만들어서 연료 수장고로 쓰기도하는데 이것을 『고랑채』라고 한다. 물항은 정지 뒷문 옆에 놓고 그 옆에 살레를 배치한다. 상방쪽 벽에 붙여서 정지 셋문 앞쪽에는 『검질』을 깔아놓고 『짚방석』을 수개 배열한다. 이곳은 농번기때 또는 간단한 식사를 할 때 이용하

16) 좌측평면도. 전계서, p.31.

는 식사공간이다.

설거지를 할 때 쓰이는 『긱은 물통』은 살레 앞에 놓고 사용하는데 가동성이 있으므로 쓰고나면 치워 뒷벽에 세워 놓는다. 『부섭』은 부엌에 설치되는데 부엌 정중앙에서 약간 뒤에 만들어 놓는다. 여기에 나무를 때어서 겨울에는 부엌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큰일이 있을 때에는 생선이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이용되기도 한다. 부엌 전면 좌측 구석의 불치통 상부에는 『닭통』을 만든다. 『허벽』을 올려놓는 『물팡』은 정지 앞문 밖의 왼쪽 전벽에 설치된다. 『장항』은 정지 뒷문밖에 4~5개의 원형을 배치한다. 난간을 대부분 마루로 되어 있다.

이것은 상방 앞과 방 앞에 길다랗게 설치된다. 난간의 서까래 앞에는 『풍채』를 단다. 풍채는 비바람이 칠 때 이것을 내려 바람을 막고 별이 날 때는 이것을 내려서 땡별이 상방에 비치는 것을 막는다. 상방은 집의 정중앙에 놓인다. 각 변의 비는 1:1.69이다.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징두리벽은 판벽이며 상부벽은 새벽(기벽)마감이다. 상방 앞쪽에는 주출입구인 대문이 있고 규모가 특별히 작은 집이 아닐 경우 대부분 『호령창』이 있다. 이것은 대부분 큰 구들쪽에 위치한다. 상방 뒷면에는 집 뒤의 안뒤 공간과 연결되는 뒷문이 있다. 그 외 『정지셋문』, 『고팡문』, 『구들셋문』이 있다.

『부섭』은 부엌의 것과 같은 용도로 쓰이는데 모양 좋게 가공하였다. 위치는 상방 중앙에서 뒤로 치우쳐서 설치하였다.

장방은 뒷문 뒤의 퇴에 만드는데 이런 집의 형태에서는 고팡쪽에만 설치된다. 용마루 밑에는 큰 물건들을 올려놓는 선반틀이 설치된다. 구들은 방형으로 크기, 용도, 공간이용 등이 막살이집과 같다. 다만 그 치장의 재료가 약간 고급일 뿐이다.

사람의 출입은 상방에 붙어 있는 구들 셋문으로 하고 난간에 설치된 창문은 채팡, 통풍, 조망용이다. 고팡은 각 변의 비가 1:1.581인 장방형 평면이다.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벽은 중깃(헛벽선)사이에 심벽 처리하여 흙벽 마감한

것이다. 천장은 상방과 같은 제치장 반자이다. 문은 상방쪽으로 고팡문이 있고 창은 뒷벽에 상여단으로 설치하거나 봉창을 이용한다. 고팡의 용도는 막살이집과 같다. 곡식을 담은 항아리는 건물 뒷벽과 셋벽에 붙여 양쪽으로 놓고 가운데는 통로로 사용하며 굴목은 막살이집과 같다.

『작은방이 없는 삼칸집』은 비교적 긴 올래를 갖고 있다. 올래는 마당 옆으로 연결되었고 마당은 비교적 크다. 마당 옆에는 놀이 설치되어 있다. 『안뒤』는 없고 우영만이 존재한다. 우영에는 채소 등을 심어 일상시의 조리에 사용한다.

『통시(변소)』는 『돛통(돼지우리)』안에 설치하되 부엌과 떨어진 대지내의 구석진 곳에 만든다. 이런 집에는 대부분 신혼부부나 어린자식을 둔 젊은 사람들이 살고있다.

<그림 3-8>의 경우는 주공간 위치 모듈의 틀에 놓고보면 왼쪽그림과 같은 상태를 볼 수 있다. 이 평면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상방을 기점으로 삼사상에 의한 공간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상방을 중심으로 한 좌우의 위치변화인 정지와 고팡을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방위 등에서 보는 주호의 단위 공간들이 놓여진 위치가 어떤 법칙성의 질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당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완충공간으로 난간이 출현하고 또한 목재마루가 깔리고 있다. 못뚝이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뒷쪽에도 장방과 뒷뚝뚝이 출현되고 있으며 삼칸의 발전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 2) 작은방이 있는 삼칸집

작은 방이 없는 삼칸집에서 정지 부분의 일부가 구들로 분화되어 구들 2개가 된 형을 말하며 상방의 일부에 수장공간인 장방이 설치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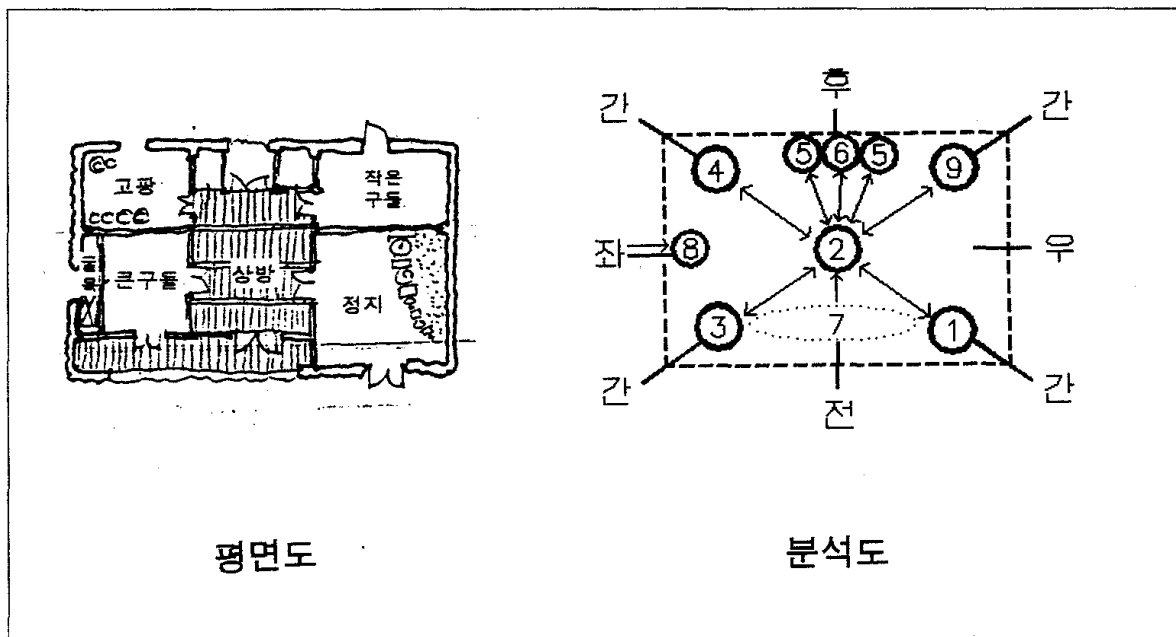
삼칸집에서 작은 방이 없는 삼칸집으로 구조발전, 공간확대가 됨에 따라 또 그 한정된 공간에서 본능적으로 가족간의 독립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경제

적 능력이 가능한 데서 작은 방 한칸이 덜 늘어나게 된 평면형태를 말한다.

(1) 한칸형

작은 방이 없는 집에서 정지공간의 1/2정도를 작은 구들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지의 앞쪽 또는 뒷쪽으로 바꾸어 배치할 수 있다. 상방에는 『장방』이 설치되고 굴목공간은 다른 평면형에 비해 1/2크기로 구성되며 난방방식은 외벽측에 출구를 두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작은구들은 정지에서 아궁이를 설치하여 해결한다.

<그림 3-9>은 정지가 상하로 2등분 됨에 따라 전·후 사잇간에 들어오게 된다. 이 역시 상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뒷쪽의 일부가 뒷못뚝을 중심으로 좌우공간이 균등히 3등분 되고 있다. 상하, 좌우, 전후의 공간이 확실하게 고정되었다고 보는 3칸 전형적인 주거평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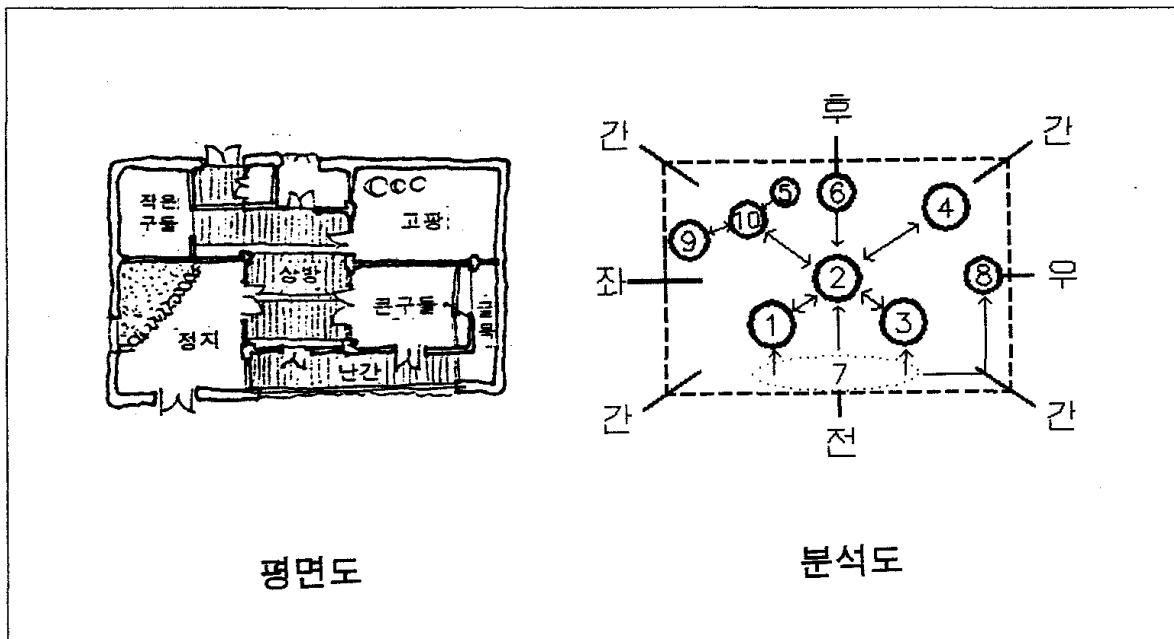
<그림 3-9> 작은방이 있는 삼칸집의 한 칸형 기본평면과 구조도 17)

17) 좌측평면도. 전계서, p.33

(2) 중마루형

한칸형 정지공간의 작은 방 일부가 종분할하여 상방과 같은 작은 구들 사이에 생기는 공간에 마루를 깔아 중마루 공간을 구성한 것이다. 상방에 설치된 장방은 다른 평면형과는 다르게 중마루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마루는 부엌의 일부가 되어 부엌공간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부엌내부의 기능을 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협소한 한칸형 부엌과는 달리 부엌공간이 확대되고 내부기능이 분화하는 것으로 보아 챗방이 이는 옷삼·알사칸형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그림 3-10> 작은방이 있는 삼칸집의 중마루형 기본평면과 구조도<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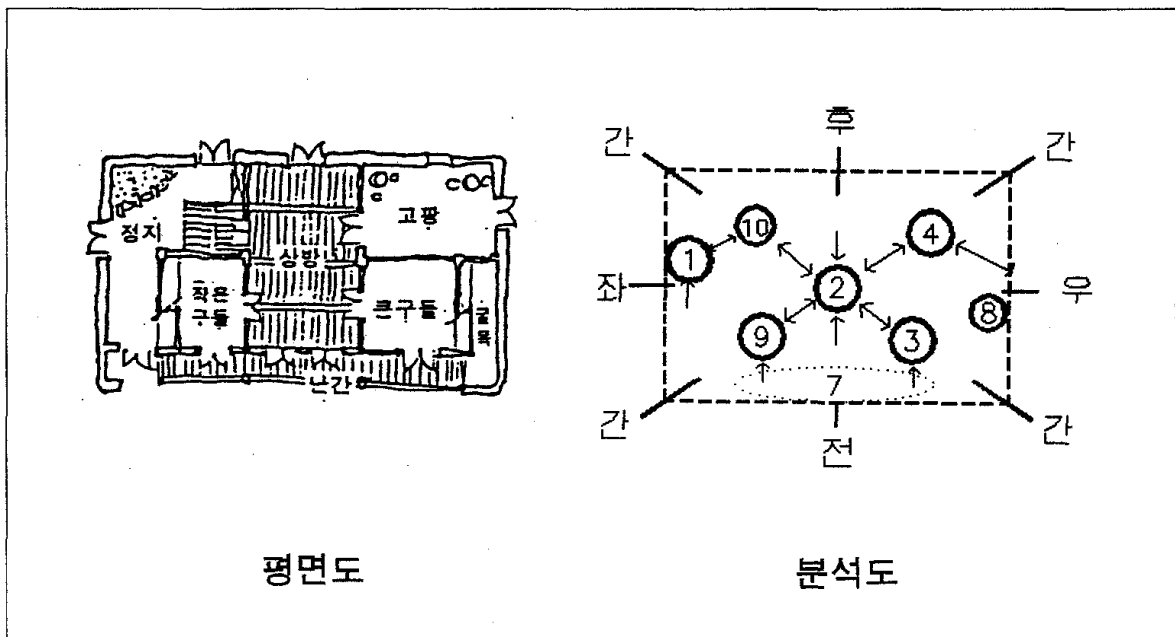
<그림 3-9>와는 달리 전·후축에 의한 반대되는 공간에 위치하면서 작은 구들이 변화되었다. 축소된 이 공간은 상방의 연속공간이 만들어져 작은 구들과 상방사이의 완충공간이 탄생하고 있다. 이와같은 공간변형으로 미루어 보아 전면난간→상방→뒷뜰로의 연속이 유도된 형식이다. 세부적으로 볼 때

18) 좌측평면도. 전계서, p.34.

전면은 4칸 마디공간, 뒷면은 5칸마디형의 공간이 발생되는데 이는 지역적인 특색과 외부공간에 따라 출입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 (3) 부엌내형

정지공간의 내부에 작은 구들을 상방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한 형태이다. 외벽과의 사이에 생기는 공간은 부엌의 일부가 되어 난방공간이나 수장공간으로 이용된다. 상방에서 장방을 설치하지 않고 부엌의 살레가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부엌 내부의 공간기능이 분화되는 것이다. 평면형태 및 작은 구들의 난방기능이 웃삼·알사간집과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웃삼·알사간집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단계로 생각된다.



<그림 3-11> 작은방이 있는 삼칸집의 부엌내형 기본평면 19)

먼저 전면에 있는 난간(뒷마루)의 좌우길이가 상당히 개방되고 넓혀진 것을 볼 수 있고 상방과 정지공간의 직통이 아닌 완충공간이 발생하였다.

19) 좌측평면도, 전개서, p.34

그리고 정지가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세장형 정지가 발생하게 되고 다른 평면들은 큰 구들과 작은 구들이 전후간, 좌우간에 대각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고 또한 고평의 규모가 크고 내부와 외부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정지의 출입은 3개소로 되어 있는 것도 다른 평면과는 비교되는 특성이라 하겠다. 정지와 상방은 챗방이 새로이 출현되었다.

### 3-3-3. 옷삼·알사칸집

이 주택은 원형적 삼칸구조를 토대로 시대적 경과에 호응하여 변형된 평면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구조는 삼칸집과 유사하나 위 지붕가구는 삼칸이며 아래 평면형태는 사칸인 우진각 초가이다.

평면은 장변을 전면으로 삼고 삼칸집보다 약간 더 전면이 길다. 평면의 간살이는 중앙에 상방이 설치되고 그 우측(또는 좌측)에 챗방과 작은구들이 전후로 놓이며 또 그것의 좌측에는 부엌이 기다랗게 만들어진다. 상방 우측 또는 좌측으로는 삼칸집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난간과 구들 고평이 있고 방외측에 굴목이 구성된다.

삼칸집과 다른 점은 부엌을 다시 전면에서 이등분하여 외부쪽을 정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후로 나누어서 하나는 챗방으로 다른 하나는 작은 구들로 사용하는 점이다. 정지는 각 변의 비가 1:3.7인 보 방향으로 긴 장방형 평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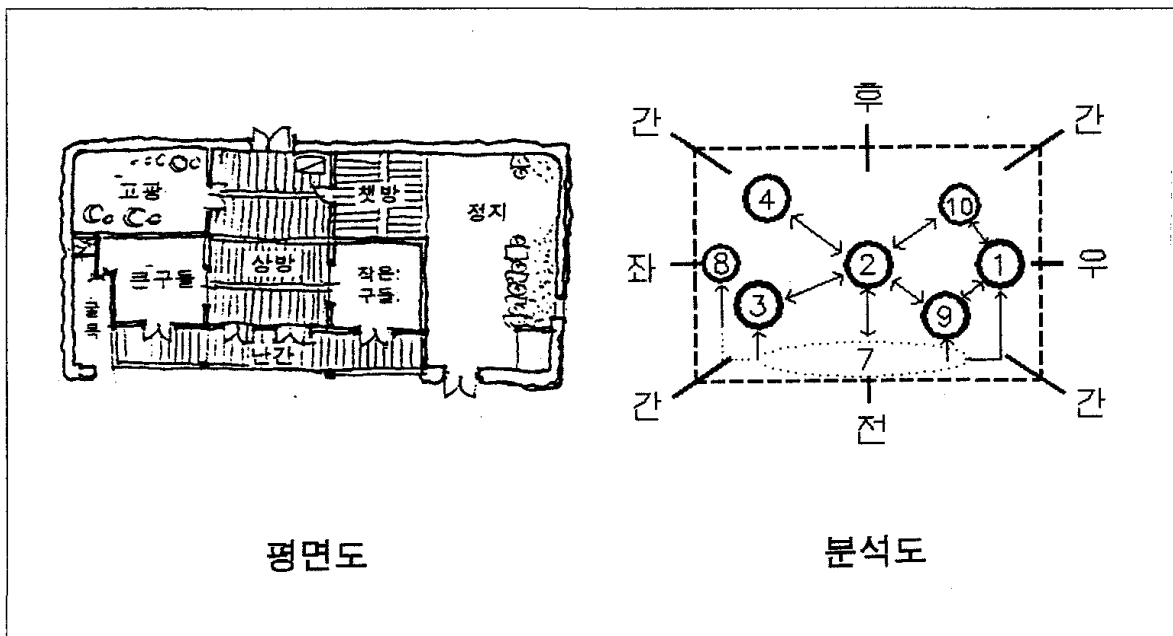
부엌내부의 치장과 시설구조는 삼칸집과 대동소이하다. 정지와 챗방과의 사이에는 보통 벽이 없고 문도 없지만 규모가 큰 집에는 벽이 있고 챗방문을 만들어진다. 창은 봉창으로 측벽에 1~2개소 설치된다. 챗방은 작은 구들이 없는 삼칸집의 부엌에 있던 공간의 일부가 독립하여 하나의 방을 이룬 곳이다. 이것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함과 동시에 식사공간의 위생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생활공간인 상방으로 공간분화를 한 것이다.

챗방의 각 변 길이는 일정하지 않으나 보 방향으로 긴 장방형 평면이

보통이다. 바닥은 흙바닥 또는 우물마루이고 벽은 새벽마감이며 천장은 제치장반자이다.

문은 상방과 동선을 연결하는 샛문과 작은구들에 출입하는 작은 방문이 있다. 부엌과의 사이에는 벽이 없는게 보통이다.

창은 바닥이 마루일 때 앞벽(또는 후벽)에 쌍여닫이의 작은 창이 설치된다. 그 이외의 난간, 상방, 큰구들, 고평 및 굴목은 삼칸집과 거의 같다. 옷삼·알사칸집은 삼칸집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부엌공간이 분화하여 작은 구들과 인접한 챗방이 더 있는 구조상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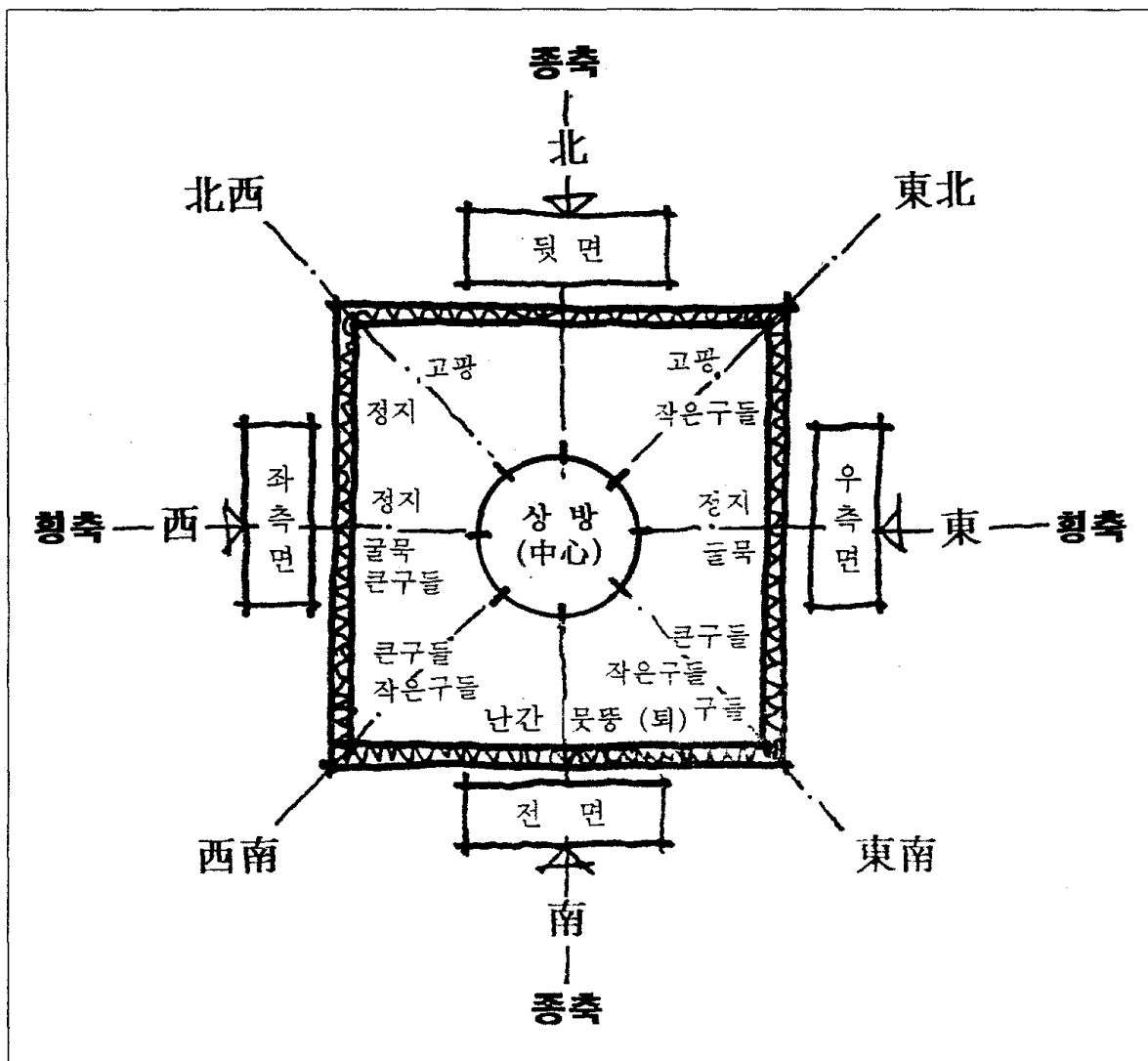
<그림 3-12> 옷삼·알사칸집의 기본평면형식과 구조도<sup>20)</sup>

전면이 4칸인 이 평면은 옷삼·알사칸의 집이다. 전면칸수는 4칸으로 규모가 크지만 단위공간의 수는 다른 평면에 비해 8개뿐인 것이 특색이다. 모두 넓고 모서리 등이 없이 시원하게 된 구조라고 본다. 두개의 방은 상방을 좌우로 전면에 오고 있고, 난간이 매우 적극적임을 볼 수 있다.

챗방이 적극적으로 그 위치와 크기를 가지게 되었고 정지와의 완전한 완충적

20) 좌측평면도. 전계서, p.34.

역할과 기능 공간으로 규정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정지의 규모가 최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특색 및 고정화된 정지안에서의 요소공간이 각종 생활요소에 따라 유사하게 되고 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전면의 출입외에 다른 곳과는 연결이 되지않고 하나로 독립되고 있다. 이 주거의 외부출입은 뒷쪽은 1개소 뿐이고 좌우측면은하나도 없고 전면에는 굴목과 정지 2개소와 큰구들과 상방과 작은구들의 관계는 이 3공간은 난간을 통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그림 3-13> 원리도의 유형화에 의한 제주 전통주택의 예

# 제 IV장. 제주민가 주공간 구조 분석

## 4-1. 서 언

본 장은 제주주택의 실증적인 조사에 의한 건축계획적인 분석을 한 것으로 시대별로 선정한 샘플에 의해 그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들 평면의 분석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배제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분석도구로는 그래프 분석에 의한 주공간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과 매트릭스 방식에 의한 인접성을 분석하는 도구, 그리고 원리도를 창안한 하나의 모델로서 이를 적용하여 주공간의 위계성과 배치의 법칙성을 찾는 데 적용하였던 연구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주민가의 배치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주호의 각 단위공간이 어떠한 곳에 얼마만큼 위치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다음은 형상으로 한 주거의 규모를 분석하고 또한 매트릭스에 의한 실들의 인접성, 그리고 주택의 칸수를 분석하여 규모에 대한 것을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주공간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있다.

2장 3장에 이어온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 1장에서 초기에 상정했던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물음과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한반도의 주거공간은 각 지방 별로 그 형식을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러한 형상으로 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이다. 이러한 의문은 지역적인 어떤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한반도의 지역별로 분류하여 그 특성과 공간의 구조를 밝혀 둘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어 보고자 했다.

조사 자료의 문제점들은

1. 문헌의 자료인 경우는 외형적인 것과 전체 배치적인 문제, 관계의 비교가 안되어 있고,
2. 자료의 조사에 대한 한계의 경우는 문헌조사에 그친 점.

3. 체적이 아닌 평면상 만의 분석이었던 점.

4. 숫자로 계량화 시킬수 없었다는 점 및 누락된 점들이다.

한반도의 지역별 주거 공간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 바탕(natura)에 대한 성격((dwelling space personality) (dwellsonality 김의 신조어)) 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성격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특유한 성질 인품, 품성 그리고 심리적 영역에서는 인격의 도덕적 사회적 측면을 나타내는 특성, 습성, 습관, 정조 따위를 통합한(chrate-r)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물인 주거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여기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육체는 영혼이 기거하는 집”이란 것과 같이 주거는 집이며, 이 주거는 인간이 영혼을 담은 육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개념에 따라 한반도 각 지방별 주거는 공간적으로 어떠한 형식이 있는가를 선정하였다. 물론 대표성인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문헌에 의해 분류된 주택의 평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주거 평면에 대한 분류는 지역별(도시, 산간, 대륙, 온대, 한대, 열대) 분류가 있고 지방 분류는(제주, 전라, 경상, 경기, 강원, 평안, 함경, 황해,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이 있으며 사회 신분의 계급적 분류(양반 또는 상류주택, 서민주택)가, 재료상으로 분류한(기와, 초가, 너와, 슬라브)가, 시대별로 보는 전통 형태 분류 등이 있다.

여기서는 지방의 분류방식에 중점으로 하되 지역별 분류를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고, 다음은 시대별 분류와 사회신분 계급을 총합하여 자료의 비교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전통 주택과 서민의 주류를 이루었던 민가 즉, 시대적 분류에서 전통성을 가진 서민 주택으로 종합 한정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평면상의 분석이기 때문에 재료에 의한 분류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 4-2. 제주민가 배치의 구성 및 평면 분석

### 4-2-1. 대지상의 주거 배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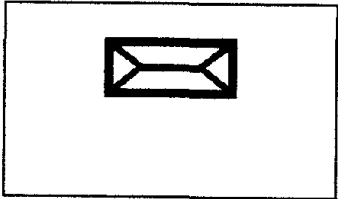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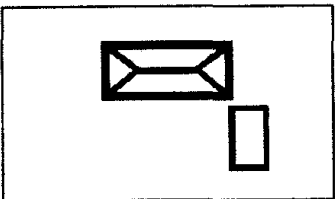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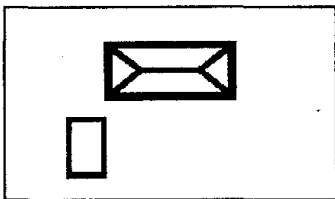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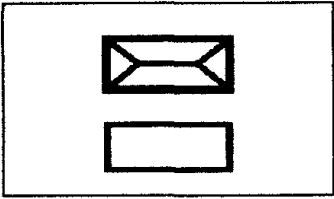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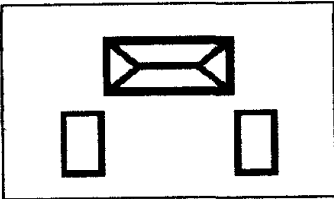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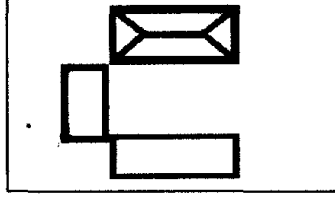
주공간에 대한 내부의 분석에 앞서 전체적 개념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호에 대한 전체적 배치도를 기초로 하여 제주 주공간의 배치유형에 대해 살폈다. 이는 본채와 바깥채와 부속채가 함께 있는 경우들에 해당된다. 이들 배치에 대한 분류는 규모적인 분류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집약되었다. 이들을 규모적인 점에서 부를 수 있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분류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으로 하였던 배치도는 <그림 4-2>의 30개 사례 들이다. 대지의 형상이 남북이나 동서로 세장하거나, 아니면 정방형의 것이고 이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각기 달라 일정하지 않다.

또한 주거의 배치는 대지 내의 중요한 부위에 본채가 위치하게 한 다음 전후좌우에 형편에 따라서 배치되어 졌다고 본다. 특히 입구인 대문의 경우는 외부의 율래공간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있어 내부가 잘보이지 않도록 폐쇄적인 프라이빗한 공간감을 의도적으로 구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해서 둘러싸인 속마당의 밖으로는 앞과 뒤에 텃밭이 오게되어 있다. 그리고 입구나 안쪽 담의 모서리 부분에 통시라는 제주 특유의 변소와 돼지 우리를 마련한 옥외 부속사를 두고 있다. 그리고 텃밭의 주위에는 제주화산석의 담이나 생울타리를 설치한 후 유자류의 나무를 심는 생산공간을 두는 배치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집약할 수 있었다. 제주민가 주택의 외부공간은 내륙지방과 같이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다채롭고 또한 특색이 있는바, 이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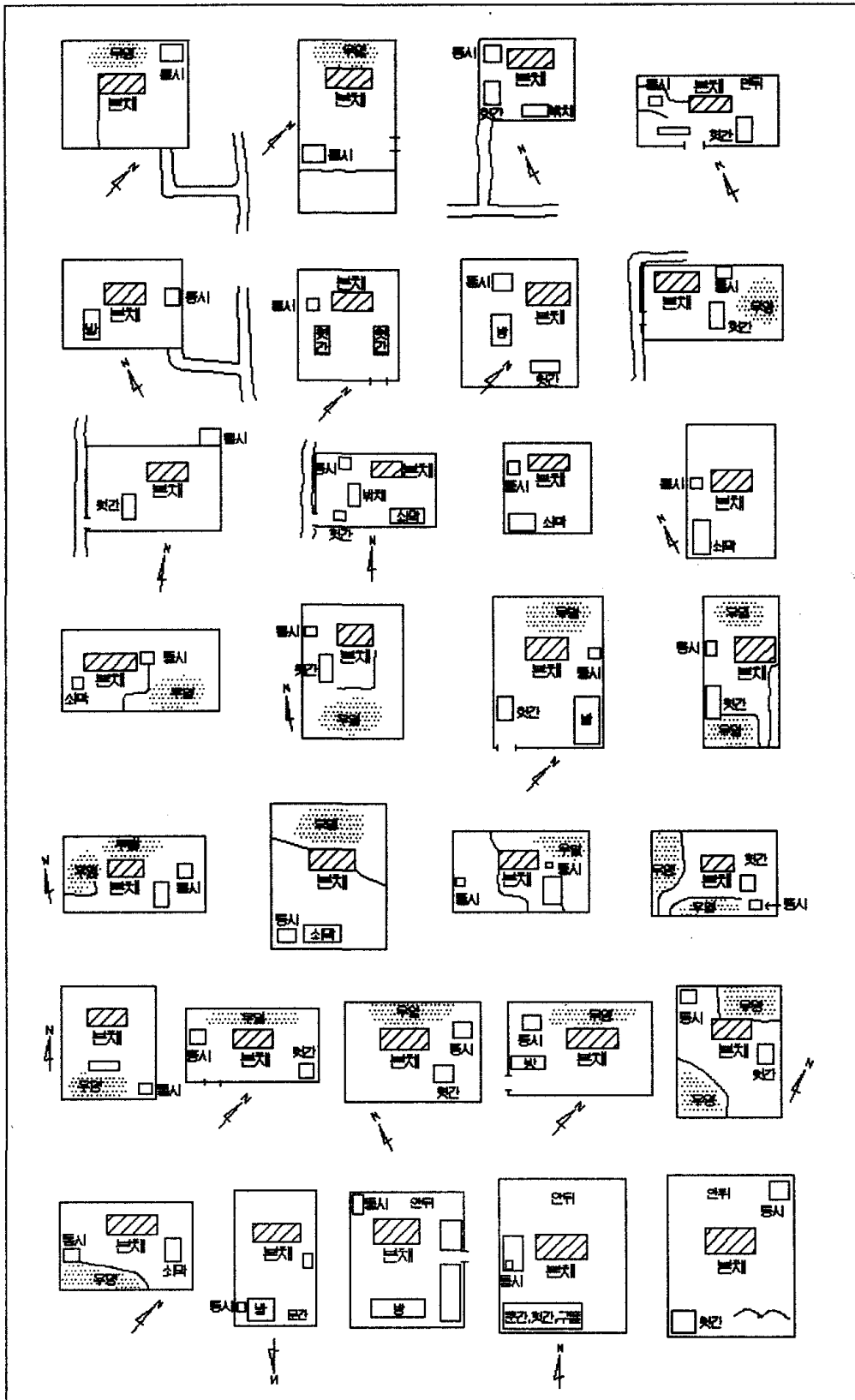
대지의 규모나 형상은 매우 다채로우며 그 진입방식이나 본채와 부속채의 위치관계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함도 하나의 질서속에서

<그림 4-1> 주거 배치의 유형

		
일 자 배 치	ㄱ 자 배 치	
S-1(빈도-6)	M-1(빈도-10)	M-2(빈도-9)
		
병 열 배 치	ㄷ 자 배 치	
M-3(빈도-11)	L-1(빈도-3)	L-2(빈도-5)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몇 가지로 유형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분석한 결과 규모상에서 보는 대지의 대·중·소 분류와 주호 규모의 대·중·소 분류로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본채 외에 부속채들의 동수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S-1의 경우는 6건이고, M-1은 10건, M-9건, M-3는 11건으로, 합계는 M은 30개이고, L-1은 3건, L-2는 5건으로 L의 경우는 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 주거의 배치도 및 출입위치도

따라서, 중규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배치형식도 본체를 중심으로 부속채가 우측에 위치할 경우 10건이고 좌측의 경우 9건 그리고 전면에 올 경우 11건으로 부속채 전면, 좌우 측면 모두 균등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속채도 주로 헛간, 문간, 자녀 세대 주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공간의 폭은 상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멀지 않은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본체에 부모가 있고 아래채에 결혼한 자녀 세대를 독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부속채로 하여금 아주 패쇄성이 강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안될 경우는 돌담을 여러 방식으로 쌓아 본체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강하게 확보하고 있다. 타인의 출입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겠으나 강한 바람을 제어시키는 의미도 매우 크다고 본다.

제주도 민가에 대한 45개 주거의 배치도와 평면도는 문헌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것이 제주 주택의 대표성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으나 그 보다는 남·북제주도를 경계로 하여 조사된 자료는 실측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은 크다고 보면, 또한 사실성이 강하다고 보겠다. 분석 방법은 실측 도면의 평면과 배치를 그 상태로 발취하지 않고 이를 하나의 틀속에 넣어 단순히 배치 관계만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이를 간략화시켰다.

#### 4-2-2. 주거상의 공간 배치 구성

주거의 외부공간인 배치에 대한 점에 뒤이어 본절에서는 주거의 공간에 대한 배치를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제주주택을 전형화하고 그에 대한 틀을 모델로 하여 주거공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각 단위 공간별로 분석해 본것이다. 이때 사용한 모델은 주거를 9단위공간으로 나누는데 이 때 상하, 전후, 좌우 그리고 중심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칸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전면 3칸과 측면3칸으로 한 것과 8방위의 개념에서 본 각 주호의 위치에 대한 분석방법이다. 그리고 외부공간인 경우도 본체를 중심으로 하여

8개의 단위를 만들어 어디에 위치하는 가를 찾는 것이다. 이는 주거 단위공간의 배치에 대한 어떤 질서가 있는가에 대한 공간구조를 알기 위한 것이다. 이하 각 단위공간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외부의 통시공간의 위치

<그림 4-3> 통시 위치의 출현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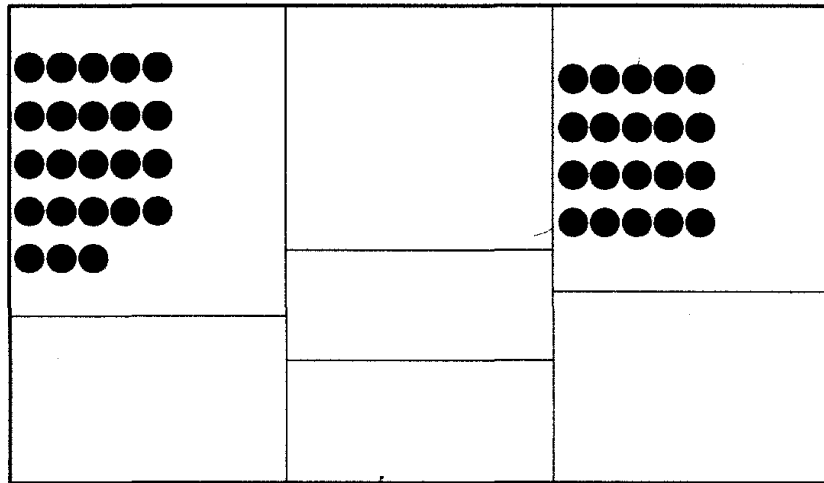
●●●●● ●●		●●●●●
●●●●● ●●●●● ●●●●●	본 채	●●●●● ●
●●●●● ●●●	●	●●●●●

통시와 외부공간은 제주 주택에서 특수한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주거의 외부공간 그 위치는 주생활 공간에서 그 성질이나 기능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본채와 정지의 관계가 깊은 것은 통시가 가축을 키우고 거주자의 배설처리를 가축인 돼지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통시는 돼지우리와 거주자의 변소를 겸한 곳이다. 때문에 정지와 근접 내지는 멀리 있는 것이 특색이다. 위치를 보면 그림과 같이 주거의 여러 곳에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전후는 전혀 없고 좌우 측면이 전후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에 1개소는 소규모 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 한 곳이다. 좌측으로 30개, 우측은 16개소로 좌측이 보다 많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중간 위치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있다.

### 2)내부의 고평의 위치

큰 구들이 전면 좌우측이라면 고평의 위치도 뒷면 좌우측에 위치하고

<그림 4-4> 고팡위치의 출현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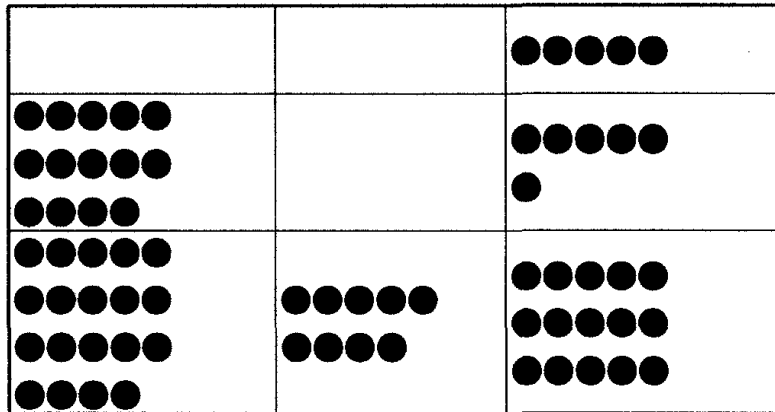


있다. 좌측이 23건이고 우측이 20건이다. 고팡 역시 정지와 상방과의 중간 공간이라 보는데 이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 하나는 상방(마루)과 연결된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엌과 상방과의 사이에 있는 경우는 30의 경우 뿐이고 모두 마루인 상방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이 특징이다.

### 3)문간의 위치

문간은 외부에서 긴 거리와 시간을 지나 다시 사적화를 강화하는 곳으로 그 안정 정도는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모두 본체의 전면에서 접근하되 전면 좌우측이 많고 다음이 정면 중앙이다. 좌측면은 단 1건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본체에 들어가기 까지 큰 통로에 의해 내부의 사적성을 강하시키는 것으로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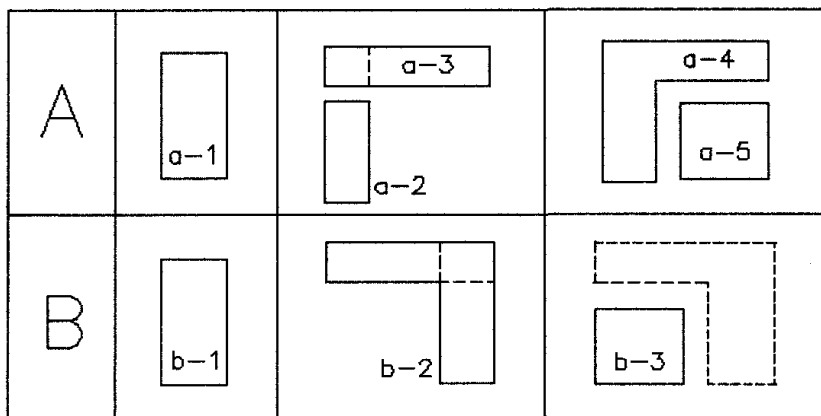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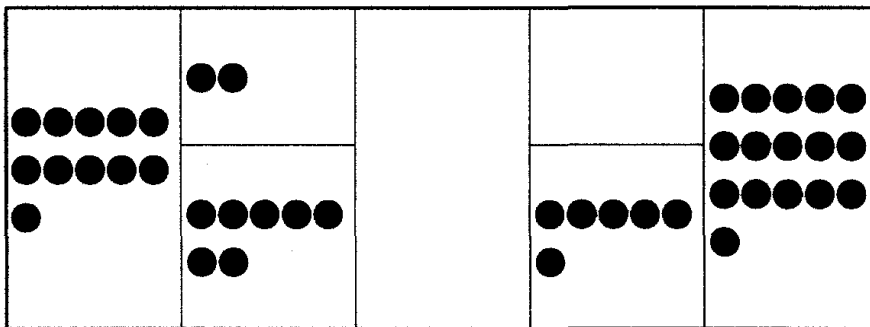


<그림 4-5> 문간위치의 출현빈도

4)정지칸의 위치

제주민가에서 정지의 기능은 매우 다채롭기 때문에 그 위치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공간의 분할이 다양하지만 그 블럭적인 면은 역시 동일하다.

<그림 4-6> 정지 위치의 출현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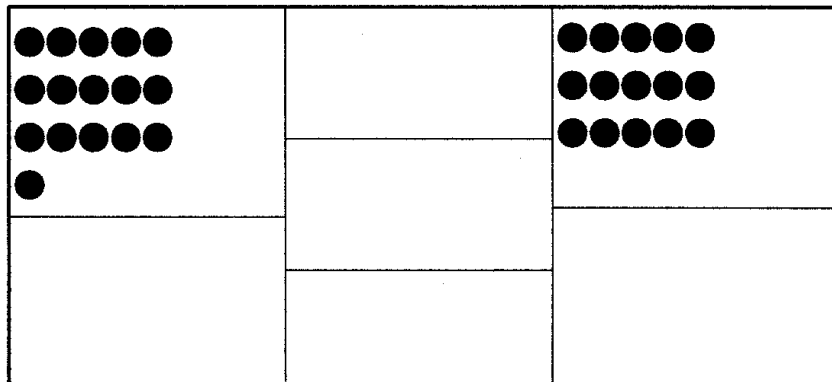


<그림 4-7> 평면에 나타난 정지공간의 유형

즉 좌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5가지로 구별된다. <그림 4-7 참조> 즉, 좌우측이 동일한 모습이다. A의 a-1 ~ 5 까지 볼 때 a-1과 a-3은 길게 된 정지이고, a-2, a-3은 a-4의 본질공간으로 a-2가 정지일 때 a-3는 챗방과 고팡이 되는 경우가 된다. a-5가 정지일 때는 a-3은 챗방, 고팡이 오는 경우가 된다. 이와 같이 우측인 B도 동일하다. 이와 같이 A와 B의 경우 정지의 역할은 큰 구들과 작은 구들과도 밀접하게 되지만 불을 지피는 굴목의 역할도 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들에 불을 지피는 경우는 주로 굴목에 의하고 있다.

### 5) 챗방의 위치

<그림 4-8> 챗방 위치의 출현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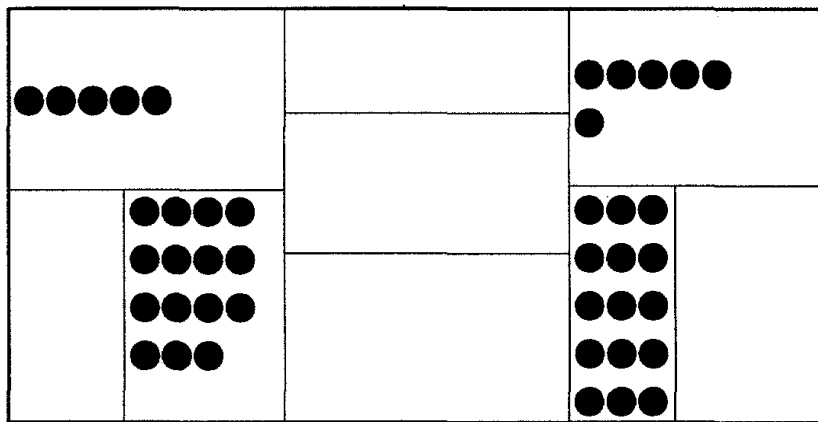


챗방의 위치는 정지나 문간의 위치와 달리 모두 뒷쪽에 위치하고 있되 중앙 외의 좌우의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우측이 15건, 좌측이 16건, 우측 전면이 1건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정지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지와 마루를 연결하는 사이 공간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인다.

6)작은 구들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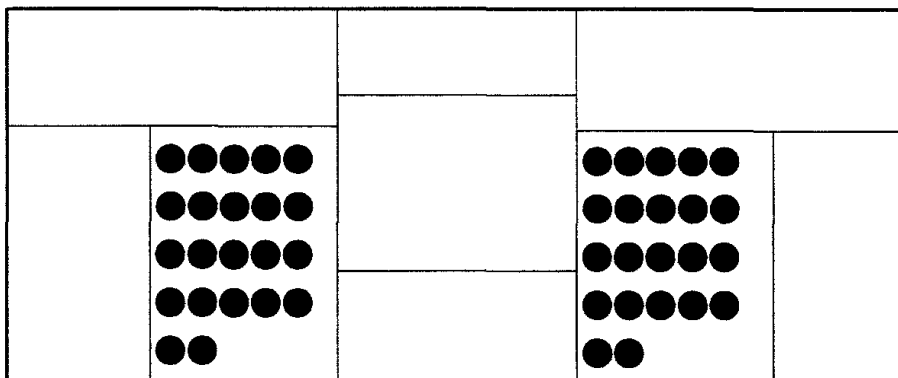
작은 구들은 큰 구들과 동일하게 난간과 연결되고 있으나 작은 구들의 위치는 전후좌우면에 다채롭게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뒷면의 경우는 좌우 쪽에 5, 6건이다. 전면 좌우 중앙이나 좌우면에 오는 빈도는 15건+15건이다. 전면의 경우 이들 합계는 30건이고 뒷면의 경우는 11건이다.

<그림 4-9> 작은구들 위치의 출현빈도



7)큰구들의 위치

<그림 4-10> 큰구들 위치의 출현빈도



큰 구들은 상방과 난간과 매우 일정한 위치에 두고 있다. 그리고 좌우 중앙에 위치하여 칸의 수를 3칸, 5칸으로 되고 있다. 5칸일 경우는 좌우칸을

분절하여 굴목이나 정지가 오게 하는 형식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볼 때 큰 구들 모두 좌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좌측 25건, 우측 22건이다.

구분 실명	전면			후면			중앙		좌측면			우측면			계
	좌	중	우	좌	중	우	좌	우	전	후	중	전	후	중	
통시	8	1	5	7		5	14	6							46
문간	19	9	15			5	14	6							145
고팡				23		20									43
정지				중2			7	6	11				16		77
챗방				16		15									31
작은 구들	중15	중15		5		6									41
큰구 들	중22		중22												44
계	64	25	42	53		51	35	18	11				16		427

<표 4-1> 주거 단위공간의 위치에 대한 출현빈도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한 것들 중 외부시설은 통시와 문간이고, 내부 시설공간은 고팡, 정지, 챗방, 작은 구들, 큰구들에 대한 위치의 분석 결과는 <표 4-1>와 같다.

이상 상기 표와 같이 주거의 외부 및 내부의 거주 단위공간에 대한 위치 별 출현 빈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통시의 경우는 전후중앙부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중 중앙좌가 가장 많이 출현되고 있다. 문간의 경우도 위치상으로는 동일하나 그 빈도는 전면과 중앙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팡과 챗방의 경우는 후면 좌우에만 나타나고 있고, 정지의 경우는 후면과 좌우에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작은구들과 큰구들은 전후면과 그 중앙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질서하에 제주주택의 공간이 구성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3. 형상으로 본 규모 순위

#### 4-3-1. 각실의 규모 순위

선정된 5개의 평면을 중심으로 (A~E 평면명) 구성된 주거 평면(p.68)의 틀을 중심으로 주거에서 어떤 공간이 가장 크고, 작은 가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본 것이다. 이 주거의 규모는 곧 실제 생활의 내용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 민가에서 주거 공간 규모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지와 상방이 1~2순위로 모든 평면이 여기에 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취침을 하는 방인 작은 구들과 큰 구들이 곡식을 저장하는 곶방보다 규모의 정도가

규모순위 실명	1	2	3	4	5	6	7	8	9	
정 지 (부엌)										5
상 방 (마루)										5
고 팽 (광)										5
큰구들 (큰방)										3
작은구들 (작은방)										5
난 간 (툃마루)										5
챗 방* (천방, 찻방)										5
굴 목 (아궁이)										3
장 방										1
* 정지와 상방사이 공간	5	5	5	5	7	5	5			37

<그림 4-11> 규모 순위 분석도

작다고 나타난 빈도는 이 지역만의 주거 특성이라 보인다. 취침방에 있어서는 그테로 가장 중심의 큰 구들이, D평면을 제외하고 모두 4순위다. 또한 난간의 규모가 5~6위로 모두 차지하는 것과 굴목과 장방등은 6~7순위임을 볼 때 모든 평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이지만 그 규모면에서 작게 하고 있다.

제주 특이한 정지와 상방사이의 공간으로 찬방, 찻방이라 부르는 챗방이 있는 경우는 1개 평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거의 규모가 4칸으로 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본 그림의 분석은 거주 생활공간의 규모는 그 용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는 비례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장방의 규모는 여러가지 도구를 넣어 두는 곳이기 때문인지 가장 작은 규모를 하고 있다. 따라서 평면을 제외하고 모두 상방의 공간을 할애하여 3실 중 1실은 출입문이고 나머지 두 실은 좌우에 위치시키고 있다.

고팡의 규모가 생각보다 큰 규모를 가지고 그 서열을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습기가 포함된 부속을 제외한 곡식을 저장해 두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임을 볼 수 있다. 때문에 거처하는 방보다 우선하거나 동일한 선상으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순위상으로 볼 때 큰 구들이 4개 평면에서 4위인데 비해 고팡은 3개 평면에서 3위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판단된다.

5개의 평면(A ~ E)중 다른 단위공간에 비해 정지가 가장 크게 된 것은 A, B, C, D이고 다음이 C, D이다. 상방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C, D이고, 다음이 A, B, E이다. 규모가 가장 작은 단위공간은 굴목과 장방이다. 고팡도 3, 4, 5순위이다. 이상 1, 2, 3순위의 빈도는 15로 전체로 보면 37%를 차지하고 있다. 실별 빈도로 보아도 정지, 상방, 고팡이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정된 다섯 평면의 단위공간별 규모의 순위는 정지, 상방, 고팡, 큰구들, 작은 구들, 난간, 챗방, 굴목, 장방순이다. 민가라는 제주의 전통주택의 규모는 취침을 하는 방보다는 가사와 작업 및 저장을

위한 주거공간의 용도가 우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상 생활은 강한 바람과 태풍에 의한 자연환경의 제약에 의한 주거의 공간 구성과 축조술에 의한 영향과 삶에 의한 바다중심에 의한 생업의 특수성이 주거의 내외부 공간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제주만의 독특한 주거의 개별성을 나타내는 특유의 주공간이라 생각한다.

#### 4-3-2. 인접성 분석

인접성이란 초기 주거의 공간구성 계획에 있어 각 단위공간들의 상호 인접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능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공간들은 어떤 경우는 독립하거나 아니면 하나 이상의 실들과 연결되는 동선관계에 의한 기능적인 문제등에 대한 관계 즉 공간조직과 기능에 관계되는 사항을 매트릭스 도표에 의해 이를 분석하였다. 이들 관계를 보면 정지와 관계되는 실을 보면 상방, 큰구들, 작은구들, 난간, 챗방, 굴목과 관계되고 그 중 상방이 가장 많은 인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방은 정지를 비롯하여 굴목만을 제외하고 각실과 모두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빈도가 많아 순위가 첫째가 되고 있다. 작은 구들과 난간, 챗방, 장방, 굴목과 관계가 되고 있다.

다섯개의 평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방의 종축라인을 보면 각 평면에서 골고루 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주택에 있어 상방과 정지의 기능이 아주 다채롭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것들은 <그림 4-12>의 매트릭스도표에 의한 인접빈도를 종합한 것을 분석한 내용이었다.

주공간은 인접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정도 인가에 대한 것을 강도라 하였고 그 강도를 나타내는 출현수를 빈도라 하여 이에 대한 순위를 정해 보았다.

그리고 <표 4-2>은 <그림 4-12>을 우측 축의 빈도와 순위에 대한 것과

아래쪽의 빈도와 순위를 종합하여 나타낸 순위이다. 즉, 수직축에서 볼 때 상방이 25로 가장 높고 챗방의 경우는 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준실 인접실	번호	정지	상방	큰구들	고팡	작은 구들	난간	챗방	장방	굴목	빈도-순위
		1	2	3	4	5	6	7	8	9	
정지	1										12 - ③
상방	2										25 - ①
큰구들	3										14 - ②
고팡	4										5 - ⑥
작은 구들	5										7 - ⑤
난간	6										14 - ②
챗방	7										3 - ⑧
장방	8										4 - ⑦
굴목	9										8 - ④
	빈도	5	28	17	4	7	16	4	4	7	92
	순위	⑤	①	②	⑥	④	③	⑥	⑥	④	

<그림 4-12> 인접성 분석도

반대로 수평축의 경우도 상방이 28이고 큰구들이 17이고 가장 낮은 경우는 고팡, 챗방, 장방이 4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바로 거주공간들의 인접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의 전통 민가주거의 공간 기능은 현대 주택에서 보는 개인실의 분화나 안방의 개념, 또는 가족 단란의 경우보다는 생업과 가사작업에 대한 생산과 취사등의 생활행위가 우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방	큰구들	정지	굴묵	작은구들	고팡	장방	챗방
		난간						
실명기호 수직출	1	2	3	4	5	6	7	8
↑↓	25	14	12	8	7	5	4	3
		14						
↔	28	17	16	7	5	4	/	/
						4		
						4		
수평축 순위설명	1	2	3	4	5	6	7	8
	상방	큰구들	난간	작은구들	정지	챗방		
				굴묵		고팡		
						장방		

<표 4-2>인접성의 강도 및 빈도에 의한 순위

### 4-3-3. 매트릭스에 의한 주공간 인접도 분석

표본으로 선정한 제주 전통 민가의 다섯 평면도(P.68)는 각기 다른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간의 구성에 대한 상호관계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살펴본 것이다. 매트릭스의 도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실과 실들의 상대적인 연결관계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이들을 집합화 또는 군락화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기존의 공간들은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관계의 분석을 위해 이용되는 그림이다.

매트릭스의 도표를 이용하여 이들 주거의 단위공간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집합되고 있는가를 살펴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a의 경우는 4 와 4 영역에 집합되고 있으나 9 와 9에 가까운 영역에도 빈번한 집합을 보이고 있다. 그림-b의 경우는 6과 범위의 영역에 들어 오고 있지만 이 역시 9와 9의 영역에 일수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 a

	1	2	3	4	5	6	7	8	9
1		1	1						
2	1		1	1		1		1	
3		1				1			
4		1							
5									
6		1	1						1
7									
8		1							
9						1			

그림 - d

	1	2	3	4	5	6	7	8	9
1		1			1				
2	1		1	1		1		1	
3		1				1			1
4		1							
5	1							1	
6		1	1						1
7									
8		1			1				
9			1			1			

그림 - b

	1	2	3	4	5	6	7	8	9
1		1	1			1			1
2	1		1	1	1	1		1	
3		1				1			1
4		1							
5		1							
6		1	1						
7									
8		1							
9			1						

그림 - e

	1	2	3	4	5	6	7	8	9
1		1	1				1		
2			1	1	1	1	1		
3		1				1	1		
4		1							
5		1					1		
6		1	1						1
7	1	1			1				
8									
9			1			1			

그림 - c

	1	2	3	4	5	6	7	8	9
1		1							
2	1		1	1	1	1			
3		1				1			1
4		1							
5		1				1			
6		1	1		1				
7									
8									
9			1			1			

<표 4-3> 5개 평면의 매트릭스 분석도

그림-c의 경우는 2에서 6의 영역에 원을 그리며 집합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림-d의 경우는 그림-a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9위 영역으로 산만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다른 것들보다 매우 산개되는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e의 경우는 7과 3의 영역과 3과 7의 영역으로 두 블럭을 형성하는 집합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9와 9의 영역에는 산개가 아닌 밀집하는 양상도 약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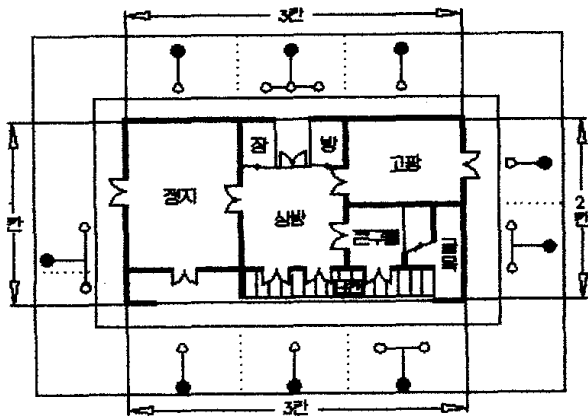
5개의 평면(A~E)중 다른 단위공간에 비해 정지가 가장 크게 된 것은 A, B, E 평면이고 다음이 C, D이다. 상방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C, D이고 다음이 A, B, E이다. 규모가 가장 작은 단위공간은 굴목과 장방이다. 고팡도 3, 4, 5순위이다. 이상 1, 2, 3순위의 빈도는 15로 전체의 37로 보면 40.5%를 차지하고 있다. 실별 빈도로 보아도 정지, 상방, 고팡이 동일함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정된 다섯 평면의 단위공간별 규모의 순위는 정지, 상방, 고팡, 큰구들, 작은구들, 난간, 챗방, 굴목, 장방순이다. 제주의 전통 민가의 규모는 취침을 하는 방보다 가사와 작업 및 저장을 위한 주거 공간의 이용도가 우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주의 일상생활을 강한 바람과 태풍에 의한 자연환경의 제약에 의한 주거의 공간 구성의 축조술에 의한 영향과 삶에 의한 바다중심의 생업의 특수성이 주거의 내외부공간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제주만의 독특한 주거의 개별성을 나타내는 특유의 주공간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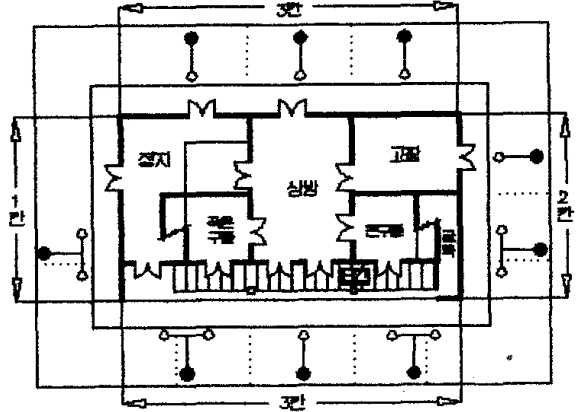
#### 4-3-4. 주택의 칸수 분석

주택의 칸수에 대한 것을 거론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주택의 규모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택의 구법에 해당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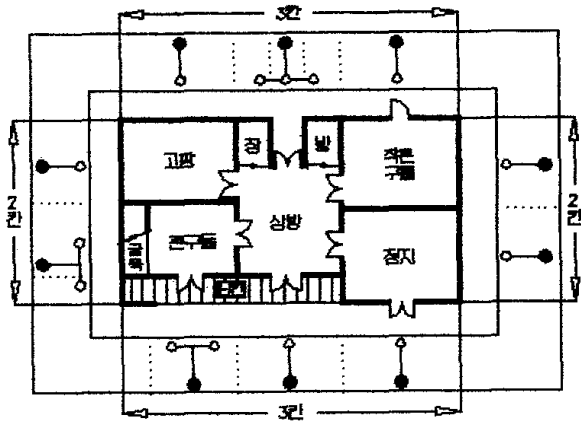
물론 구법상에서 볼 때 제주의 건축자재에 대한 제한도 있었을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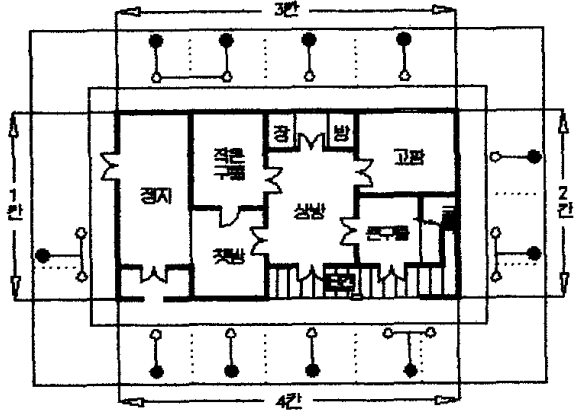
A 서간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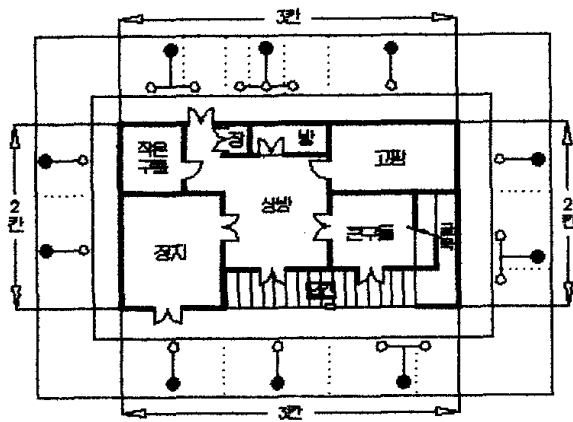
C 너간형 -1



B 서간형 -2




E 너간형 -2



D 형 -3

<그림 4-13>주택 칸수의 분석도

<표 4-4> 주택 칸수의 분석표

상한	양측면		전후면		비고		
	서측	동측	전면	후면		Ⅲ	
평면					I		II
	I	II	III	IV		IV	
A	1/2	2/3	3/4	3/5	서,동-2,3,4,5면 전면-3칸 합계-1,2,3이다		
B	2/3	2/2	3/4	3/5	서,동-2,3,4,5면 전면-2,3칸 전후면-3칸 측면-2칸		
C	1/1	2/3	3/5	3/4	서,동-1,3,4,5면 전면-1,2,3칸 전후면-3칸 측면-1,2칸		
D	2/2	2/3	3/4	3/5	서,동-2,3,4,5면 전면-2,3칸 전후면-3칸 측면-2칸		
E	1/1	2/3	4/5	4/4	서,동-1,2,4,5면 전면-1,2,4칸 전후면-4칸 측면-1,2칸		
종합	1칸-3개 2칸-2개	2칸-5개	3칸-4개 4칸-1개	3칸-4개 4칸-1개	대분류/소분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것들이 주공간의 구성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주 주택이 가지는 구법은 공간의 규모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 주택의 전후좌우에 대한 칸수의 분석은 제주주택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점이라 생각한다. 제작한 칸수의 분석 모델은 <그림 4-13>와 같다.

선정된 5종의 제주평면도와 칸수를 계산하기 위한 분석표는 다음과 같다. 이 분석도는 평면도를 두 개의 영역으로 감싸인 박스를 만들고 밖의 줄은 외면한 마감된 칸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고 다음 라인은 외부의 칸 명시 이전에 더 분할된 칸의 공간을 나타내는 선이다. 특히 안선은 외부에 접하지 않은 내부 칸막이 공간으로 보는 칸의 개념이다. 그러나 칸이란 구조적인 기둥과 벽으로 되어진 것을 최종적인 칸이 되겠다.

장단변의 비에서는 소분류한 측면이 1칸, 2칸, 3칸이나 이를 다시 대분류하면 1칸이 3개소이고 7개소는 2칸이 될 수 있다. 서측의 경우가 대분류상 1칸이 32칸이 2이고 동측은 모두 2칸임도 밝혀 졌다.

전후면에 대한 칸의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상한인 전면의 경우 소분류는 4칸과 5칸이 주류인데 4칸의 경우 3개소, 5칸의 경우는 2개소이고, 이를 다시 대분류하면 3칸이 4개이고, 1개만이 4칸이다. 또 IV상한의 경우 소분류상에서 보면 5칸이 3이고 4칸이 2개소인데 대분류로 보면 3칸이 4개이고 1개소가 4칸이다.

이상과 같이 <표 4-4>의 주택의 칸수 분석표에 나타난 제주민가의 평면상의 건축구법은 내륙과 달리 칸수가 소규모이고 또한 측면과 전면의 비가 1×3칸 2×3칸, 3×4칸, 3×5칸으로 축조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왜 이러한 평면형의 구법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측면의 접근에 의한 종합적인 논증이 있어야 겠지만 본고에서 볼 때 몇가지 이유를 볼 수 있다.

## 4-4. 주거의 공간 구조 분석

### 4-4-1. 그래프 분석

이는 지역적인 요소, 기후, 풍토 적인 요소, 생활 문화적 요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라는 지역은 건축 재료와 본래의 토질 문제가 있고 기

후 풍토면 에서 볼 때 년중 태풍이 많은 데다 바람이 많은 곳이라는 점과 초자연적인 영향에 의한 것에 의한 주문화와 오래 전부터 내려온 가족 사회 구조에 의한 것들 때문에 내륙에서 보는 것과 다른 독특한 주문화를 형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4>는 그래프에 의한 주공간 구조도에 의한 주공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그래프의 도형에 의한 주호의 각공간과 공간들의 상호 연계 관계를 보는 것으로 하여 주호의 평면 구조를 찾고자 하였다. 그림1은 단위 공간들을 세분화한 공간도가 되겠고, 그림2는 공간 구조를 파악하는 추상적인 개념도가 되겠다. 이들의 진행으로 하여 A~E의 평면도가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에 대한 각 평면(A~E)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상방에는 두 개의 정방과 난간이 한 블록으로 분할되고 있고, 상방이 중심이 되어 좌우 정지, 고팡이 있다. 난간(뿔마루)이 전면이 실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모든 실들은 상방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각실들을 분할시키는 구조이다. 전면이 3칸 형식이다.

B. A와 동일한 형으로 상방이 중심적 핵심공간이 되고 있다. 전면이 3칸 형식이다.

C. 모든 전면의 실들은 공간을 통하게 되어 있다. 상방을 중심하여 좌우 방들이 성별 분리된 것을 보인다. 방들은 남향으로 하고 북향은 고팡과 정지가 위치한다. 전면이 3칸 형식이다.

D. 정지가 분할되어 상방에서 뒤안으로 통하게 2개소를 마련하고 정지에서 상방으로 연결되고 있다. 정지와 큰 구들이 남향하고 있다. 장방의 뒤 뒷뚱에서 연결되고 정지는 독립되었다. 전면이 3칸 형식이다.

E. 장방이 뒤쪽 뒷뚱과 연결되고 상방이 중심이 되고 있다. 구들과 정지가 독립되어 있다. 공간과 상방 뒷 현관은 연결된 형식이다. 전면이 4칸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림 4-14> 주공간 분석도

	제주도 민가 평면도	(그림1) 공간의 위계도	(그림2)공간의 구조도
A 평면형			
B 평면형			
C 평면형			
D 평면형			
E 평면형			

상기 그림은 제주의 전통 민가에 대해 두 가지 그래프 방식을 도입하여 분석한 공간 구도조를 나타낸 그림인데, 그림1은 원리도에 의한 공간의 위계성 즉 배치방식을 파악키 위한 것이라 한다면, 그림2는 공간 구조도를 전형화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그래프라 생각한다.

## 4-5. 모델에 의한 주공간 구조 분석

### 4-5-1. 규모 및 생활공간의 변화

다음은 제주 주택의 시대적 변화에 의한 공간의 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수집된 자료는 실측에 의한 것으로 1947, 1948, 1949, 1954, 1957, 1962, 1965, 1972, 1974, 1987, 1988, 1995, 1996,의 평면을 대상으로 주공간을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 방식은 그래프에 의한 공간을 분석하는 방식을 한 과의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본질은 1947년부터 1996년도까지 제주에 축조되어 현존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주택을 선정하여 실측한 도면에 의해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측 도면은 부록 참조)

년도에 따른 조사된 주택의 개요는 <표 4-5>과 같다.

이들 축조 년도는 40년대 말의 것이 3동, 50년-2동, 60년대-2동, 70년대-2동, 80년대-2동, 90년대-2동 등 모두 13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로 볼 때 목조주택 6동으로 1960년대 까지의 주택이 었고, 기타는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이며 지붕은 초가지붕, 기와지붕, 슬레이트지붕, 스라브 지붕 등 4가지 유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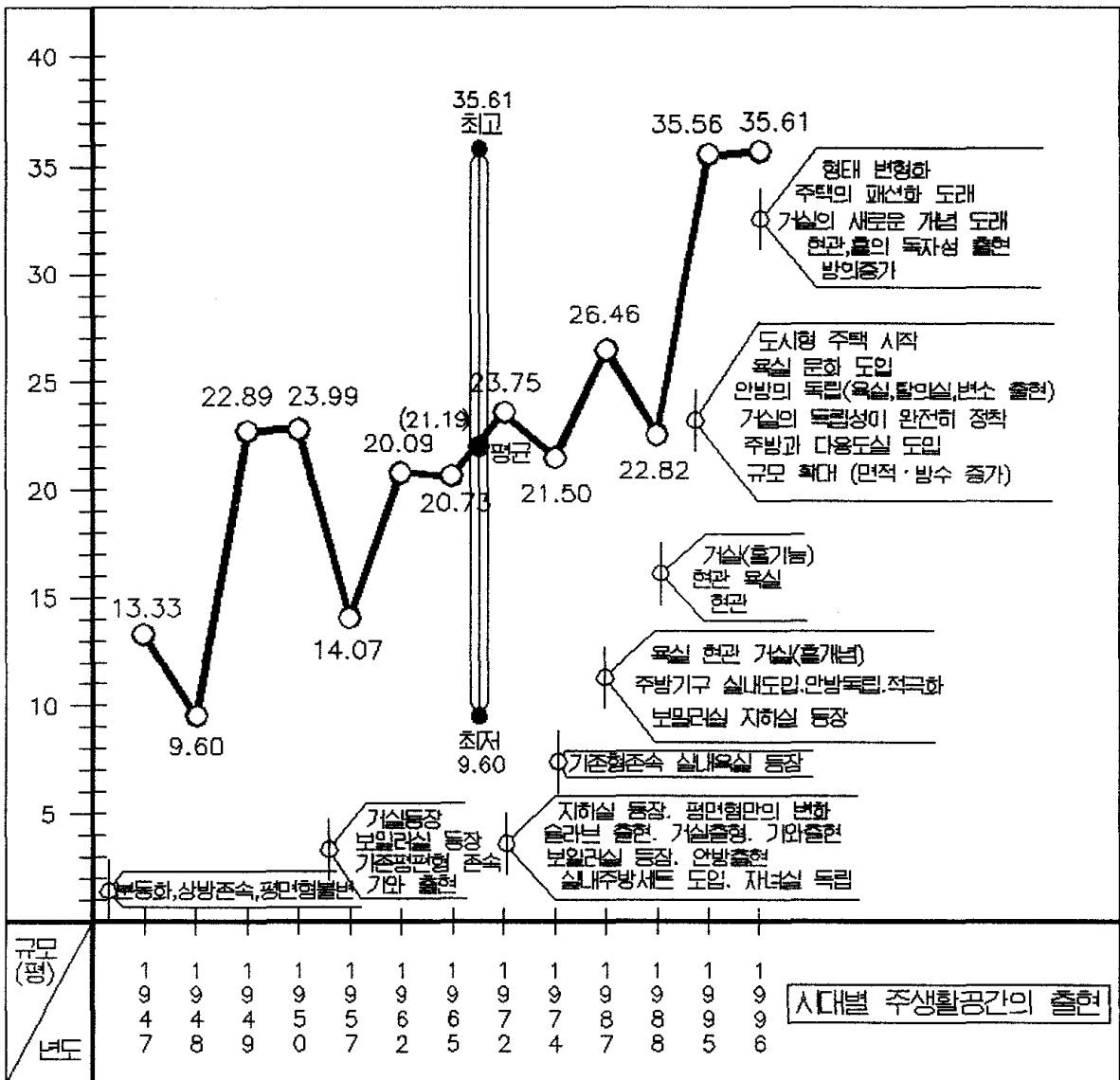
규모에 대한 향상은 최저 9.6평에서 최대 35.61평 까지이다. 이에 대한 전체적 경향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그림 4-15>와 같다.

상기 그림은 조사된 13개의 자료의 년도별 규모를 비교해 본 것이다. 년도에 따라 규모의 변화를 보고자 한 것이지만 샘플의 선정에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규모에 대한 어떤 통계치를 내려는 것이 아님을 명시 해 둔다. 그러나 어떤 형상, 아니면 추이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1947년도에 사실상 기존의 제주주택의 양상을 추적되는 것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로 보인다. 제주의 전통민가의 형식이라고 본다. 그러나 근대적인 개면이 공간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표 4-5> 년도별 주호의 조사 리스트

내용 순서	소 재 지	구조(벽/지붕)	건축 년도	면적	
				m2	평
1	제주시 이도 일동 1392 번지	목조(초즙)	1947.6	42.96	12.99
2	제주시 일도 이동 1029-182 번지	석조(스레트)	1948.5	29.09	8.80
3	제주시 일도 일동 1243-1 번지	목조(와즙)	1949.8	109.08	32.99
4	제주시 일도 일동 1111-4 번지	목조(와즙)	1954.11	79.33	23.99
5	제주시 일도 일동 1102 번지	목조(와즙)	1957.11	46.28	14.00
6	제주시 일도 일동 1213 번지	목조(와즙)	1962.1	66.12	20.00
7	제주시 일도 이동 1029-125 번지	목조(스레트)	1965.6	63.14	19.09
8	제주시 일도 이동 1029-93 번지	철근조(스라브)	1972.11	78.51	23.75
9	제주시 일도 이동 1029-125 번지	벽돌조(스레트)	1974.4	71.07	21.50
10	제주시 도남동 31-13 번지	철근조(스라브)	1987.11	87.49	26.46
11	제주시 노현동 937-20 번지	조적조(스라브)	1988.2	75.47	22.82
12	제주시 도남동 912-7, 912-13 번지	철근조(스라브)	1995.9	117.58	35.56
13	제주시 이도 2동 710-20 번지	철근조(스라브)	1996.5	117.52	35.61

제주 주택의 형식과 양상이 아주 급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부록참조)  
1980년대,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존 전통의 형식은 완전히 찾아보기 어렵게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15> 연도별 주거규모 및 주생활공간 변화도(단위:평)

물론 규모면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의 주생활이 원초적인 섭취와 채집에 있었던 것이라 한다면 근현대에 와서 생활은 가족단위 개인공간의 확보 등 실분화와 독립 및 그 기능이 완전히 변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주공간이 변화에 대한 내용은 1947년도에 분동화가 시작하여 그러한 스타일의 평면에서는 1960년대까지 계속되고 있다. 1965년도에 와서도 평면형은

크게 변화가 일지 않고 있지만 성향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주공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거실과 보일러실, 그리고 기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주택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기는 1965년도부터라 볼 수 있다. 1972년도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지하실이 주택에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평면형도 그 변화가 본토의 도시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스투브 지붕이 출현하게 되고 보일러 실이 등장하게 된다. 아울러 내부공간의 기능 변화도 오게 되는데 이때 독립된 기능의 거실공간이 출현하게 되고, 특이한 것은 부엌이 입식화 되면서 방안으로 싱크대등 주방기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1987년도의 도면에서 보면 내부공간에서는 욕실, 현관, 홀, 안방의 규모 확대와 독립 등이 일어나게 되고, 지하나 난방방식 등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 다시 1995년도 이후에는 안방의 독립과 함께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고 이곳에 부부 전용의 욕실과 화장실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가족 단란이나 가족의 생활상에 따른 간섭받지 않는 거실의 치장화가 시작되고 있다. 또한 주방에 대한 규모확대와 서비스 공간인 다용도실도 출현하게 된다. 주택의 전체적인 규모도 확대되고 또한 방수의 증가도 일어나게 된다. 사실상 양적, 질적인 주택문제에 대한 주공간은 물론 생활상의 수준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도시형의 주택으로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평면형의 변화에 있어서는 단일한 단순한 상하 좌우의 분할 방식에서 매우 복잡하게 그리고 크고 작은 단위 공간들이 출현하게 되어 사실상 단일한 형태와 기능에서 복합 가능과 다양한 형태의 구성으로 되고 있다. 즉 장방형에서 요철이 심한 형으로 되고 있는 것을 일컬은 것이다. 또한 주호 평면의 가로×세로의 비례가 요철이 심하여 일정하게 말하기 어렵게 되고 뒷면이나 좌우 측면은 이면정도가 직선형의 벽면이 되지만 전면과 좌우 면은 또 면의 분절이나 침식, 굴삭 등의 공간구성이 일어나고 있다. 외부에서의 출입구가 많았던 본래의 기존

민가와는 달리 현대로 오면서 외부의 출입이 현관에 의한 단일화된 입구가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마당의 둘러싸임에 의한 가정확대에 따른 별동의 공간 마련은 한 동에서 폐쇄가 강한 공간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녀 부부의 분동은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들 간의 성별 분리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많은 변화가 되고 있지만 현대 주택에서의 공간 구조에는 크게 변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조나 재료는 달라져도 형식의 뿌리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주 주택의 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설정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연 제주 주택으로 규정하거나 전형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영향이 주거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은 더욱 찾아 보아야 할 문제로 남게 된다.

#### 4-5-2. 그래프 분석에 의한 주공간 구조

본 절은 제주주택의 주공간의 구성원리를 파악하고자 한 내용이다. 단순히 거쳐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만들고 기거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법칙성보다는 거기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러한 의문에 따라 과연 그러한 것이 있을지에 대한 검증은 위해 공간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배치를 주공간 구조라 하고 이에 대한 분석도구로서 그래프도형 방식을 도입하여 이를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1940년도에서 1990년도까지 10년 단위로 한 제주주택의 평면도를 현지 조사에 의해 실측 작업을 하여 작성한 13개의 평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시대적인 역사성에서 볼 때 선정된 평면들이 과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냐에 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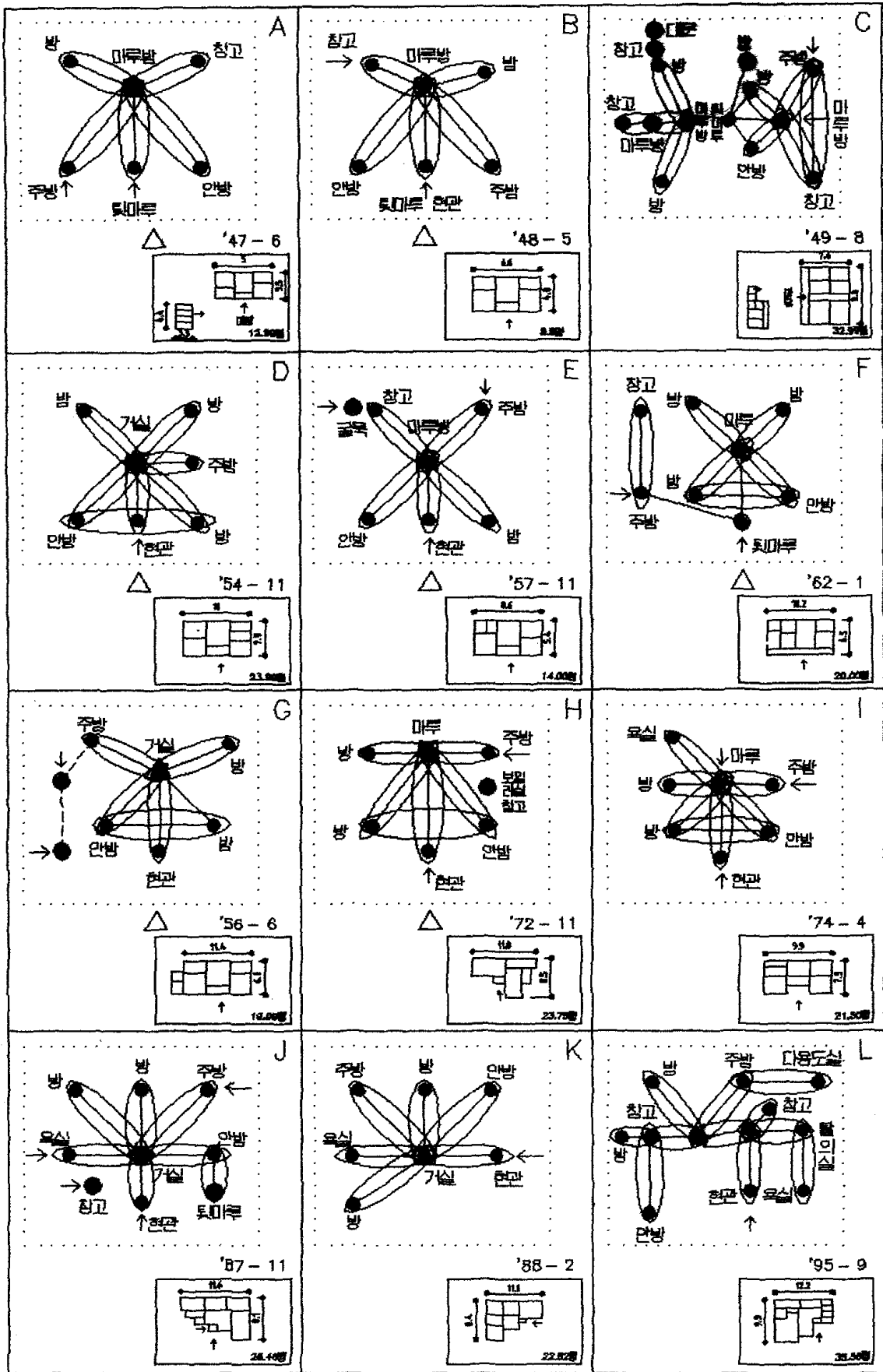
분석방법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주어진 평면도를 놓고 외부에서 본체에 들어가는 접근 문의 위치와 개소를 명시하고, 입구를 중앙남면에 오도록 한 다음 거기를 기점으로 하여 각 방으로 연결되는 곳의 방 중앙점을 중심으로 상호 선으로 연결하였다. 방과 방이 독립될 때는 이들 점들이 연결되지 않고 독립되며, 상호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는 영역을 자유폐곡선으로 둘러싸았다. 그렇게 한 다음 형성된 모습을 주공간의 골격 즉, 구조의 형상이라 하였다.

그 결과 전통 민가의 경우 <그림 4-9>의 A와 같은 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의 골격으로 되고 있다. 이하 전체에서 나타난 구조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 종류로 분류됨을 볼 수 있었다. 이하 다음 아래와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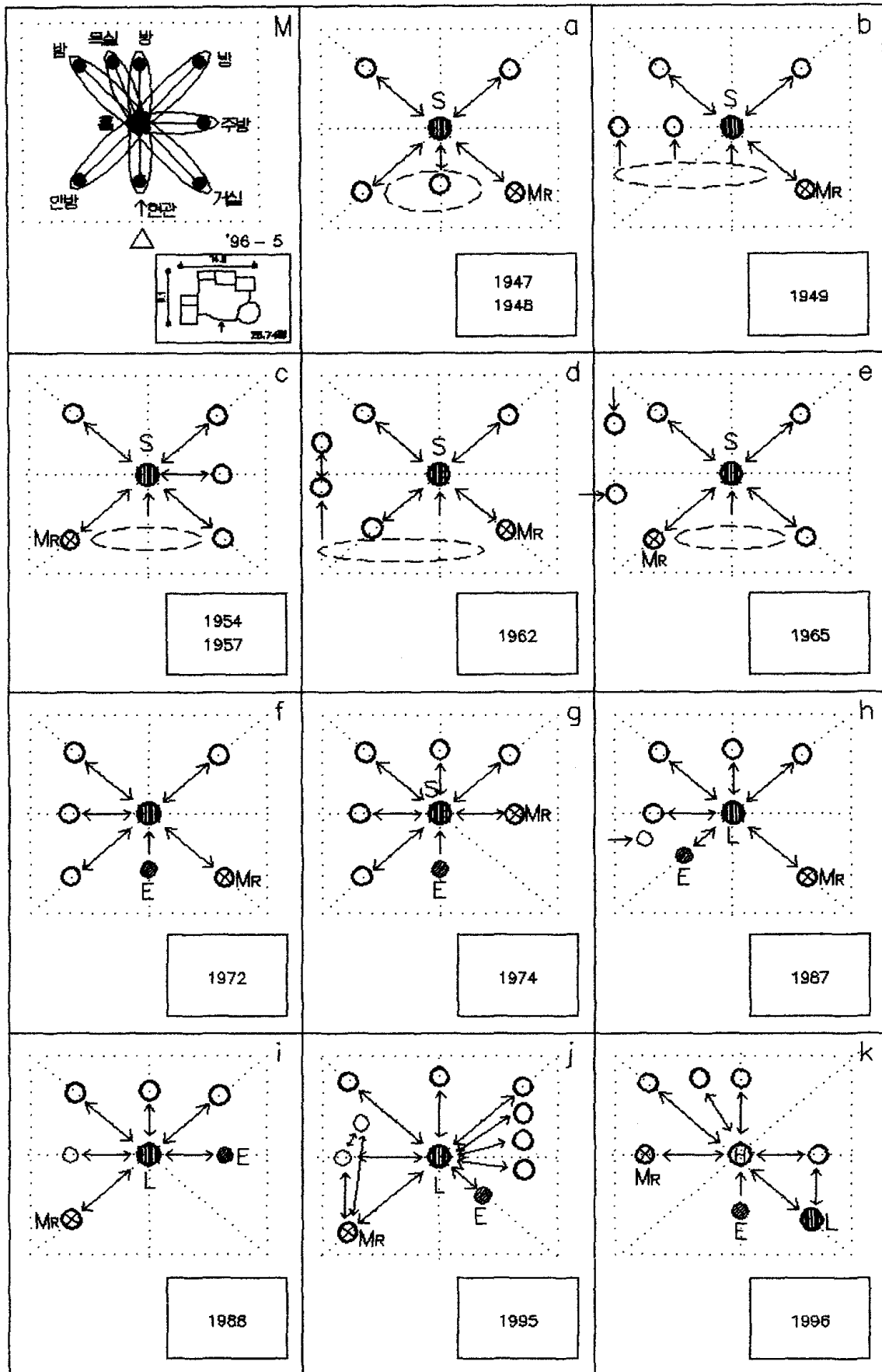
- a형 : A, B, E, K, M에 해당되는 평면 이고,
- b형 : D, G, H, I, J에 해당하는 평면 이고,
- c형 : C, F, G에 해당하는 평면 이고,
- d형 : L에 대당되는 평면이었다.

실제 평면의 형식도 1956년의 경우까지는 전면 3칸형을 하고 있지만, 1972년 부터는 칸의 개면이 완전히 변한 새로운 주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공통된 도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초기의 것들은 점차 변하여 L인 1995년도 9월에 축조한 평면형상을 보면 매우 세분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다시 말해 현대로 오면서 주거의 공간이 독립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형도 어느 면은 단일하지만(1976년 이전까지) 그 후는 외형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6> 시대별 민가 주공간 구조도(그래프 분석)



<그림 4-17> 원리도에 의한 주공간의 위치 분석도

\*s:상방, MR:부모방, E:출입구, L:거실, H:현관,홀

### 4-5-3. 원리도 분석에 의한 주공간 구조

다음은 그래프 분석에 뒤이어 또 다른 면에서 주거공간의 구조를 분석한 내용이다. 여기서 선정한 원리도란 <그림 4-17>과 같은 주공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분석도구로서 제작한 도구인데 전후좌우와 상하 그리고 8방위를 중첩시킨 도형으로 주거공간이 위치를 분석키 위해 제작된 그림을 원리도라 명칭을 붙였다.

이하 이 원리도에 의한 주공간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17>과 같다. 그래프 분석의 구성형식을 구조도라 한다면 이는 위치를 정하고 있는 분배 방식을 알기 위한 그림이다. 그 결과 제IV장 4.2.2 주거상의 공간 배치 구성과 같은 각 실이 어느 위치에 오는가에 대한 하나의 배분 질서를 알 수 있었다.

1940년대의 평면에서는 마루로 된 상방 공간이 주거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중심으로서 구심적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에 오면서 명실공히 거실의 출현이 되면서 상방 공간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대신 홀의 기능을 하는 거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 다시 199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홀의 개념을 가진 확실하게 분화되지 않는 기능의 거실이 완전히 독립하여 홀은 홀로서, 그리고 거실은 홀의 개념이 아니 독립된 단란의 공간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다른 공간들도 완전 독립을 하게 되고 각 방을 지나는 개방 연결된 형식은 더욱 변하여 완전한 분리적 독립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실내에 욕실이 들어오게 되고 전통 취사 방식이 었던 정지도 자취를 감추고, 입식구조인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들어오면서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도 볼 수 있다. 전통주거에서는 정지의 개념이 키친이라는 부엌의 개념으로 바뀌고 식사도 입식의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부모가 거쳐하였던 큰구들은 안방이나 침실 개념의 명칭이 바뀌고 있다. 침실의 경우는 침대가 도입되는 경우에 붙여지는 명칭이고 안방의 경우는

침실이 없는 좌식의 온돌방을 지칭하는 공간의 개념이라 본다.

전통민가의 공간에서는 정지와 상방의 규모가 가장 크게 하였던 것이 이 시기에 와서는 안방과 거실의 공간이 제일 크게 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한 안방에 욕실과 변소들 위생을 위한 실이 별도로 등장하게 되는 공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또한 공간의 수효도 1940년대는 5개 였던 것이 1990년대 와서는 11개공간(1995년도-평면-J참조)으로 증식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치에 대해서도 홀이나 거실이 중심에 오고 취사공간이 뒤편으로 잡고, 안방은 전면의 좌우에 오게하고 있고 부모침실과 자녀침실이 분리되는 점은 동일한 구조로 존속하고 있다.

#### 4-6. 소결

이상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제주주택, 즉 전통민가에서 부터 현대주택에 이르기 까지 시대별로 살펴보았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제주 주택의 시대적 과정에서 보는 주공간의 변화는 분명히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그 형상이나 내용이 바뀌어 지기는 하였지만 내면에 흐르고 있는 구조적인 면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렇게 변화되어온 주거의 양식이나 생활 및 그 공간에 대해서 과연 제주 주택, 이대로 좋은가라는 초기의 물음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은 우리에게 연구의 문제로 남는 점이라 생각한다.

사용되었던 기존의 도구의 이용이나 새로운 도구의 제작에 의한 증명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거의 단위공간에 대한 형식이나 배치 등에 어떤 공통성도 있고, 또한 질서성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외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주의 개별성을 재고하지 않았던 점들도 지적되는 점이라 생각된다. 물론 일부적이기는 하지만 무척 향토적 또는 전통성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는 점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 제 V 장. 결론

본 연구는 시대별로 본 전통 주택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제주 주택을 대상으로 변화 과정에 대한 주거 공간과 구조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이다.

문제 제기는

1. 제주 주택의 주 공간구성은 어떤 법칙성이나 원리성이 있을 것인가
2. 제주의 주택은 시대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3. 제주 주택의 개별성을 규정화 또는 정형화시킬 수 있는가
4. 그것은 과연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는가

연구의 진행 절차는 문제 제기에 따른 논제를 제주 주택의 생활공간 변천 과정에 관한 것으로 하였고, 이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 문헌에 의한 인문·사회적 역사성과 문화적 성향 그리고 자연주의적 제주의 특성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고찰하였다.

다음은 문헌을 현지를 통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용은 역사적 과정에서 본 제주 주택의 평면을 수집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내·외부 공간의 건축적 성향을 전통민가, 근대주택, 현대주택 순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조건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내·외부의 공간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공간 구성 형식, 출입방식, 과거와 현재의 변화내용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내용으로는 위치 상에서 본 측면의 접근이다. 이는 진입, 위계성 그리고 단위공간인 취사공간과 주생활공간의 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다음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분석으로 성별관계와 가족 관계에서 본 평면 형식의 변화를 보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전통주거의 공간구성의 어떤 법칙성을 찾기 위해 선정한 분석의 도구로서 “원리도”의 모델을 작성하였다. 제주 전통 주택의 공간구성은 어떤 질서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종과 횡의 축과 향과 전후좌우 축과 우주적 중심성의 원리에 의한 상방중심의 주공간이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2. 남녀의 성별과 가족수 증가에 따라 공간이 분배, 분화된다는 것이다. 분화는 동일 대지 마당공간에 초기는 본채에서 별동으로 증축시켜 가는 모습이 있다.

3. 제주 주택의 칸수의 원리에 대한 것은 선정된 5개의 평면에서 볼 때 칸수와 그 구성방식에 대한 원리를 찾았고

4. 배치 유형에서는 소·중·대의 규모로 분류되었고, 평면의 형상은 소규모 S는-1, 중규모 M은 -3개, 큰 규모 L은 -2개 타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외부의 주공간 증식이 전면에서 측면으로, 측면에서 측면으로 변하면서 3면이 폐쇄적 외부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5. 그래프에 의한 분석에서 볼 때, 평면의 구성 원리는 사방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고, 실 분화에 의한 복잡한 변화는 방사형에서 연결형으로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6. 다음은 매트릭스에 의한 인접성을 분석한 결과 각 실들은 전통 주거에서는 상방과 정지 그리고 고팡 등 가사노동과 취사작업 그리고 저장 목적에 의한 공간 배분 행위가 주가 되는 공간이었으나, 현대로 오면서 안방과 거실 위주의 단란 및 프라이버시 확보 위주의 주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초기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주 주택의 규정화, 정형화라는 점에서 볼 때, 창안된 분석 모델인 원리도는 상당한 신뢰를 주었다고 본다. 이에 의한 적용의 결과 제주 주택의 변화에 대한 양상을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새로운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1. 김석윤,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 1986
2.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 1991
3. 김흥기, 주거건축의 공간구성과 구조체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 1986
4. 황경진, 한국전통마을 외부공간의 영역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 석사, 1987
5. 유병언, 한국건축사상의 전이현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 1986
6. 박민수, 강화도 전통민가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 1989
7. 김병기, 한국전통건축에 표출된 민간신앙의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 1987
8. 정모, 증개축을 통해 본 일식주거의 공간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 1991
9. 차명렬, 조선중기 상류주택의 누마루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 1985
10. 최병우, 한국전통건축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 1983
11. 정무용, 한국전통건축 외부공간의 계층적 질서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 1984
12. 김영덕, 제주도의 사신신앙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1982
13. 박현장, 양택론을 통해 본 한국전통주택의 배치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 1980
14.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 박사, 1992
15. 강행성, 제주도 안, 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 연구, 건국대 석사, 1985
16. 나상훈, 전통주거 건축의 공간질서화 방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 1993
17. 이증우·이해성, 주생활 반응에 의한 주공간변용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 논문집, 4권 4호
18. 양택훈·박용환, 제주민가의 주거환경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5호, 1991.10
19. 김경호외 2, 생활에 대응하는 재래주택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현장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5호, 1991.10

20. 정무용·고인룡, 주거문화적 배경에서 본 주거의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0호, 1994.10
21. 조원석, 일본 니이가타시 전통적 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 2호, 1996.2
22. 윤기병, 건축공간계획 방법론 발달에 따른 현황분석 및 방향설정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 10호, 1996.10
23. 이정근, 사회공간통신장의 그래프표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권 5호, 1987.10
24. 이정근, 사회공간통신장에서 공간분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권 1호, 1987.2
25. 이정근, 사회공간현상의 구조와 과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권 3호, 1966.6
26. 김승제, Space Syntax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권 3호, 1988.6
27. 장성준, 공간통사에서의 외부공간의 문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 2호, 1996.2
28. A mos Rapoport, 주택의 형태와 문화, 김광현 역, 산업도서 출판공사, 1977
29. Yoshinobe Ashihara, 건축의 외부공간, 김정동 역, 기문당, 1979
30. 吉岡健二郎 역, 비교예술학, Dagobert Frey, 창문사, 1980
31. 今村 柄, 朝鮮の家屋建築に關する話, 朝鮮と建築, 8집 6호
32. 朴彦坤, 韓國住宅史における床の高貴的象徴性, 日本建築學會
33. 毛直 道, 住居空間の人類學, 鹿島出版會, 1976
34. 善生永助, 生活狀態調査(その-2), 濟州道, 朝鮮總督府, 1929
35. 미경용, 고전적 도서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 논문집, 제13집, 1981
36. 조경철외, 농촌 취락의 구조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새마을 논총, 제3집, 새마을 연구회, 1977
37. 내무부, 농촌취락 구조 개선 과 주택개량 방안 연구, 내무부, 1971
38. 양희수, 한국 농촌의 촌락구조,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67

39. 문병집, 韓國의 村落에 關한 研究, 중앙 대학교 출판부, 1970
40. 조선총독부, 조선의 취락, 경성: 조선총독부, 1933
41.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문리사, 1977
42. 이지호, 한국의 풍토와 생활 양식, 현대인 강좌 열책, 한국의 발견, 박영사, 1962
43. 장용득, 명당론, 에밀레박물관, 1973
44. 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45. 장보용,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출판사, 1986
46.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6
47.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과거 전통 민가로 부터 현대 도시 주택에 이르기 까지 제주 주택의 시대적 변화과정을 살펴 보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제주주택의 주거 공간구성 방식의 구조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기에 제기되었던 문제는

1. 제주 주택의 주 공간구성 방식은 어떤 원리적 법칙성이 있을 것인가.
2. 제주의 주택은 시대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3. 제주 주택은 개별성 있는 것으로 전형화 시킬 수 있는가.
4. 이러한 것들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진행 절차는 문제 제기에 의해 본 연구의 논제를 “제주 주택의 생활공간 변화 과정에 관한 것”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타상성 검토를 한 다음, 문헌에 의한 인문.사회적 측면과 자연환경 및 풍토적 제주의 특성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고찰하였다.

다음은 문헌과 현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용은 역사적 과정에서 조명해 보는 제주 주택의 평면을 수집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내.외부 공간의 구성 방식을 전통민가에서 부터 현대주택까지를 조사 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조건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내.외부의 공간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은 구성된 공간의 유형, 출입방식, 공간의 위계질서, 생활과 공간의 변화 실태를 규명하였다.

특히 각 공간들의 위치를 정하는 데는 어떤 질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접근이다. 이는 진입, 위계성, 그리고 가사노동과 휴식 및 단란 그리고 섬 생활을 위한 취사를 위한 단위공간과 주생활과 공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다. 다음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본 분석으로 성별 관계와 가족관계에서 본 평면 형식의 유형을 분류해 보고져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제주 주택을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과 제주주택의 평면 구법의 원리를 찾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전통민가의 공간구성의 어떤 법칙성을 찾기 위해 선정한 분석의 도구로서 “원리도”의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에 의해 제주의 전통 주택의 공간구성은 어떤 질서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종과 횡의 축, 향과 전 후 좌우축, 우주적 중심성의 원리에 의한 상방중심의 주공간 구성을 하나의 법칙성으로 했다고 본다.

2. 전통 민가는 남녀의 성별과 가족수 증가에 따라 공간의 분배 및 분화 시켰던 원리이다. 분화는 동일 대지의 마당 공간에 본채에서 시작해서 별동을 축조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가는 구성 방식이었다는 것과

3. 선정된 평면에서 본 제주 민가의 구법은 목재나 석재에 의한 것과 기후, 풍토성에 의해 칸수와 외형의 원리를 적용했다는 것과

4. 외부공간의 배치 유형은 소,중,대 규모의 형식에 의해 구성 되었고, 그에 따라 평면의 형상이 몇 타입의 모델에 의해서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부의 주공간 증식은 전면에서 측면으로, 측면에서 측면으로 전이면서 4면의 물리적인 공간 요소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외부공간을 폐쇄시켰던 구성원리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분석은 방법상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도구로 선정했던 적용에 대한 결과이다. 이 도구의 적용 결과 제주주택의 공간 구성 원리를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1. 그래프에 의한 분석에서 볼 때, 평면의 구성원리는 상방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고, 실분화의 증식은 기본 틀을 기준으로 발전되는데, 기본인 방사형과 연결되는 형으로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다음은 매트릭스에 의한 인접성을 분석한 결과, 전통주거의 각 실들은 상방과 정치 그리고 고팡 등 가사 노동과 취사 작업 그리고 저장 목적에 의한 공간배분 행위가 주가 되는 구성방식을 택한 원리였다고 본다.

3. 주공간의 변화는 현대로 오면서 안방과 거실 위주의 단란 및 강한 프라이버시 확보하는 주공간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전통 민가의 제주주택은 정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근대적인 평면 형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주택에서는 변화가 다양화되는 점이 있고, 생활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의 중화된 절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개별성의 주거공간구조가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초기 제기 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던 본 연구는 특히 제주주택의 정형화라는 점에서 볼 때, 창안된 분석 모델인 매트릭스 분석방법과 그래프 방식 그리고 원리도는 본 연구가 겨냥했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상당한 신뢰를 주었다고 본다. 이에 의한 적용의 결과 제주 주택의 변화에 대한 양상을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새로운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에서 보는 앞으로의 제주는 국제적인 무대가 될 것을 대비한 다면 하나의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제주의 개별성있는 주거의 형태나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각 방면의 풍토성이 강조되었으면 한다.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나 재현을 위한 반복이 아니라 좀더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제주의 건축언어를 토착화 시킬것을 바라는 점이다.

부록 - (1) 제주민가의 용어해설

부록 - (2) 연도별 평면 형태 및 주택 개요

부록 - (3) 제주민가 사진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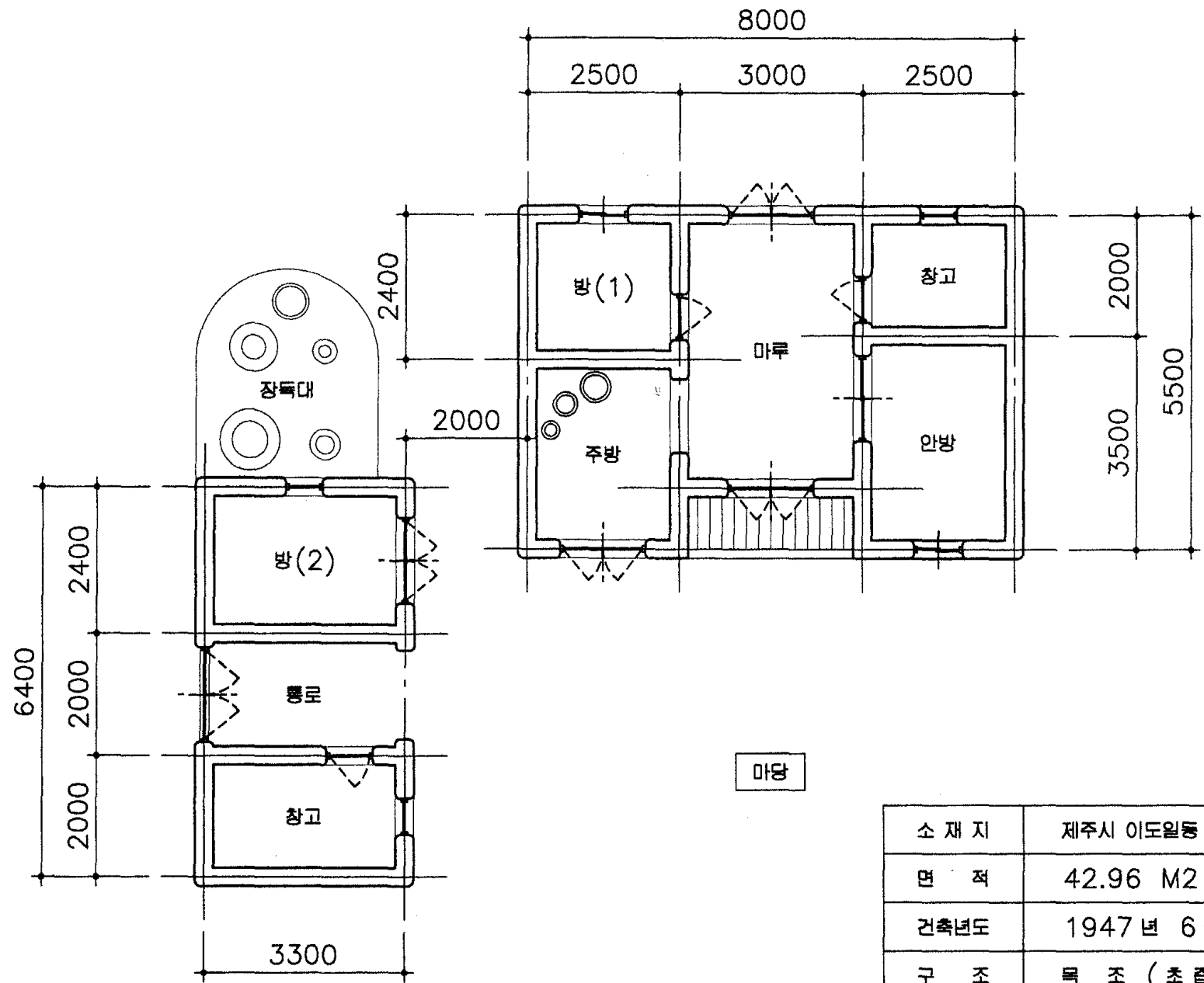
## 부록 - (1)

### 제주민가의 용어해설

- 안거리 : 안채 또는 본채.
- 밖거리 : 바깥채로 본채와 마주 앉은 형.
- 모커리 : 바깥채로서 본채와 직각으로 놓은 형.
- 난 간 : 마당과 상방의 중간매개 공간
- 장 방 : 상방뒷문의 퇴에 뒷문의 통로를 제외한 양쪽공간에 받침을 만들어 놓은 것.
- 안뒤 : 안거리의 후면에 위치하는 공간.
- 우영 : 건물이 배치되고 난 여분의 터에 채소 등을 심는 공간.
- 쇠왕, 쇠막 : 우마사, 농기구 보관 및 헛간.
- 우 잣 : 울타리 안.
- 우잣담 : 집주위 담.
- 장항굽 : 장독밑에 깔아 놓은 납작한 돌.
- 물 팡 : 정지 입구 옆에 물허벅 놓은 장소.
- 물팡돌 : 말을 탈 때 디딤돌로 이용하는 돌.
- 잇들(다리팡들) : 올래 양옆 또는 마당 출입 동선에 비가 올 때 흙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잘 다듬어진 징검다리 돌.
- 정주석 : 정낭을 걸쳐 놓게 만든 구멍 뚫린 장대석.
- 정 낭 : 집주인이 었고 없음을 표시하고 마소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걸쳐 두는 목봉
- 못뚱(퇴) : 난간이 없는 상방, 구들 입구 직전의 공간.
- 풍 채 : 각목으로 뼈대를 짠 위에 새를 엮어서 만든 것으로 난간 또는 못뚱 상부처마에 걸어서 비바람 또는 햇빛을 막는 시설.
- 촛 : 새로 엮어 만든 물을 모으는 기구로서 나무 몸통에 걸어서 비올 때 향아리 등에 물을 받는 것.
- 봉 덕(부섭) : 상방, 정지에서 고기를 굽거나 옷을 말리는 돌화로.
- 살 레 : 정지에서 이동 가능한 찬장.
- 시 령 : 제례용품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상방천정 상마루(영마루) 바로 밑의 선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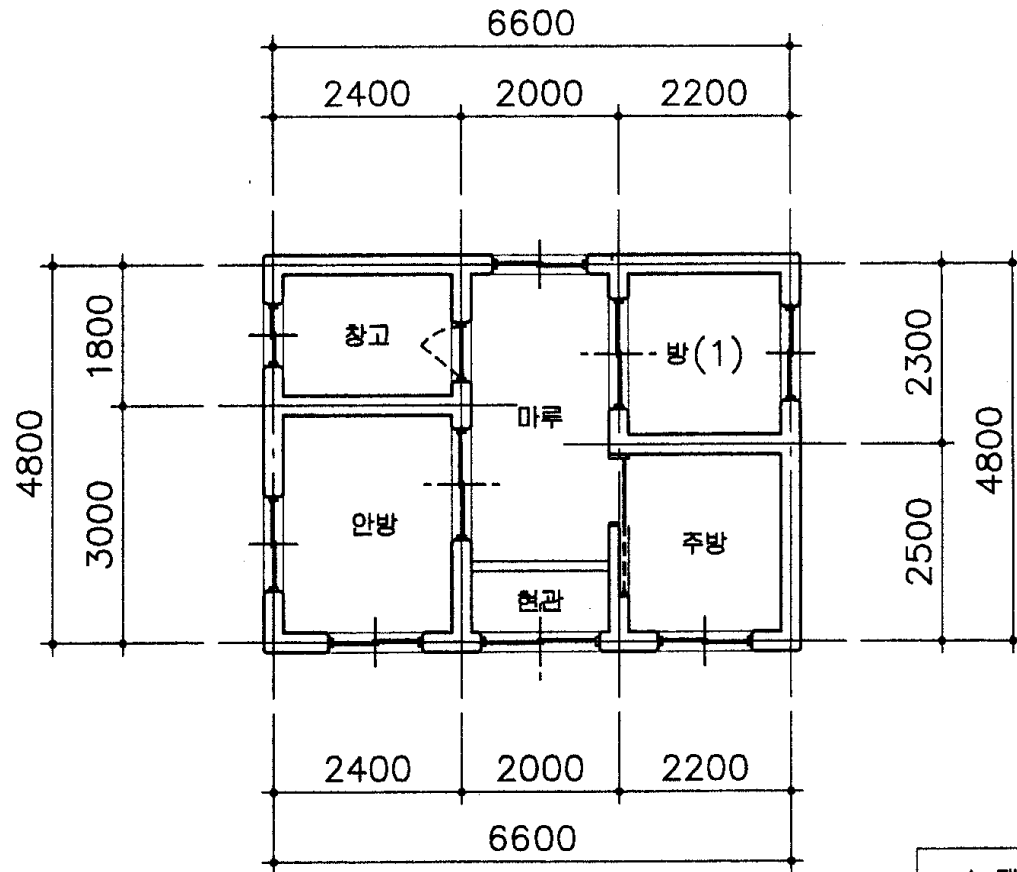
년 도 별 평 면 형 태 비 교 표

연도 순서	내용	소 재 지	구 조	건 축 년 도	면 적
①		제주시 이도 일등 1392 번지	목 조 (초 즙)	1947년 6월	42.96 m <sup>2</sup> (12.99py)
②		제주시 일도 이등 1029-182 번지	석 조 (스레트)	1948년 5월	29.09m <sup>2</sup> (8.80py)
③		제주시 일도 일등 1243-1 번지	목 조 (와 즙)	1949년 8월	109.08m <sup>2</sup> (32.99py)
④		제주시 일도 일등 1111-4 번지	목 조 (와 즙)	1954년 11월	79.33m <sup>2</sup> (23.99py)
⑤		제주시 일도 일등 1102 번지	목 조 (와 즙)	1957년 11월	46.28m <sup>2</sup> (14.00py)
⑥		제주시 일도 일등 1213 번지	목 조 (와 즙)	1962년 1월	66.12m <sup>2</sup> (20.00py)
⑦		제주시 일도 이등 1029-125 번지	목 조 (스레트)	1965년 6월	63.14m <sup>2</sup> (19.09py)
⑧		제주시 일도 이등 1029-93 번지	철근조 (스라브)	1972년 11월	78.51m <sup>2</sup> (23.75py)
⑨		제주시 일도 이등 1029-125 번지	벽돌조 (스레트)	1974년 4월	71.07m <sup>2</sup> (21.50py)
⑩		제주시 도남동 31-13 번지	철근조 (스라브)	1987년 11월	87.49m <sup>2</sup> (26.46py)
⑪		제주시 노형동 937-20 번지	조적조 (스라브)	1988년 2월	75.47m <sup>2</sup> (22.82py)
⑫		제주시 도남동 912-7, 912-13번지	철근조 (스라브)	1995년 9월	117.58m <sup>2</sup> (35.56py)
⑬		제주시 이도 이등 710-20 번지	철근조 (스라브)	1996년 5월	95.04m <sup>2</sup> (28.74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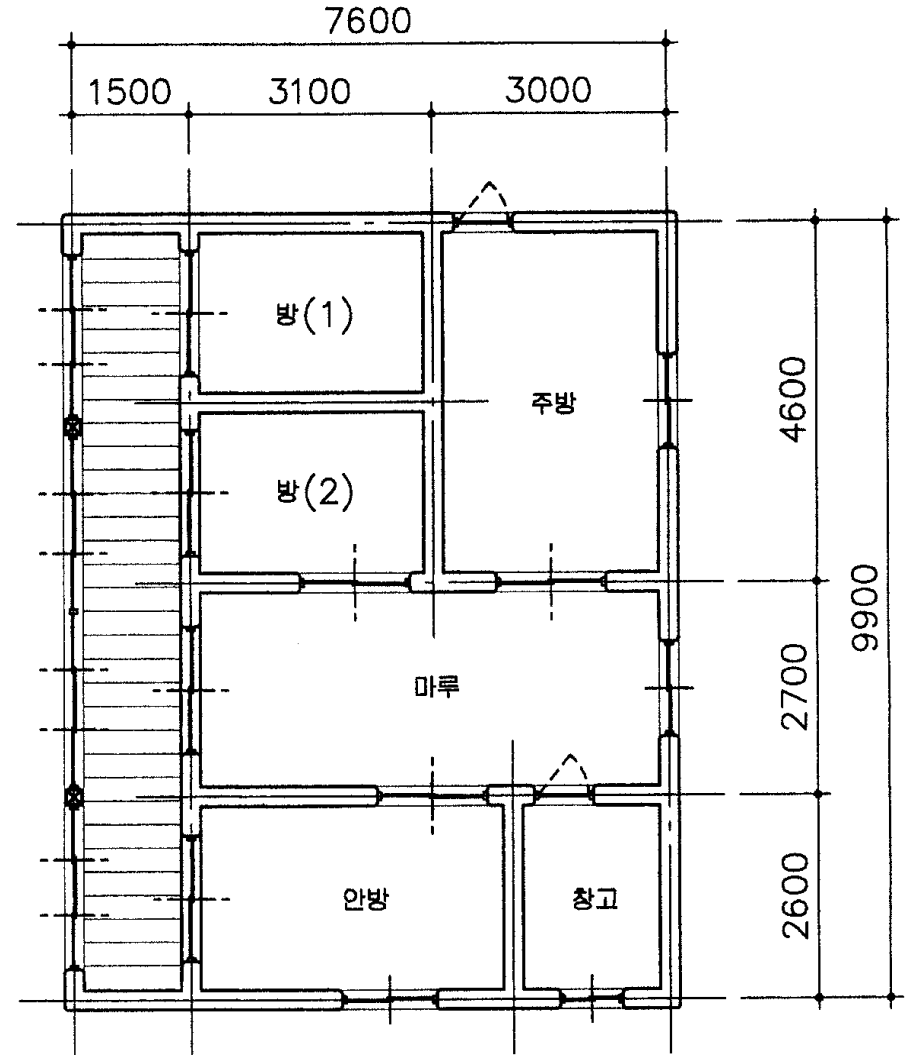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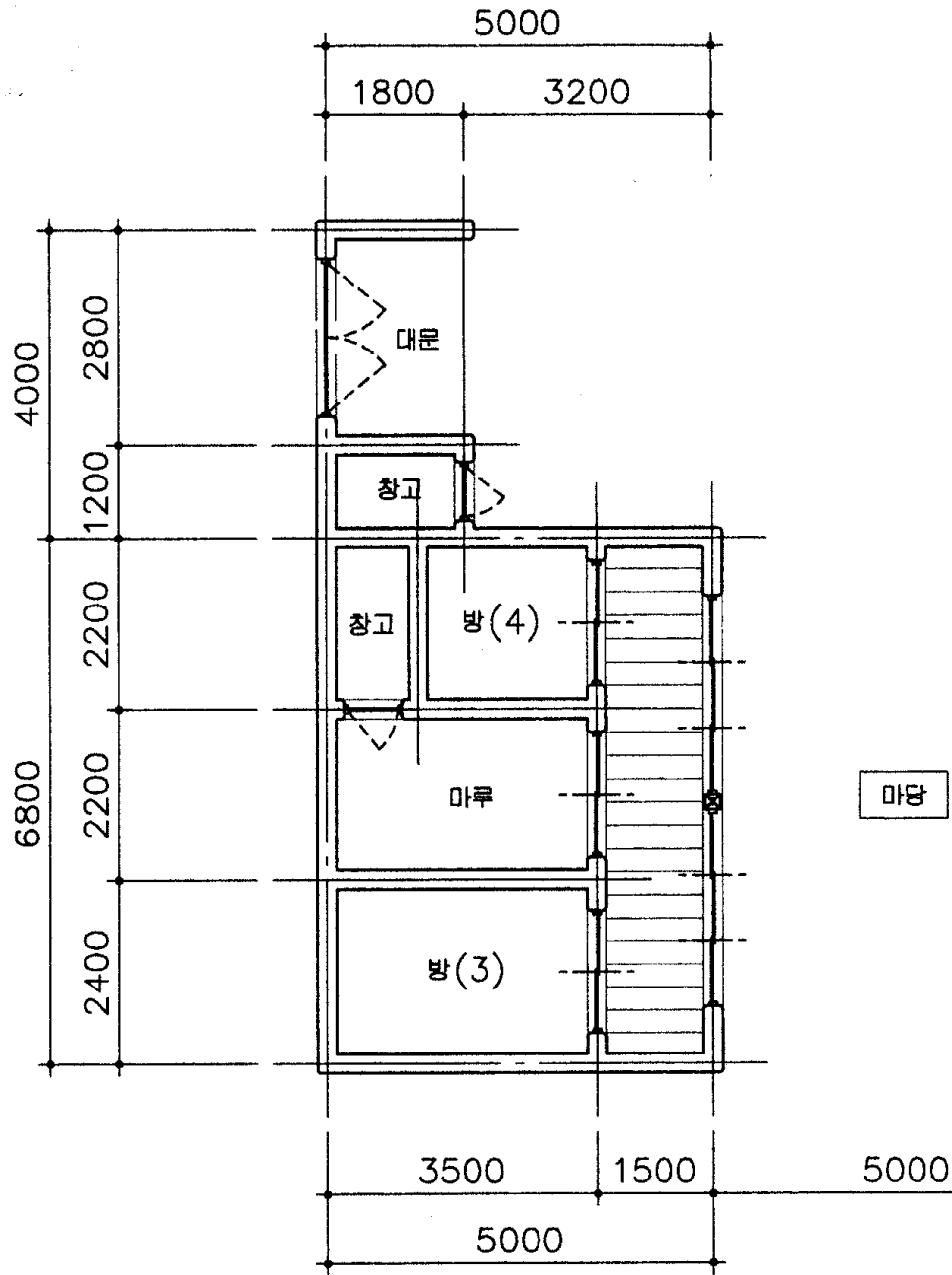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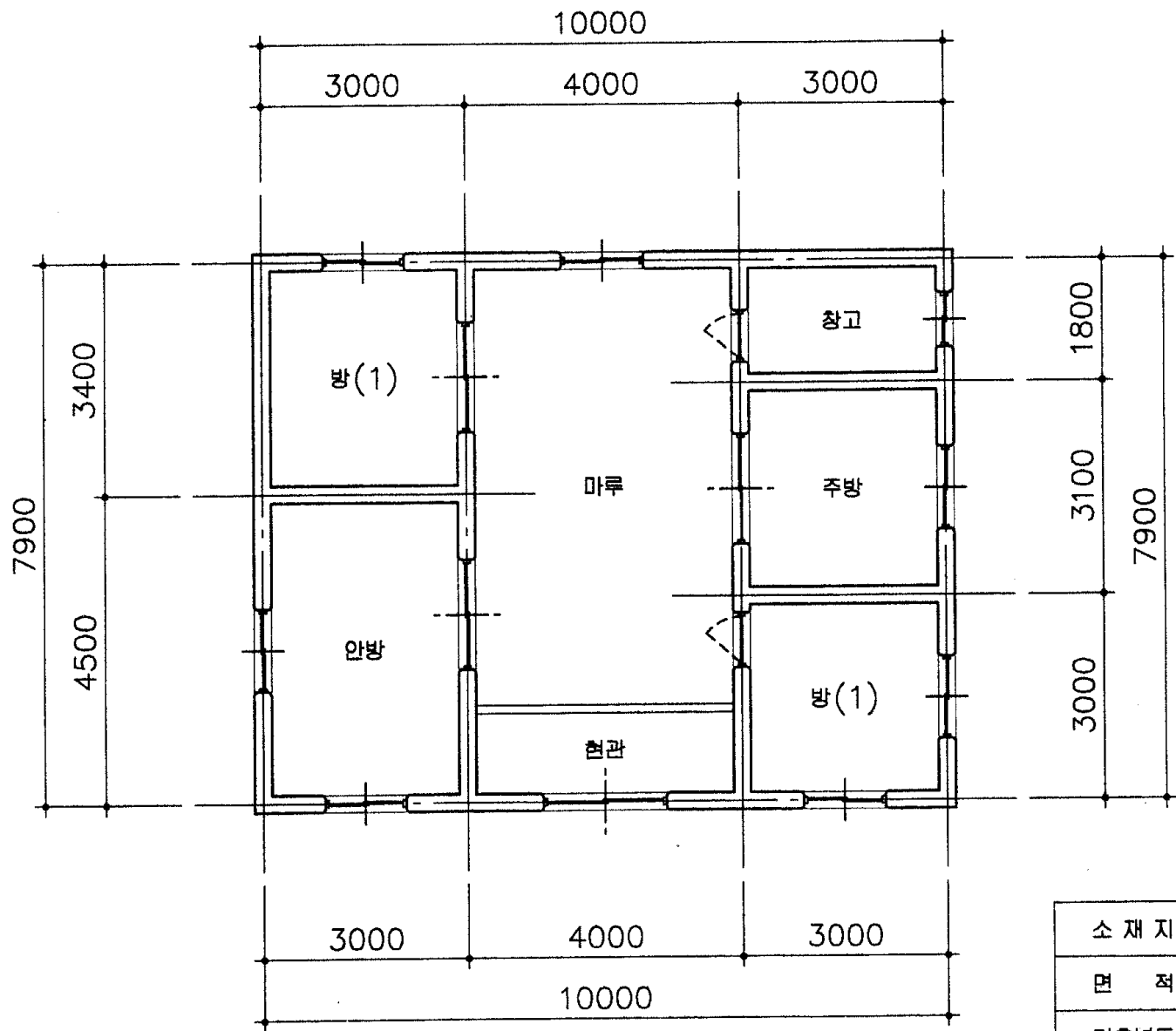
소재지	제주시 이도일동 1392 번지
면적	42.96 M2 (12.99 py)
건축년도	1947년 6월
구조	목조 (초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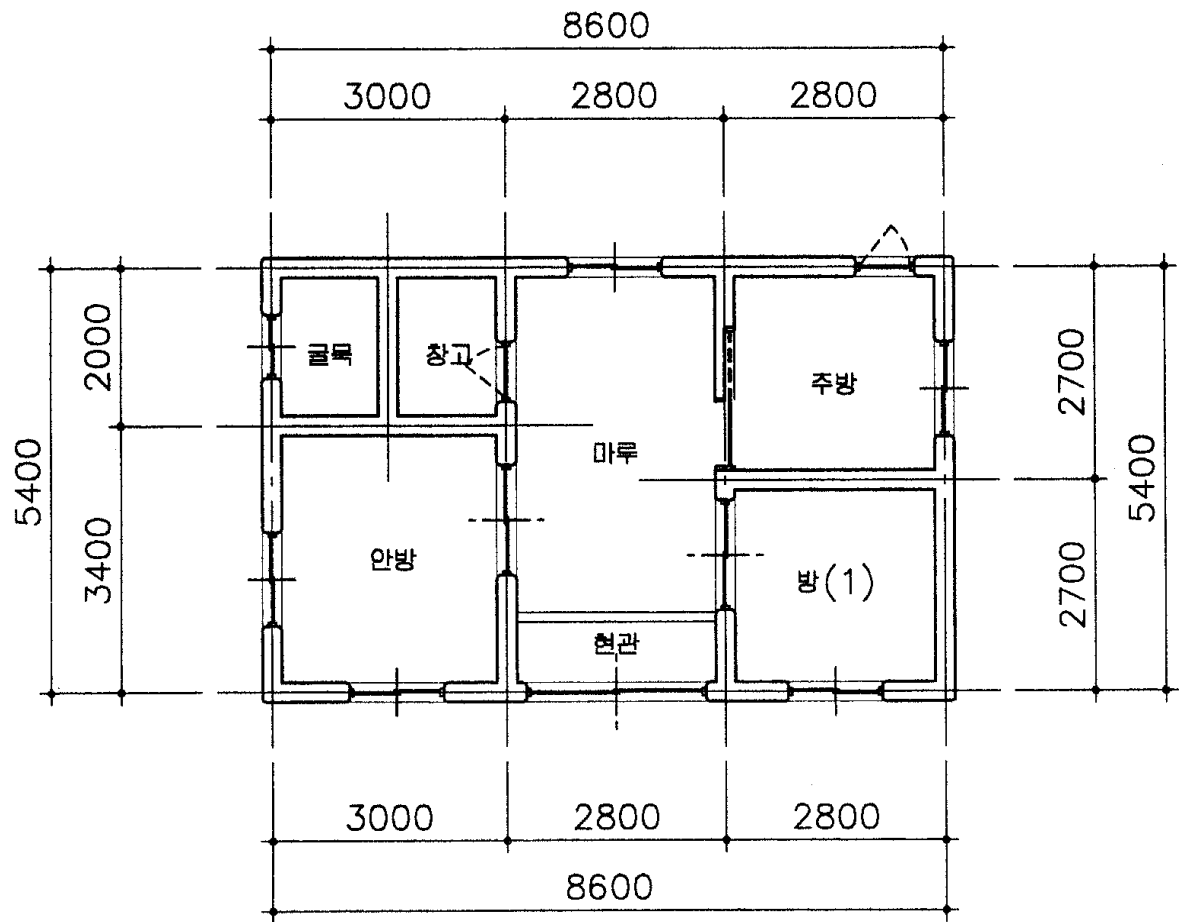
소재지	제주시 일도이동 1029-182 번지
면적	29.09 M2 (8.80 py)
건축년도	1948년 5월
구조	석조 (스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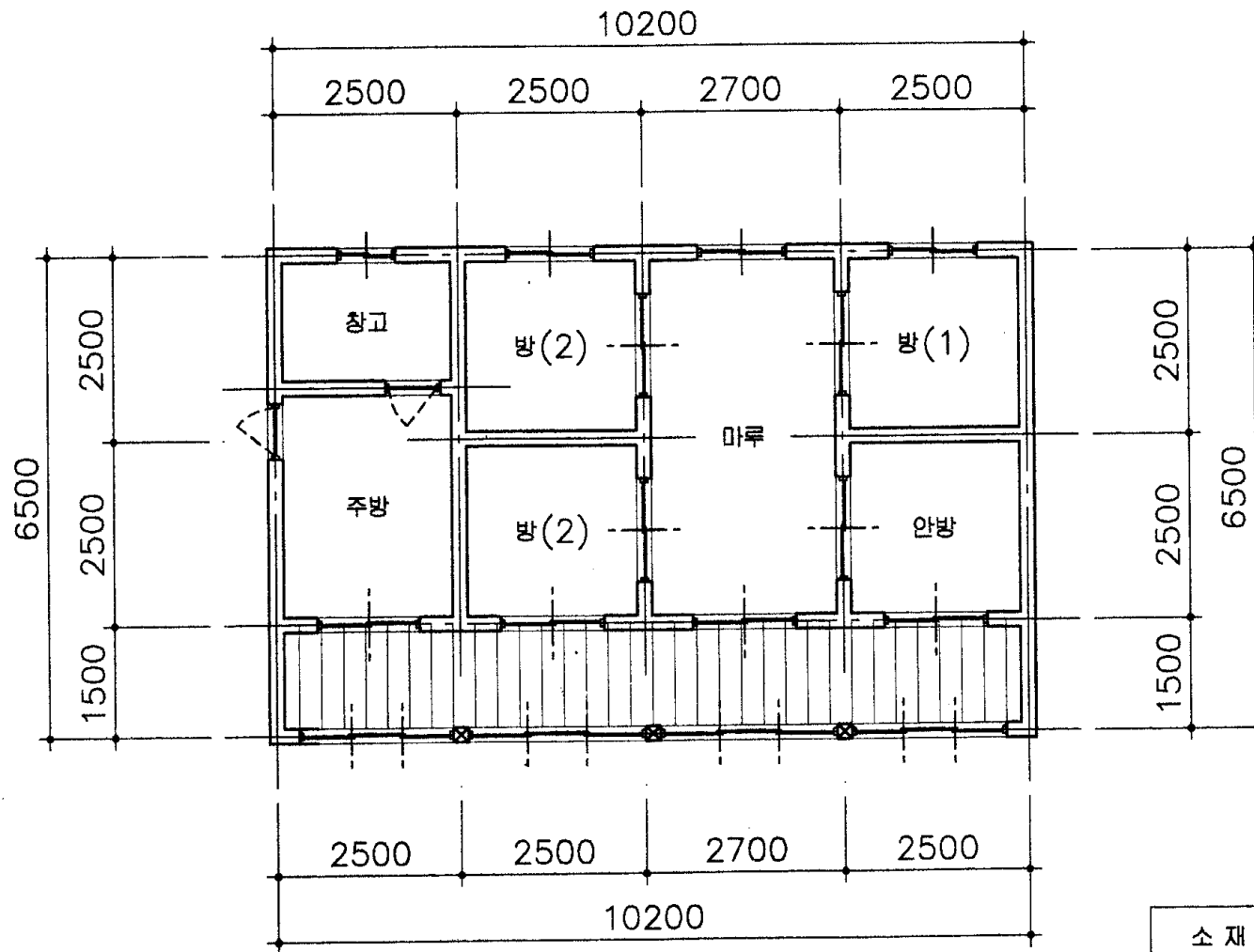
소재지	제주시 일도일동 1243-1 번지
면적	109.08 M2 (32.99 py)
건축년도	1949년 8월
구조	목조 (와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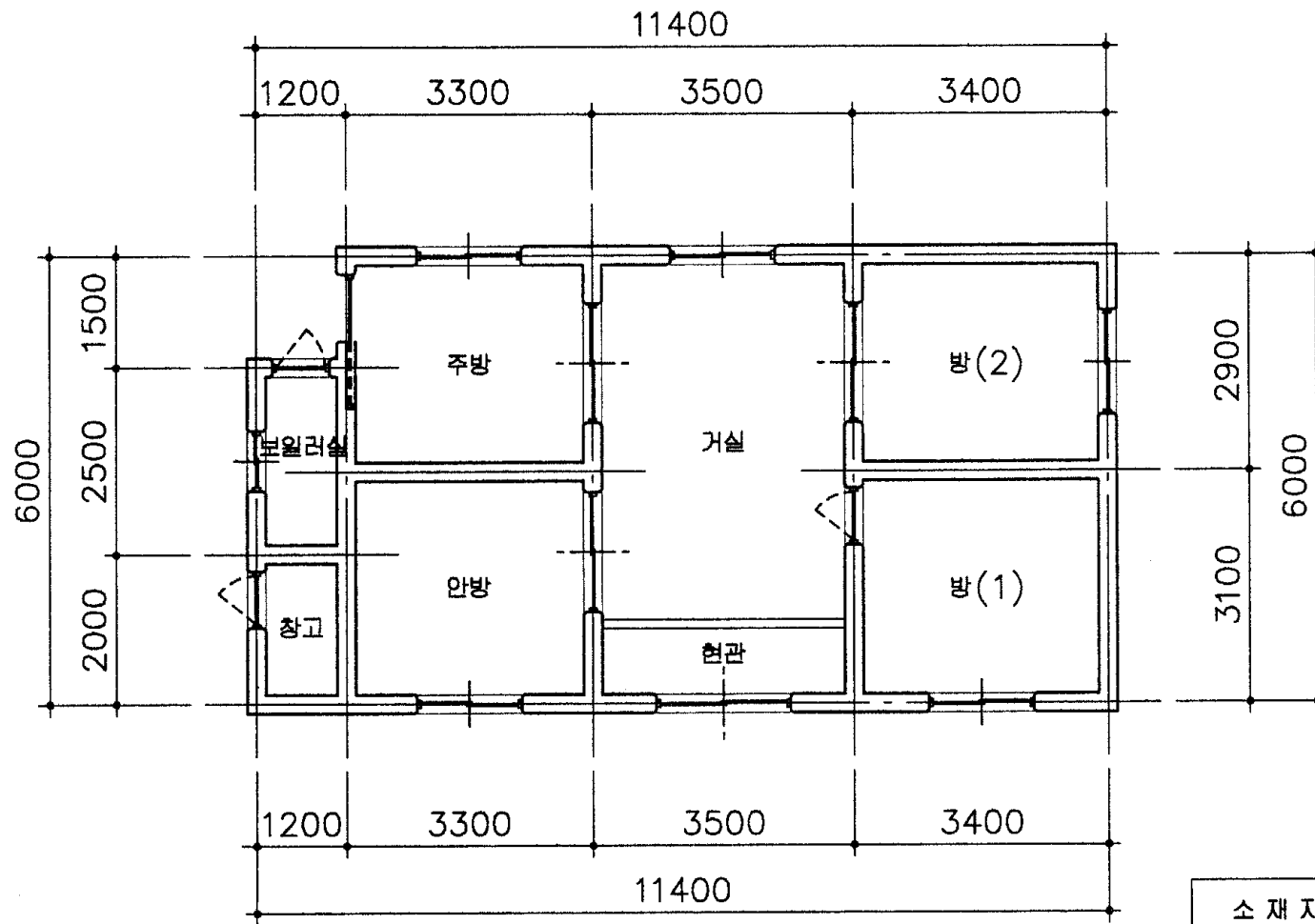
소재지	제주시 일도일동 1111-4 번지
면적	79.33 M2 (23.99 py)
건축년도	1954년 11월
구조	목조 (와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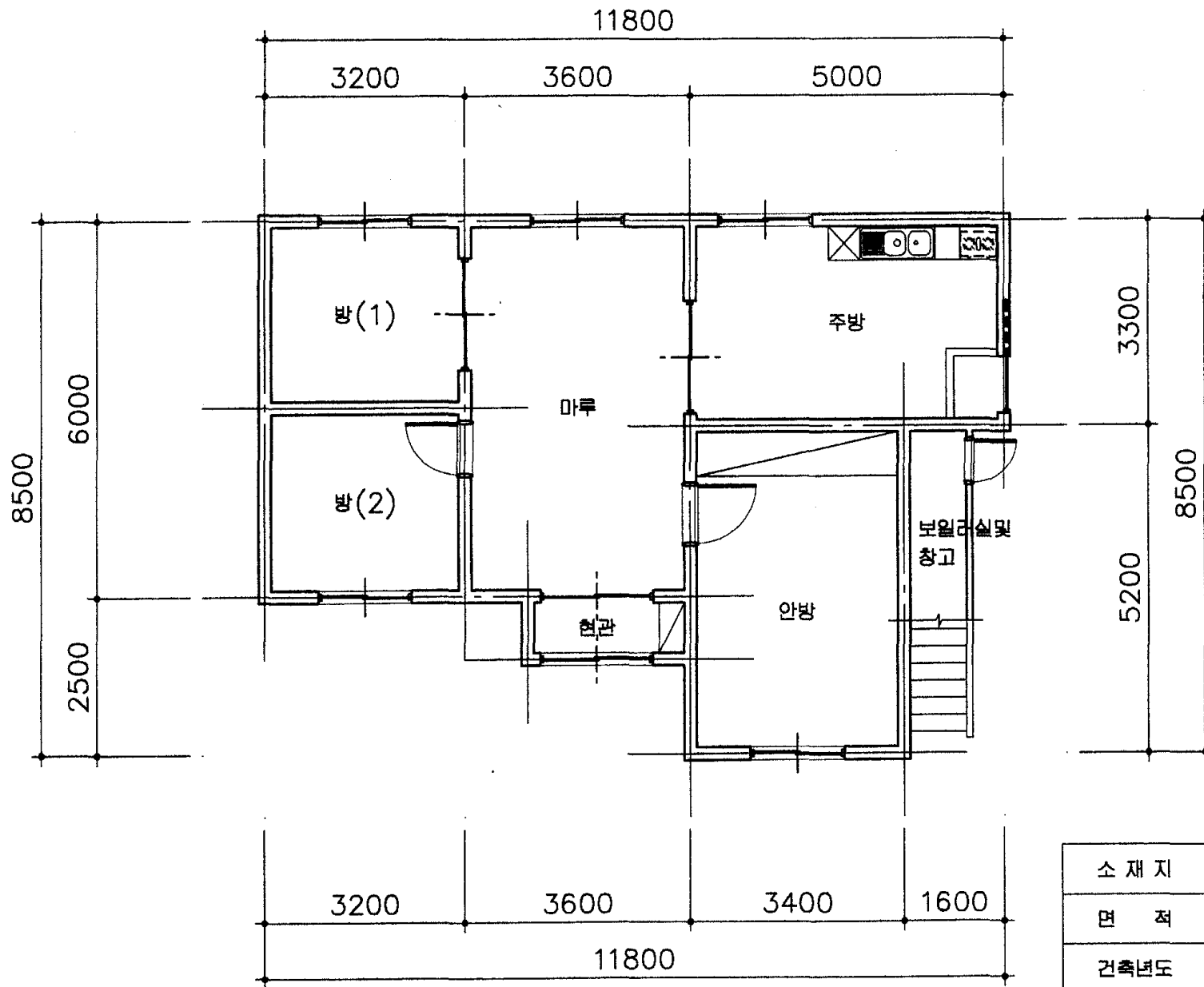
소재지	제주시 일도일동 1102 번지
면적	46.28 M2 (14.00 py)
건축년도	1957년 11월
구조	목조 (기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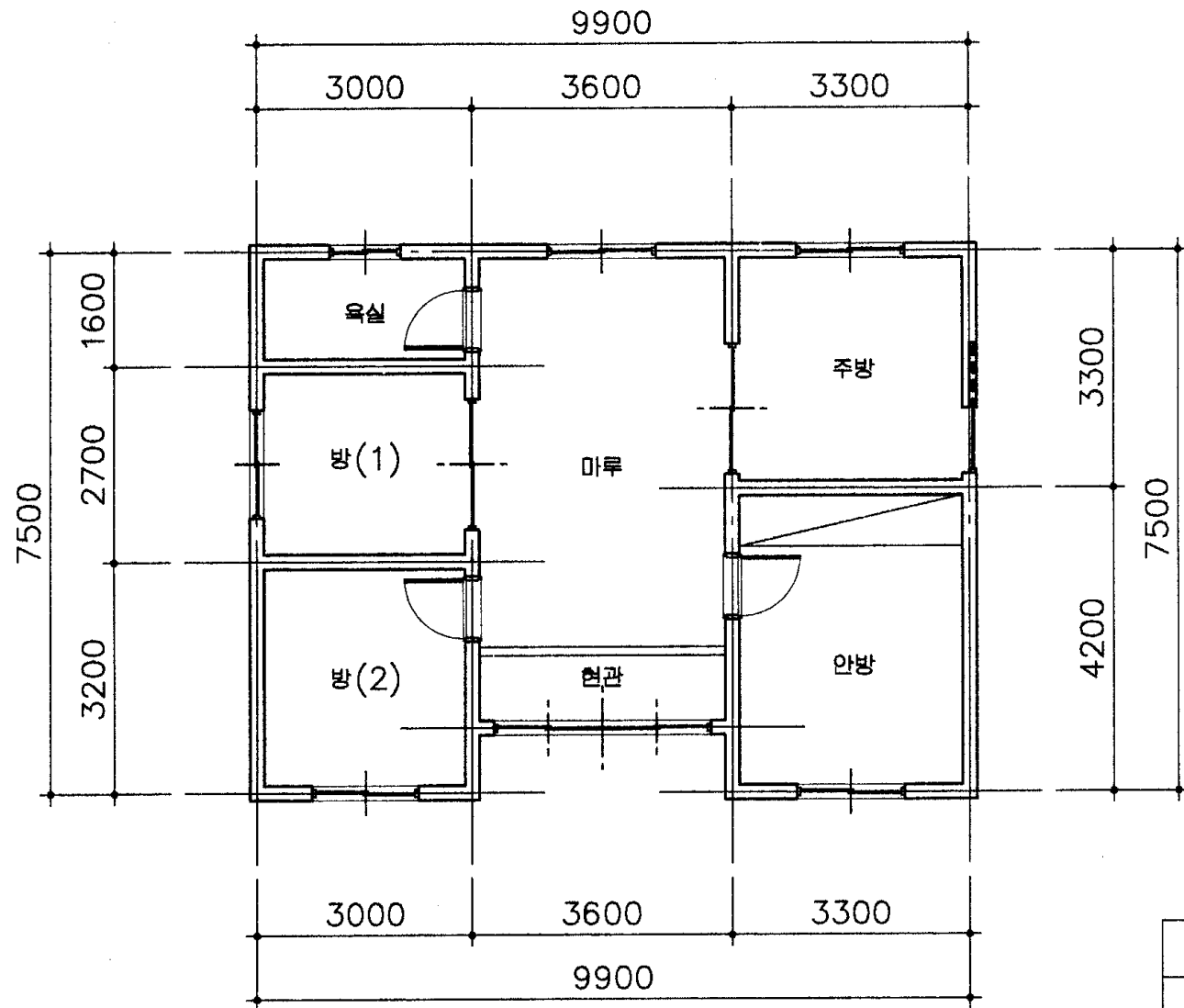
소재지	제주시 일도일동 1213번지
면적	66.12 M2 (20.00 py)
건축년도	1962년 1월
구조	목조 (와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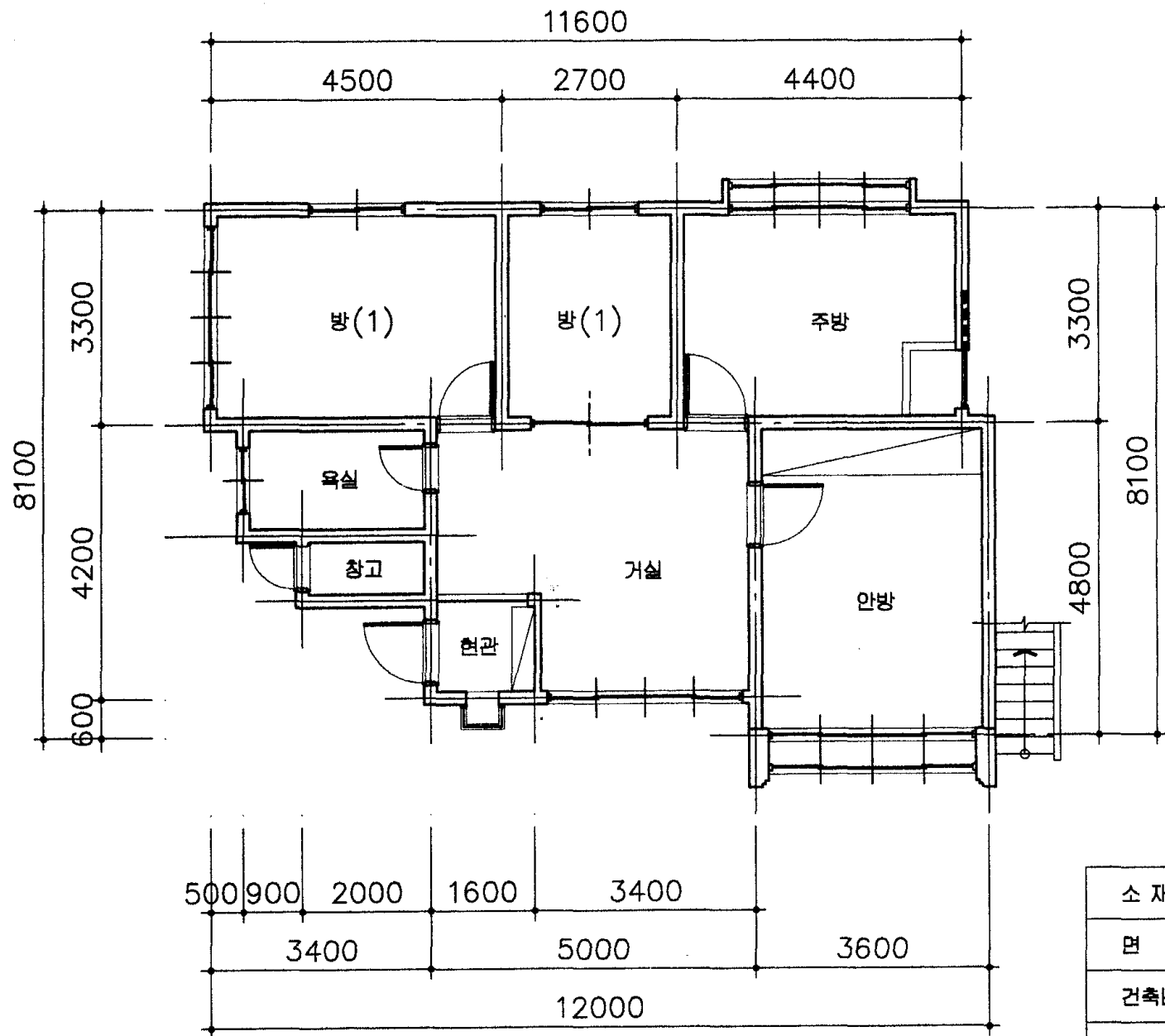
소재지	제주시 월도이동 1029-125번지
면적	63.14 M2 (19.09 py)
건축년도	1965년 6월
구조	목조 (스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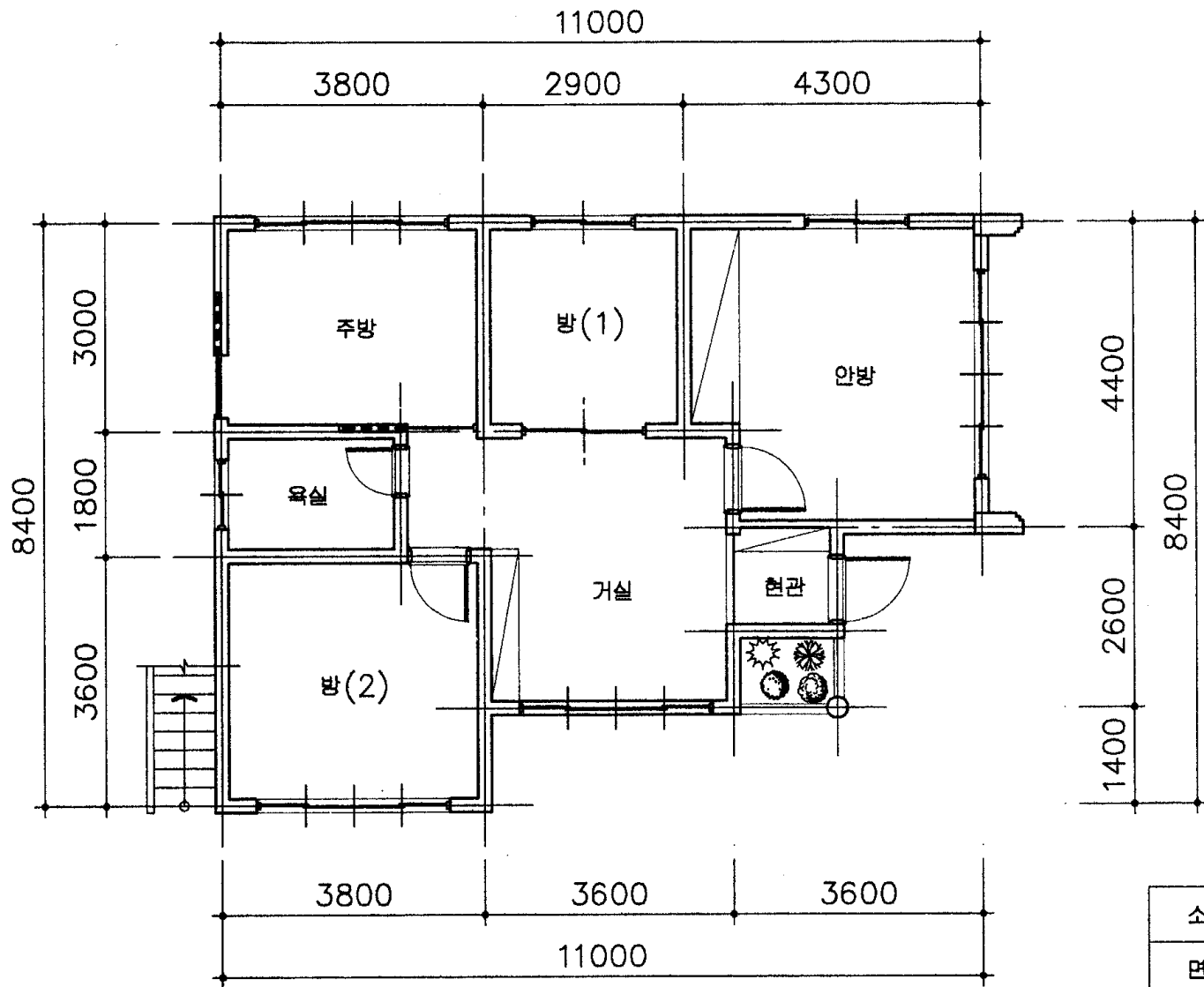
소재지	제주시 일도이동 1029-93번지
면적	78.51 M2 (23.75 py)
건축년도	1972년 11월
구조	철근조 (스라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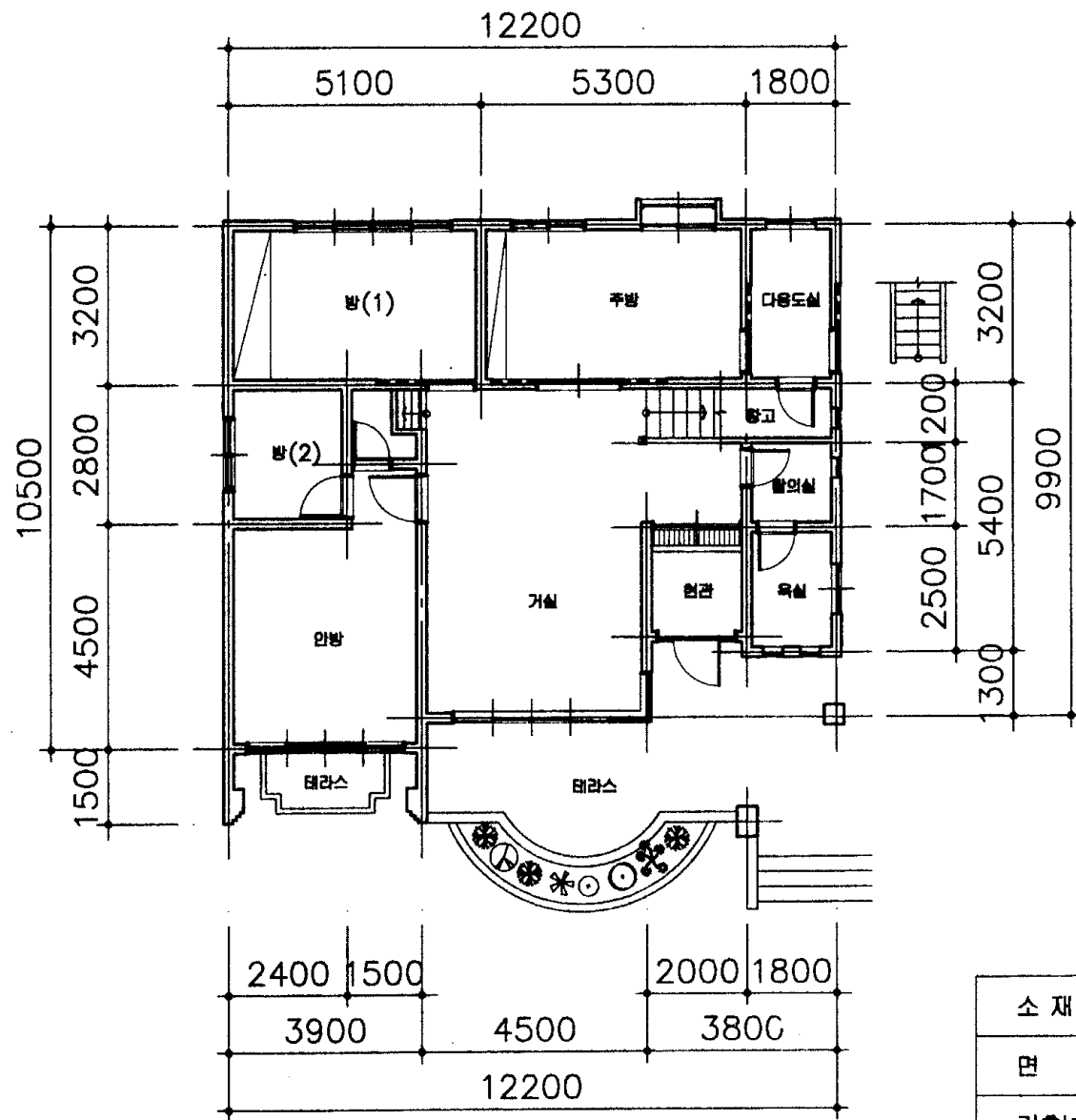
소재지	제주시 일도이동 1029-125번지
면적	71.07 M <sup>2</sup> (21.50 py)
건축년도	1974년 4월
구조	벽돌조 (스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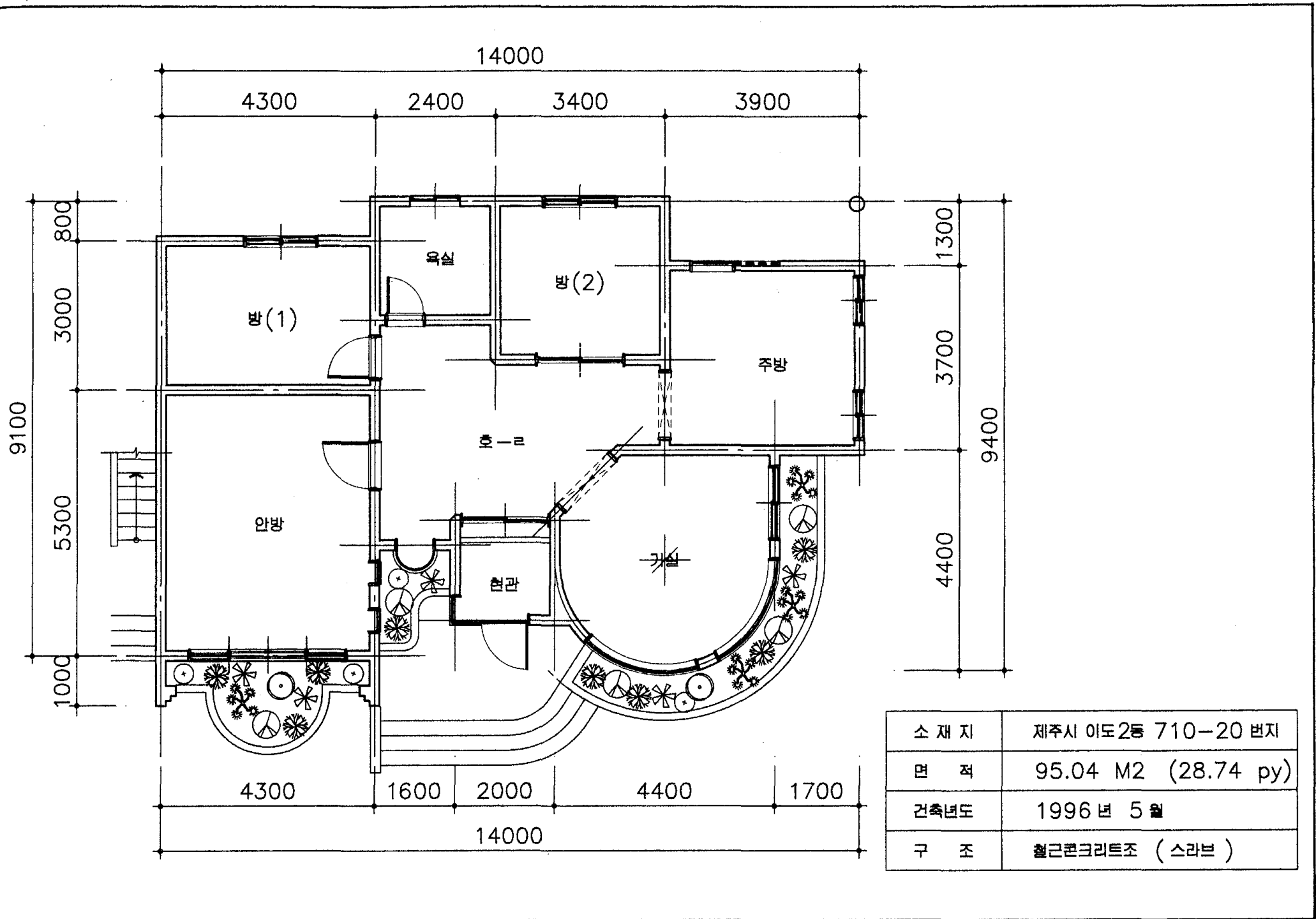
소재지	제주시 도남동 31-13번지
면적	87.49 M2 (26.46 py)
건축년도	1987년 11월
구조	철근조 (스라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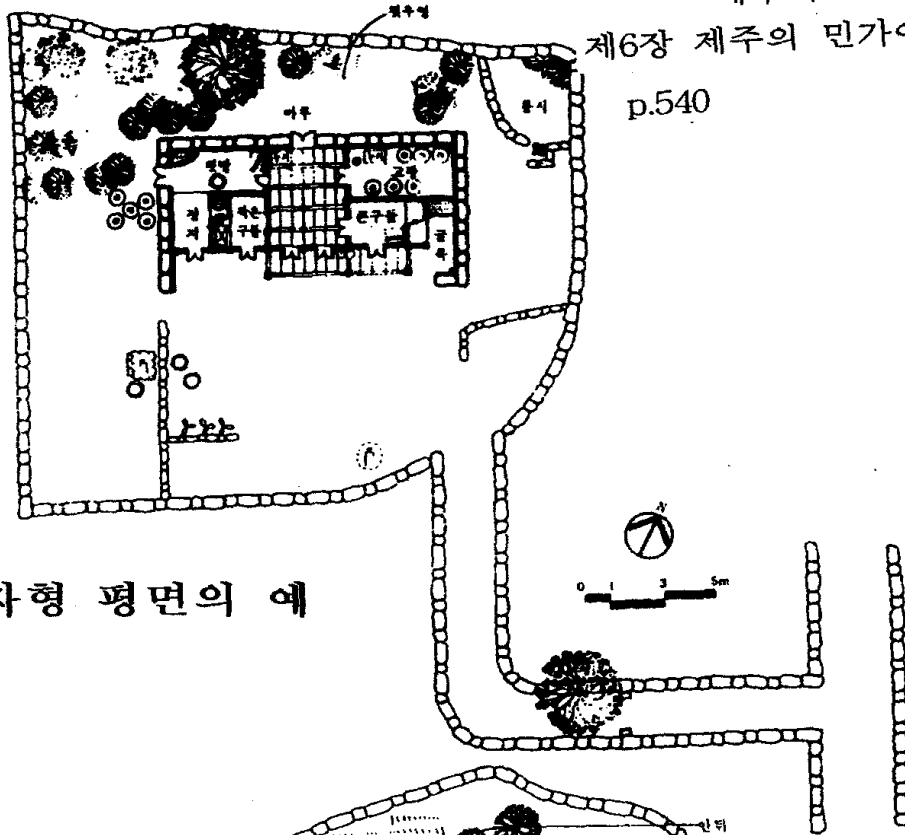
소재지	제주시 노형동 937-20 번지
면적	75.47 M2 (22.82 py)
건축년도	1988년 2월
구조	조적조 (스라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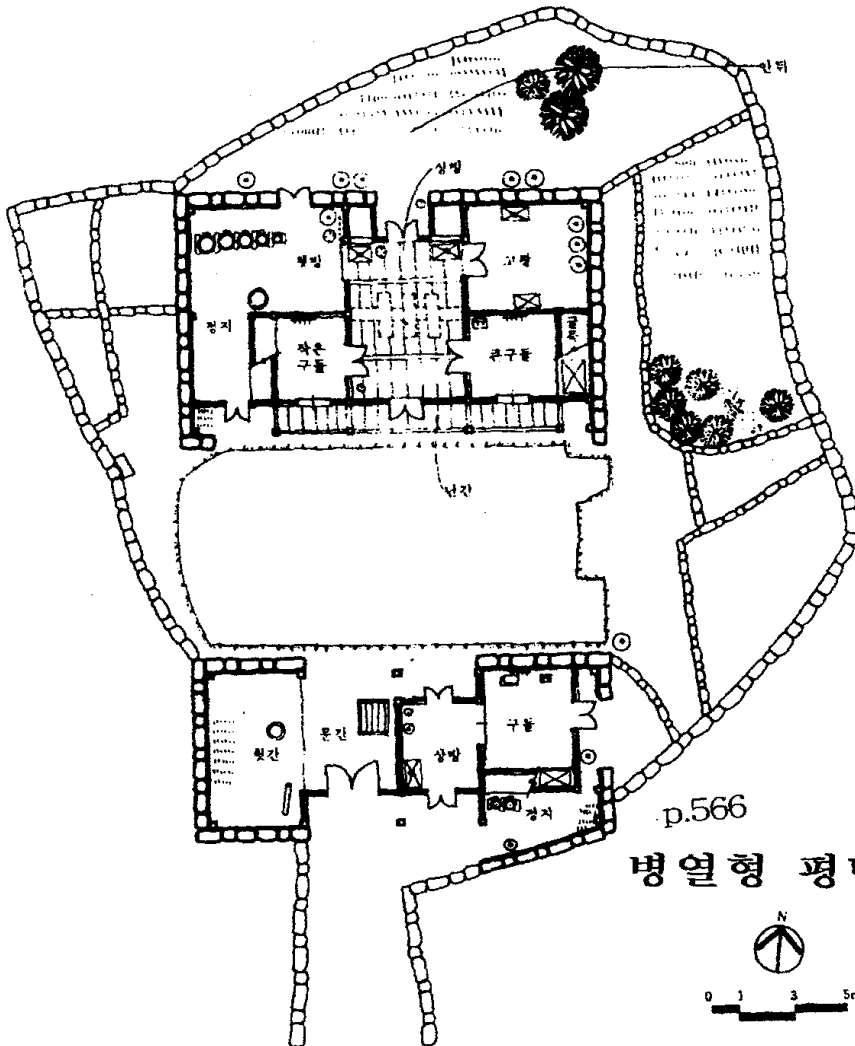
소재지	제주시 도남동 912-7,912-13번지
면적	117.58 M2 (35.56 py)
건축년도	1995년 9월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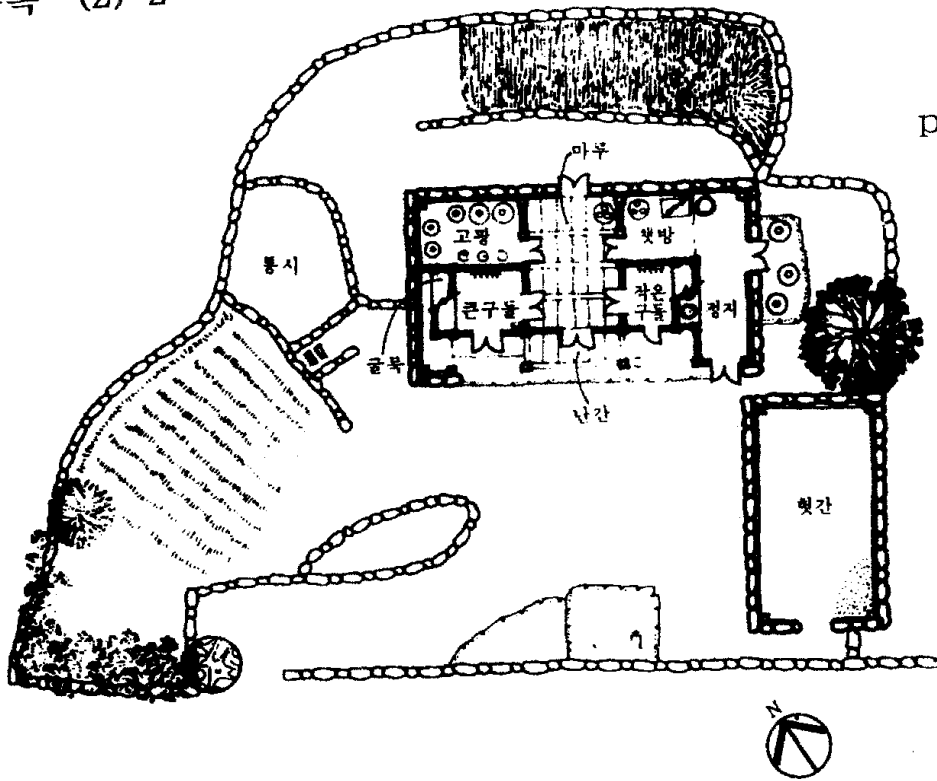
제주의 민속: 제주도  
제6장 제주의 민가에서 발취  
p.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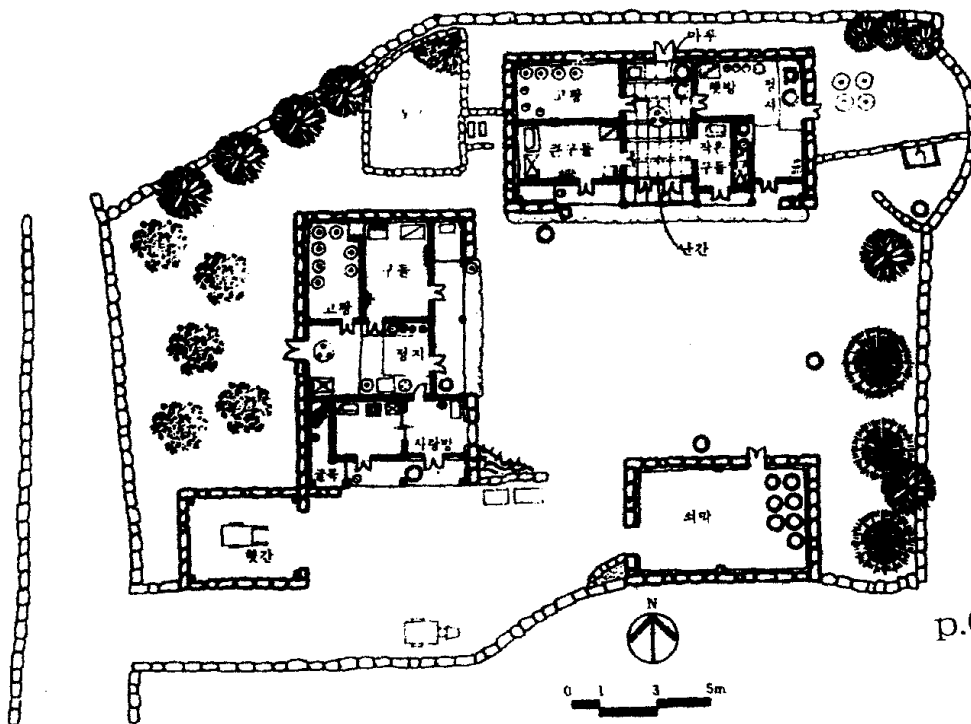
일자형 평면의 예



p.566  
병열형 평면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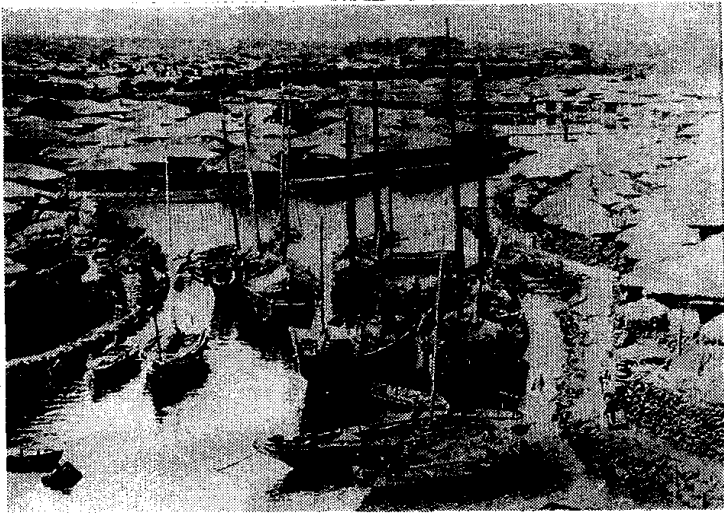


ㄱ자형 평면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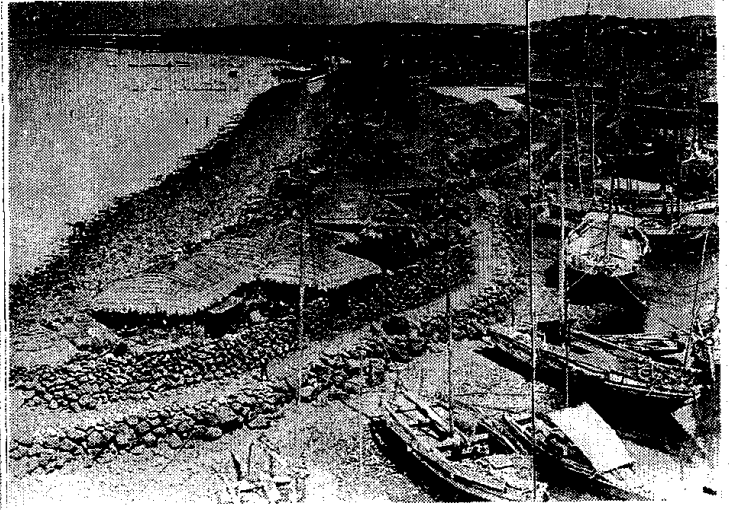


ㄷ자형 평면의 예

부록 3 -①



▶ 사진-1 초기 제주 집락 및 포구 사진-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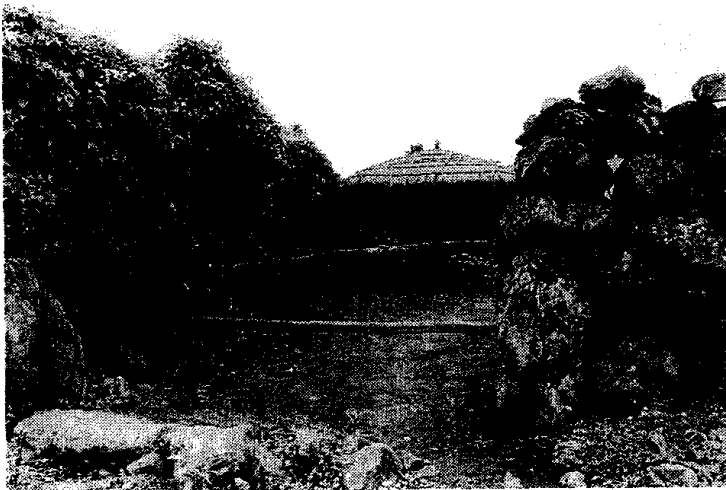
▶ 사진-2 포지 제주 집락 및 포구 사진-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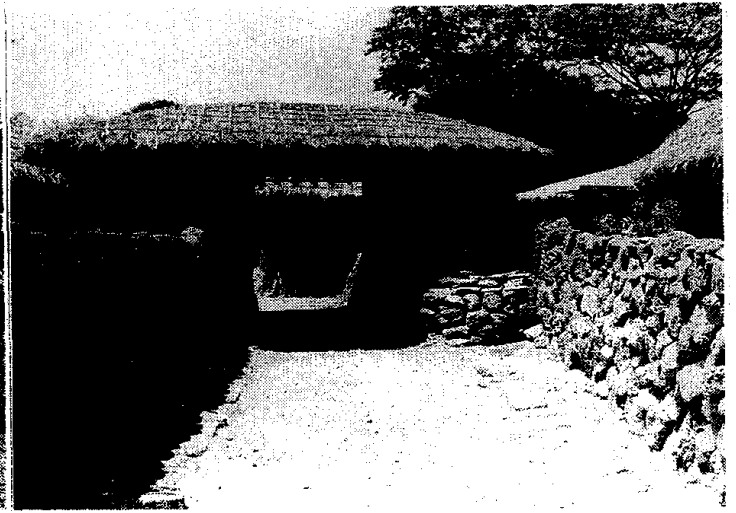
▶ 사진-3 울래의 입구



▶ 사진-4 을개직이/정낭/긴장대-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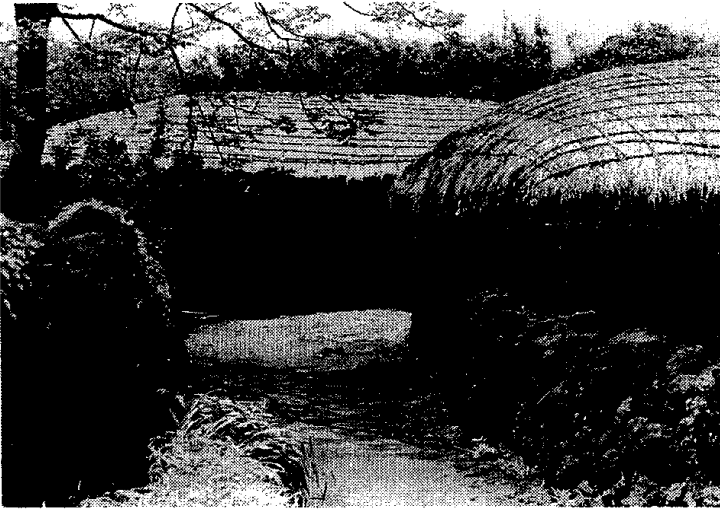


▶ 사진-5 을래직이/정낭/긴장대-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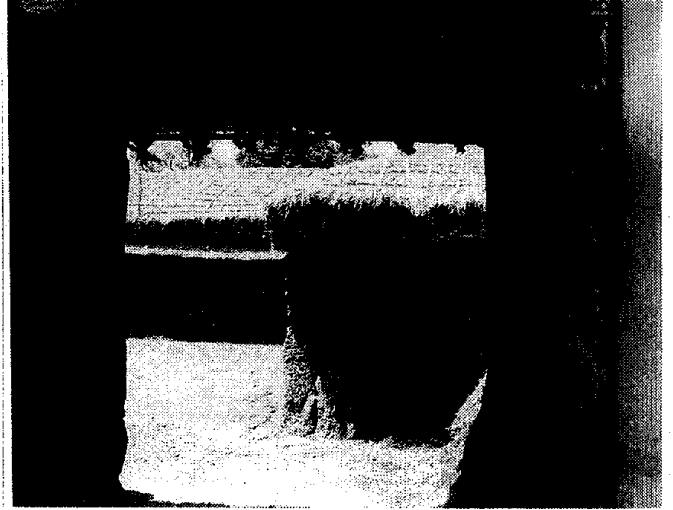


▶ 사진-6 이문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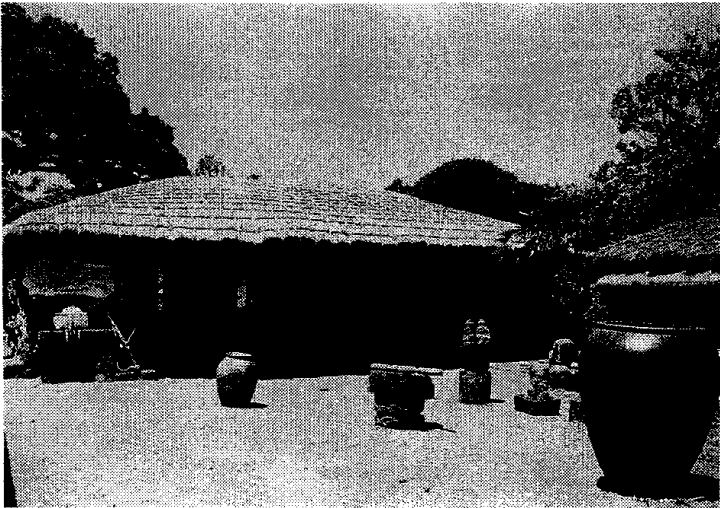
부록 3 -②



▶ 사진-7 안거리와 밖거리



▶ 사진-8 이문거리에서 본 안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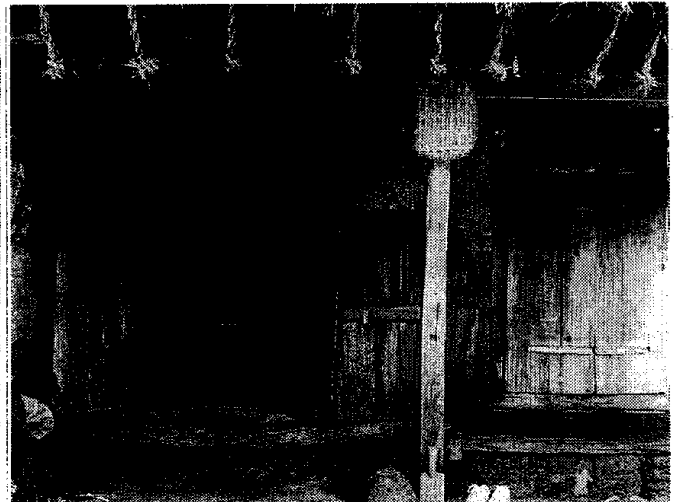
▶ 사진-9 마당과 안거리



▶ 사진-10 안간 + 큰구들 + 굴묵



▶ 사진-11 마당 + 안거리 + 모커리



▶ 사진-12 정지 + 난간 + 굴묵

##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자상한 가르침을 주신 김수인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의 심사와 깊은 조언을 해주셨던 이청웅 교수님, 임만택 교수님, 그리고 평소 아낌없는 가르침과 격려를 주신 장정수 교수님, 양영성 교수님, 조용준 교수님, 김정섭 교수님, 박강철 교수님, 김의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자료 및 원고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서강전문대 나상훈 교수님과 본 김수인교수 연구실의 정영석 대학원생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뒷바라지와 사랑을 보내면서 격려해 준 아내 문옥순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들과 귀여운 상희, 상현 이와 함께 오늘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7. 6.

김 영 식